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 01

삼성건축사사무소

도원계획도
S=1/1200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삼성건축사사무소

발간사

건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습니다. 최초의 기획 단계에서 고려했던 여건들이 변화하며 소유자나 용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건축물의 형태나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건축의 변화는 우리가 생활하고 경험하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건축은 불과 10년 전, 20년 전의 건축 환경과도 매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 같습니다.

건축이 만들어지고 변형되거나 이용되는 모습은 건축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공하고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건축 아카이브는 이러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선별하여 건축의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은 물론이고, 건축 교육의 훌륭한 교재로서 건축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건축적 대안이나 상상력을 기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07년 개소 이후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과 건축가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의 방법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로서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아카이브 연구는 2011년에 설립된 국가한옥센터에서 한옥 콘텐츠 개발 연구로 이어져 현재의 한국건축 아카이브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한옥센터는 국가의 한옥 정책을 기획하고 한옥 문화의 진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카이브를 통해 한옥 지식 체계화를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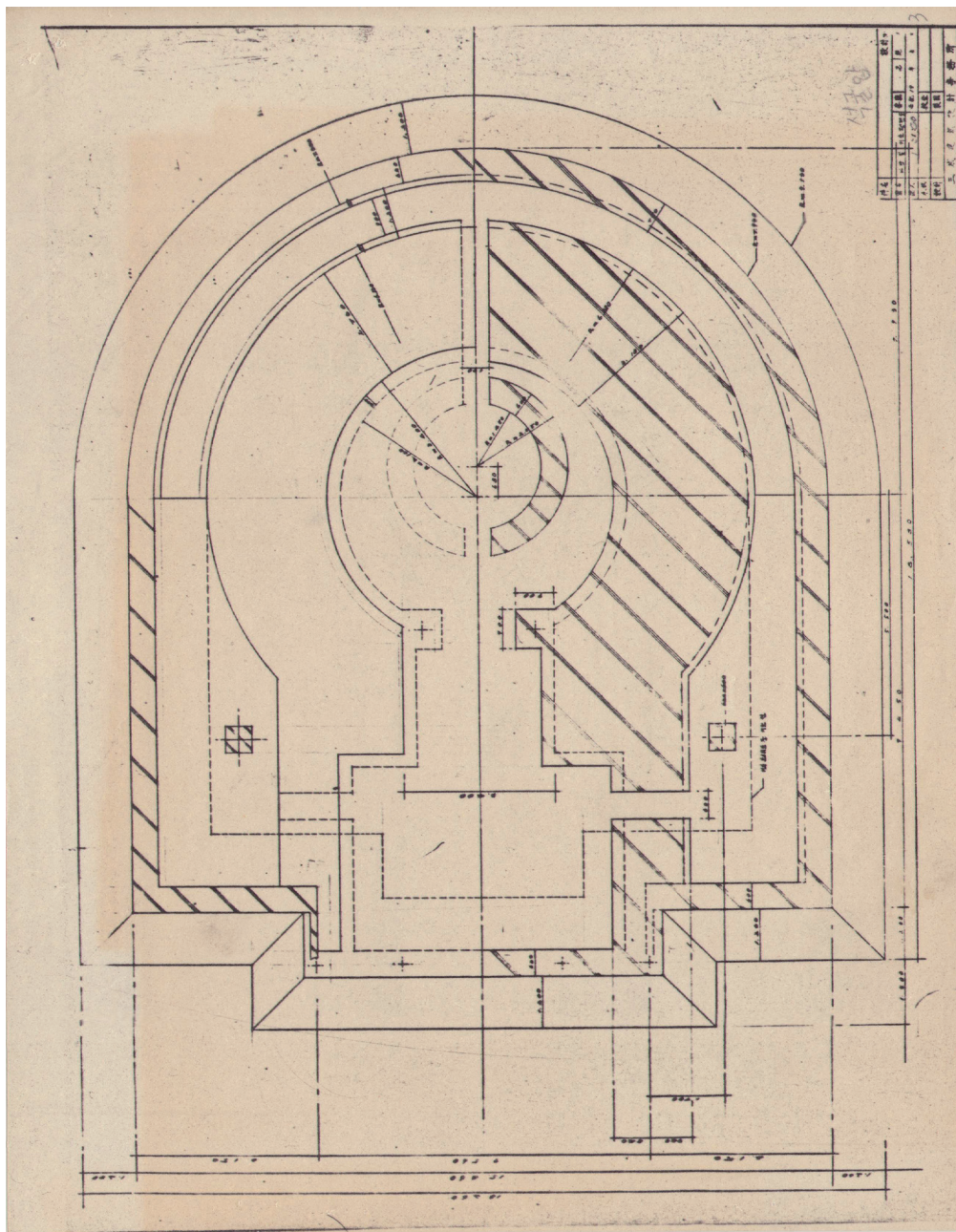
국가한옥센터는 2012년부터 김동현 선생님, 신영훈 선생님,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축해 온 아카이브는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 단행본 시리즈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의 과정과 아카이브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옥의 다양한 가치를 확인하는 콘텐츠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의 흐름에서 간과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중한 자료들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작업입니다.

이 책은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의 첫 번째 시리즈로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건축사사무소는 1965년 고 장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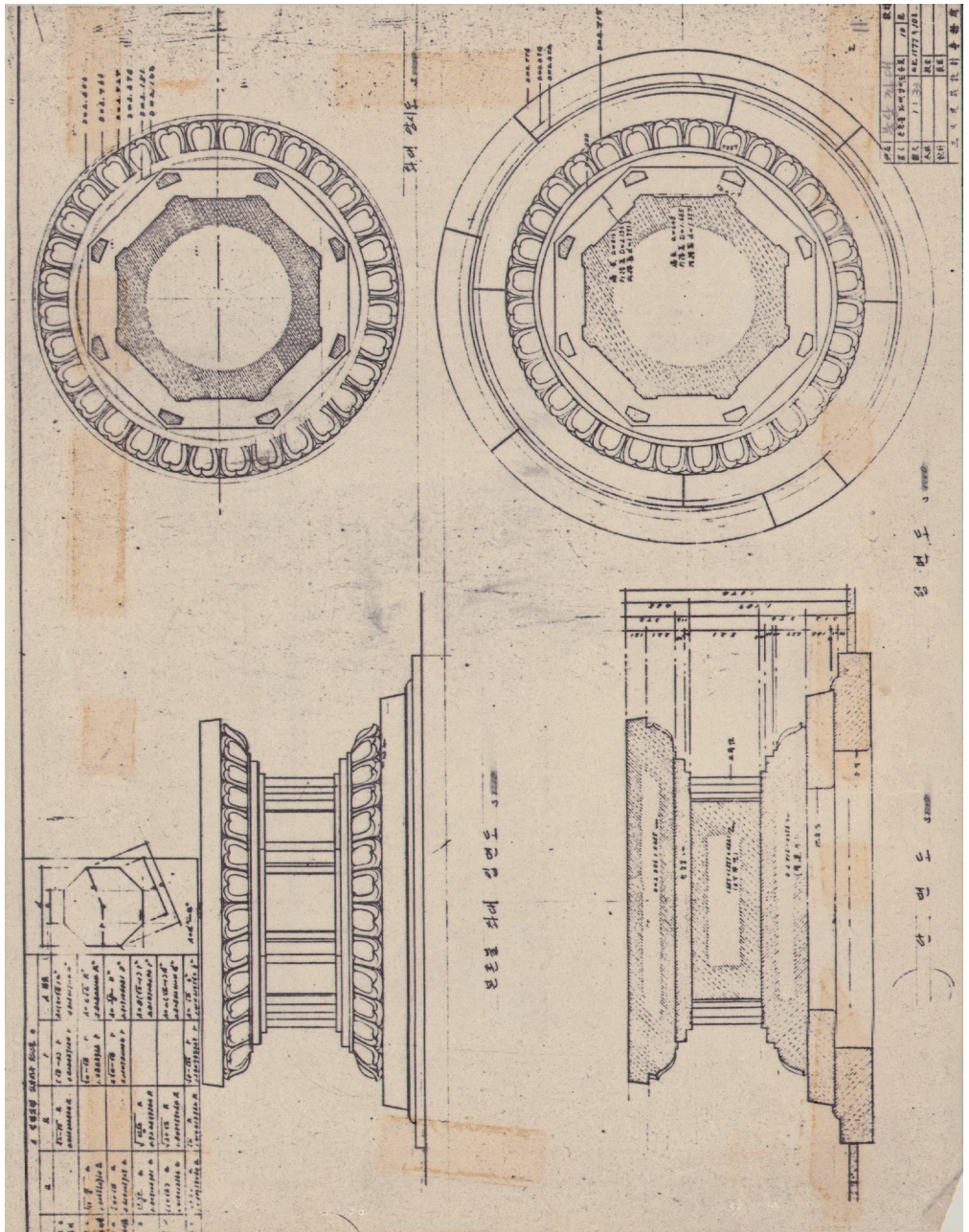
선생님이 개소한 이래 아들 장순용 선생님과 손자 장필구 선생님이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해방이후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 보존 및 복원의 발전을 주도해 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통건축 전문 설계사무소입니다. 2016년 여러 사정에 의해 아쉽게도 설계사무소는 종업^{終業}을 했지만, 소중한 자료는 모두 한양대학교로 이관되어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아카이브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구축에 대해 이 책에서는 6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으로 의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이규철 박사님은 국가한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모범사례로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구축 과정과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님은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를 위탁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어려운 과정과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기술해 주셨습니다. 동양미래대학교 장필구 교수님은 선대로부터 전해 듣고 또한 직접 경험한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역사를 정리해 주셨고, 예시로서 주요한 아카이브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소장님은 지난 50여 년간 사무소를 운영해 오시면서 의미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개해 주셨고, 지난 시절에 대한 회고를 통해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경기대학교 김동욱 교수님은 우리나라 건축문화재의 수리와 복원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역할을 조명해 주셨고,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가 갖는 학술적 가치와 의의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김지홍 박사님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과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보완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문화재 관리에 기여한 삼성건축사사무소 활동의 의의와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해 기술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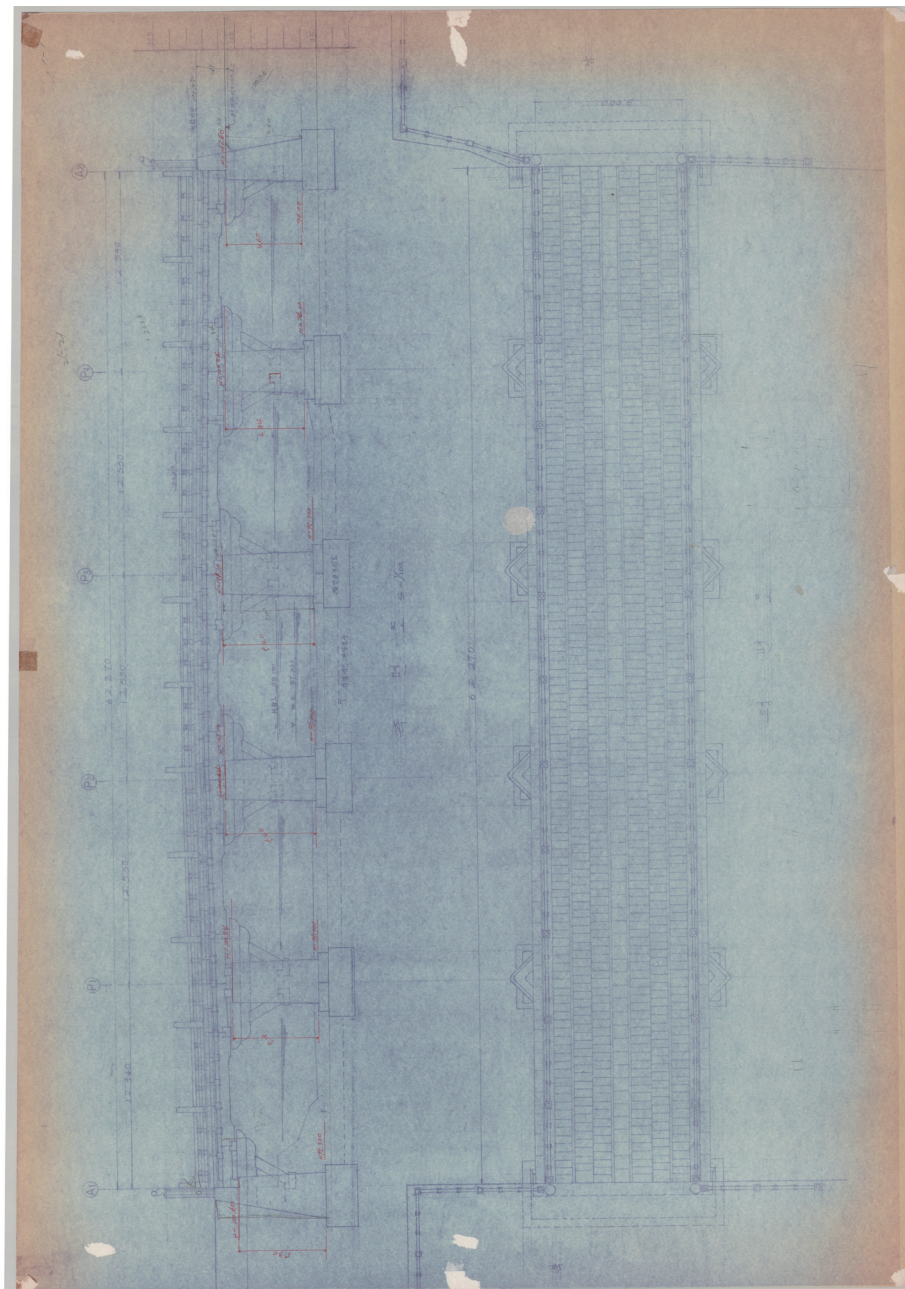
이 책은 삼성건축사사무소의 활동과 주요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축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는 전체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앞으로 나머지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아카이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에 관심을 갖고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에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석굴암 불상 실측도(1977)_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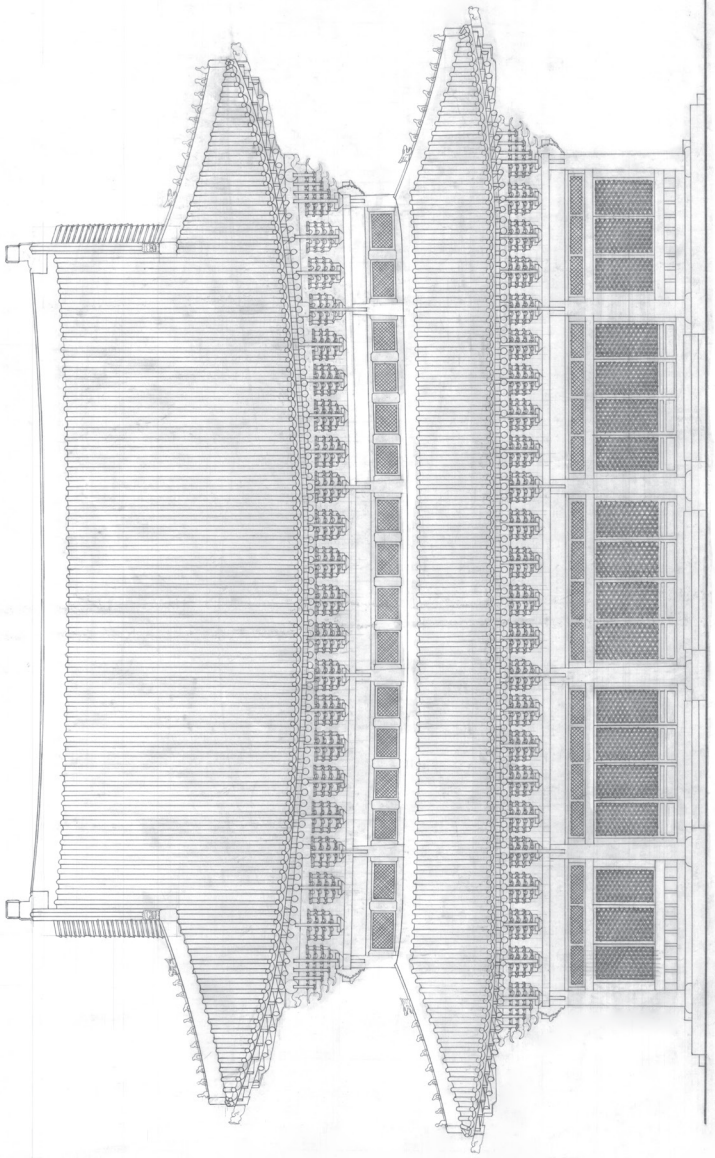
석굴암 불상 실측도(1977)_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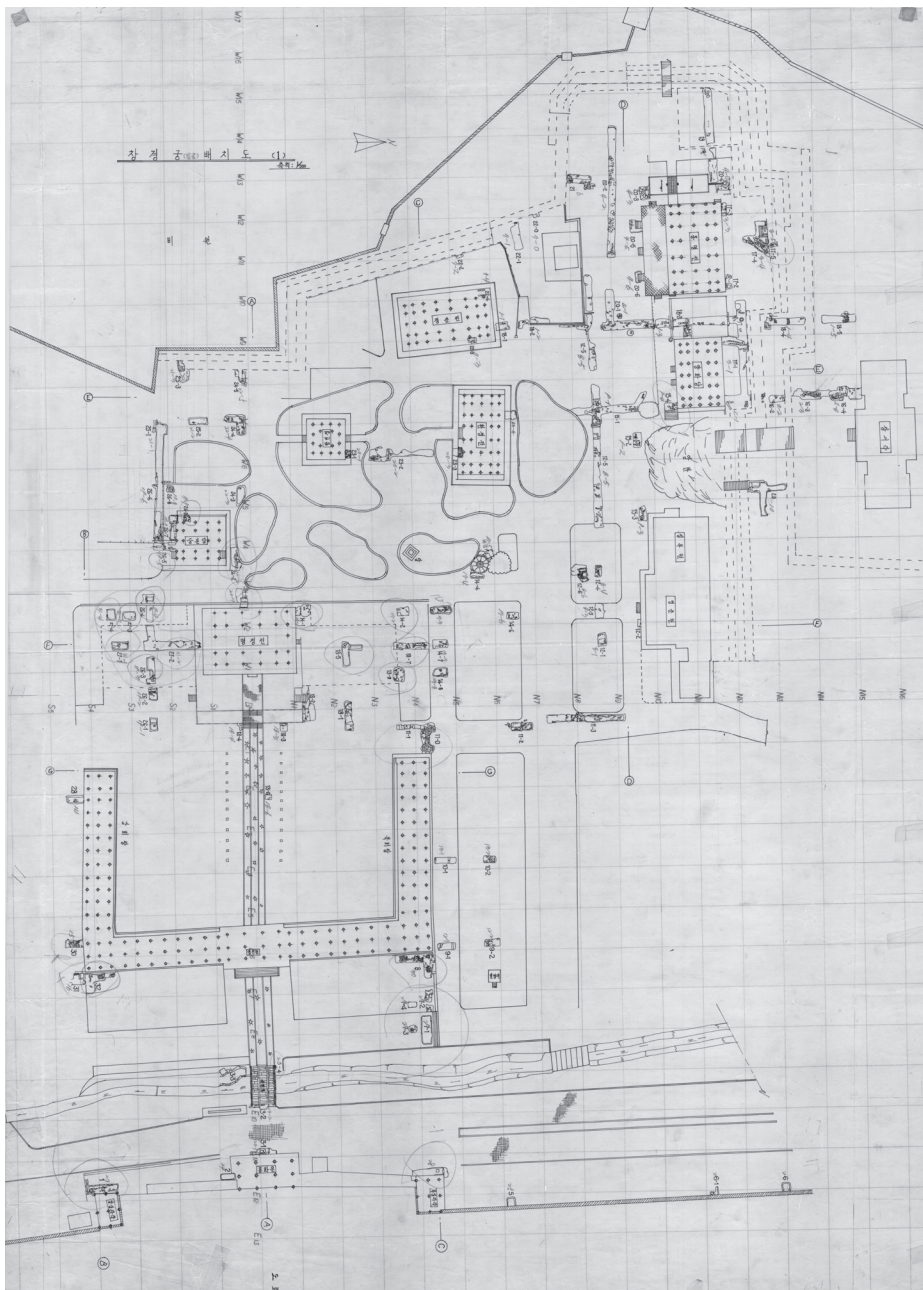
월정교_5

1. 名称: 景福宫 勤政殿
 2. 比例: 1:100
 3. 作者: 朴正基
 4. 日期: 2010.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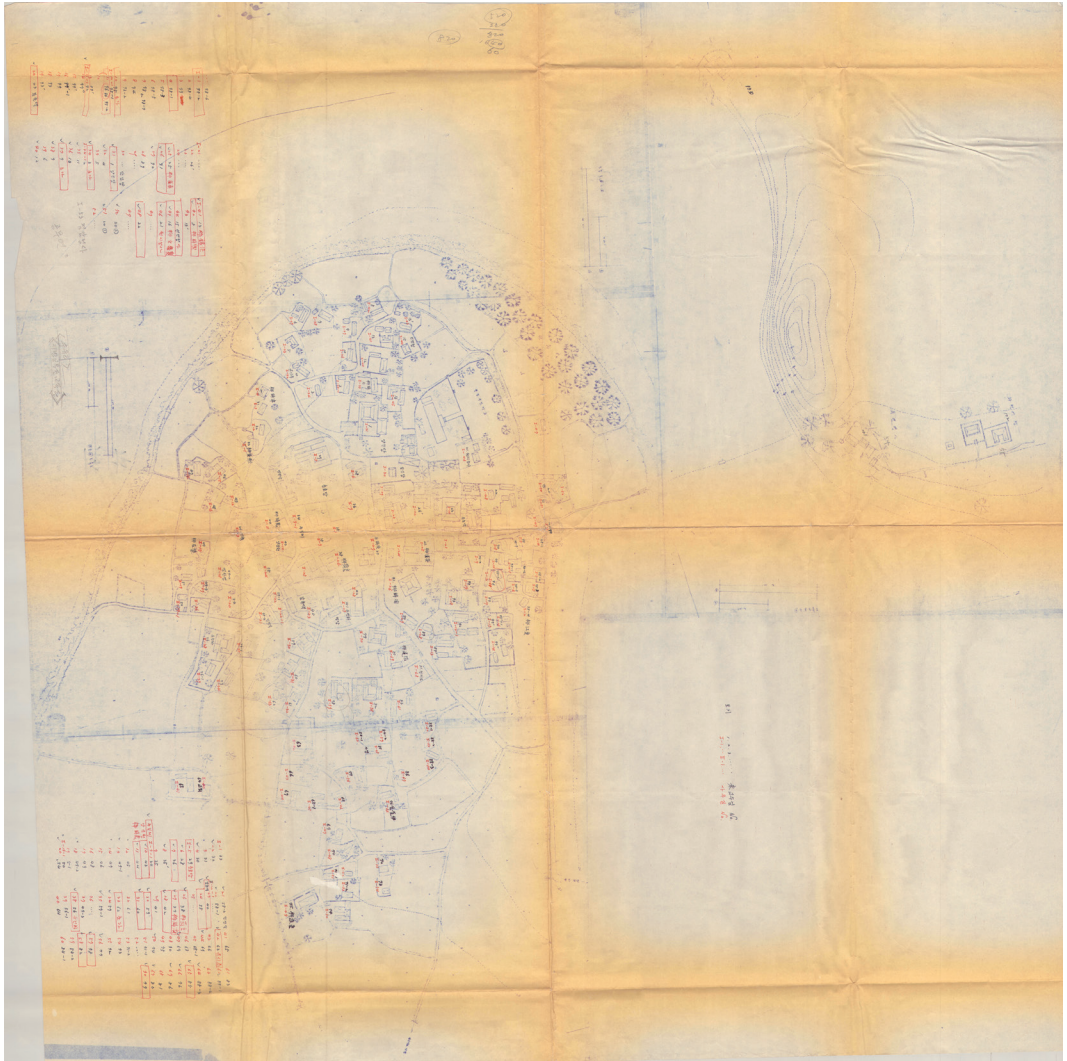
勤政殿 正立面图
 SCALE: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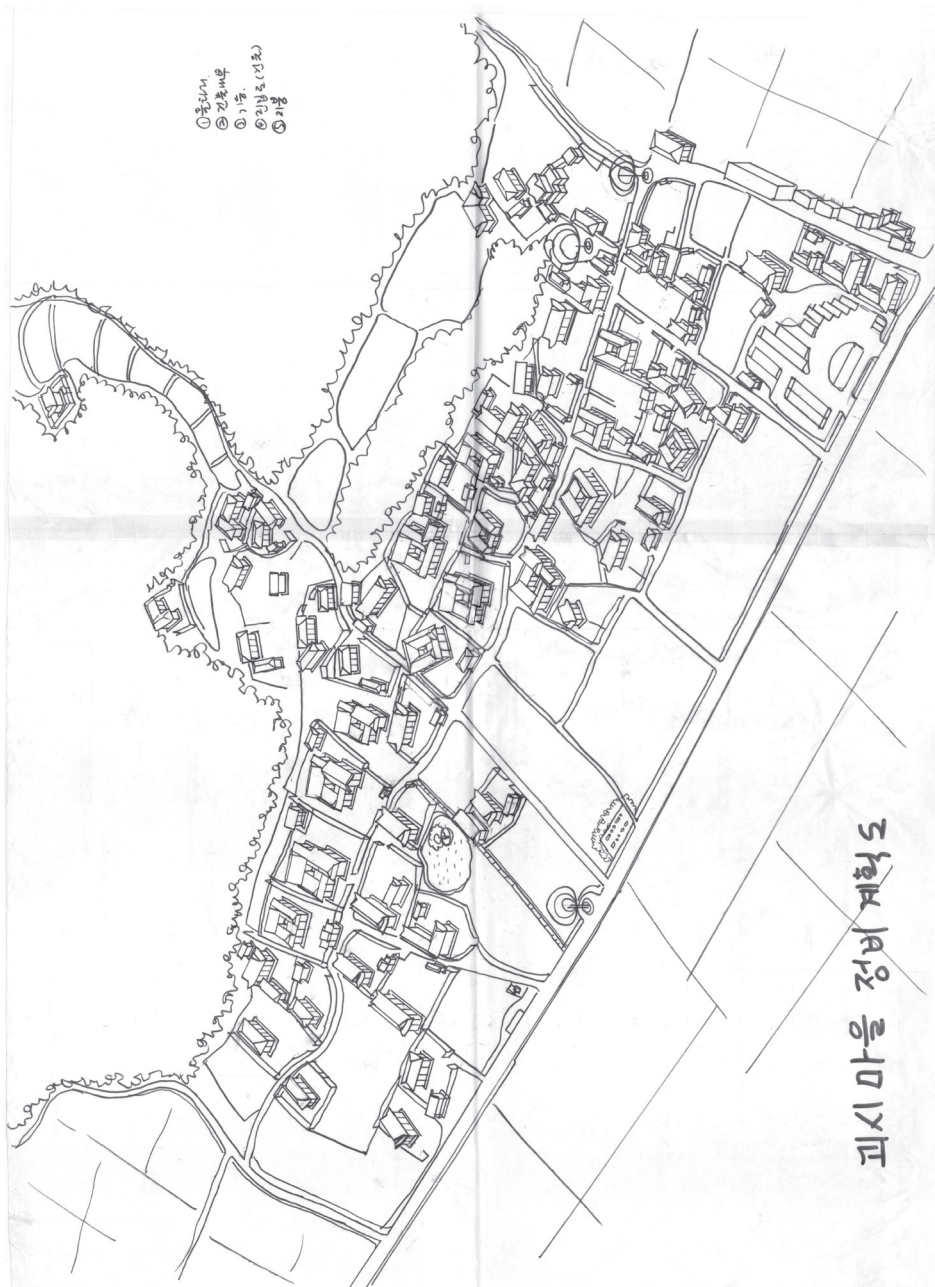
경복궁 근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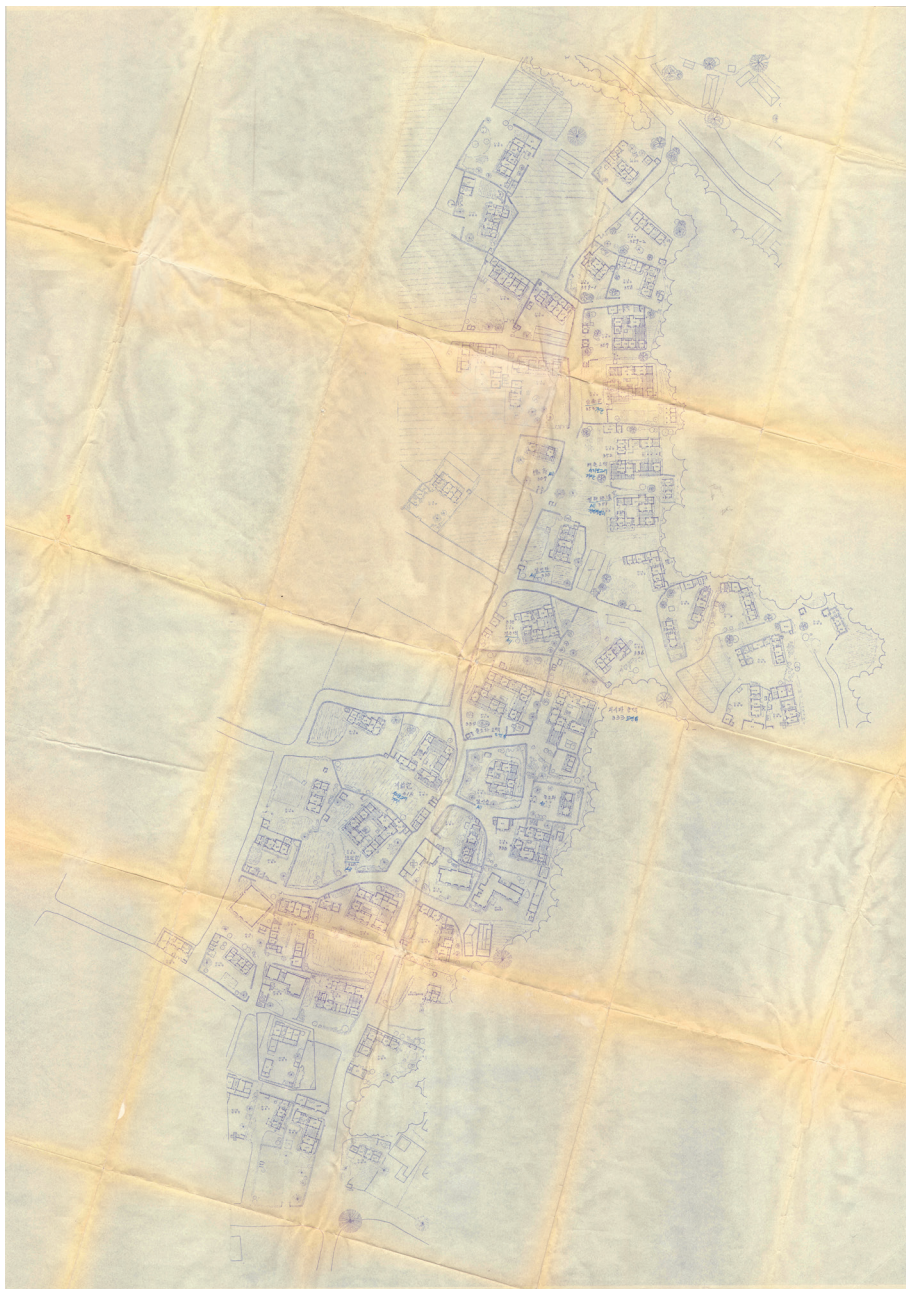


창경궁 배치도(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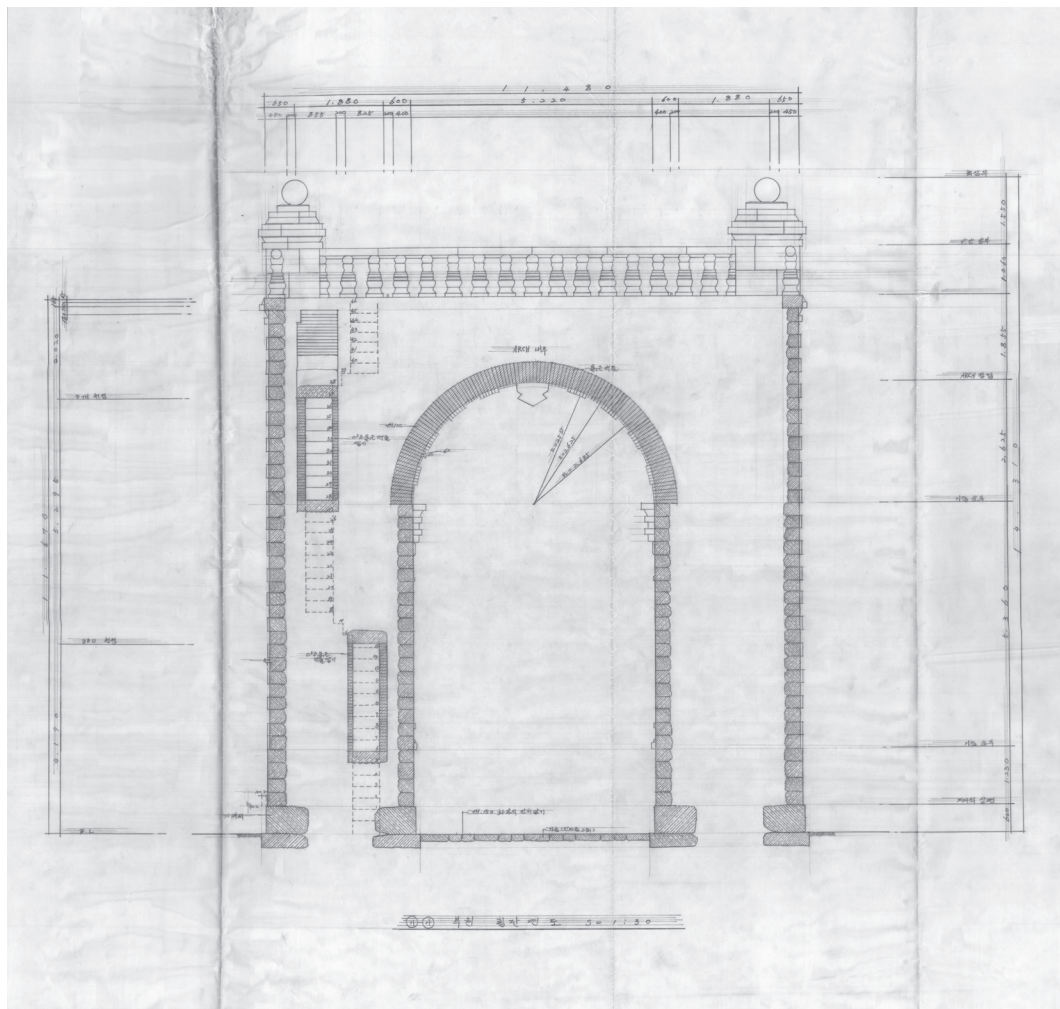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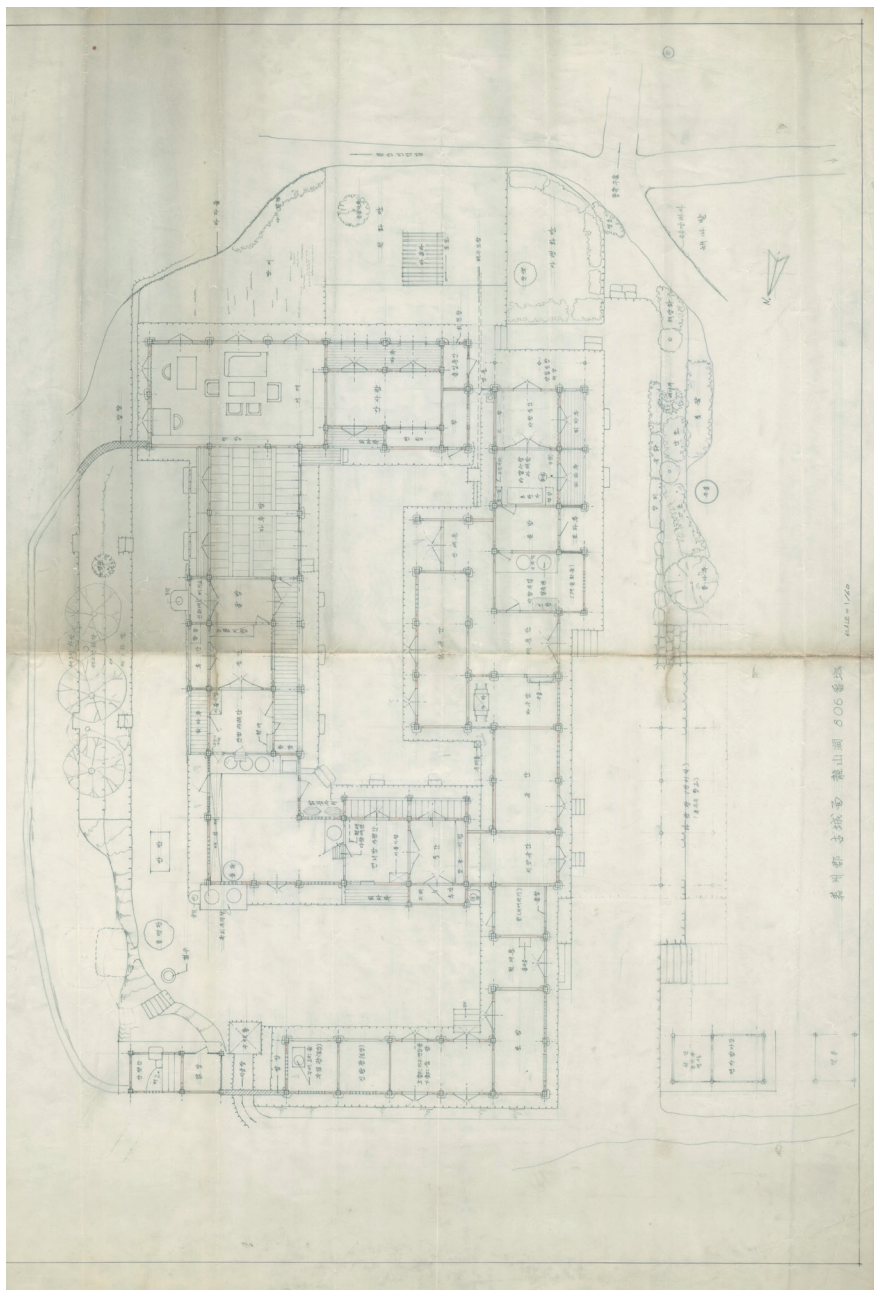
하회마을(1979)_B16-00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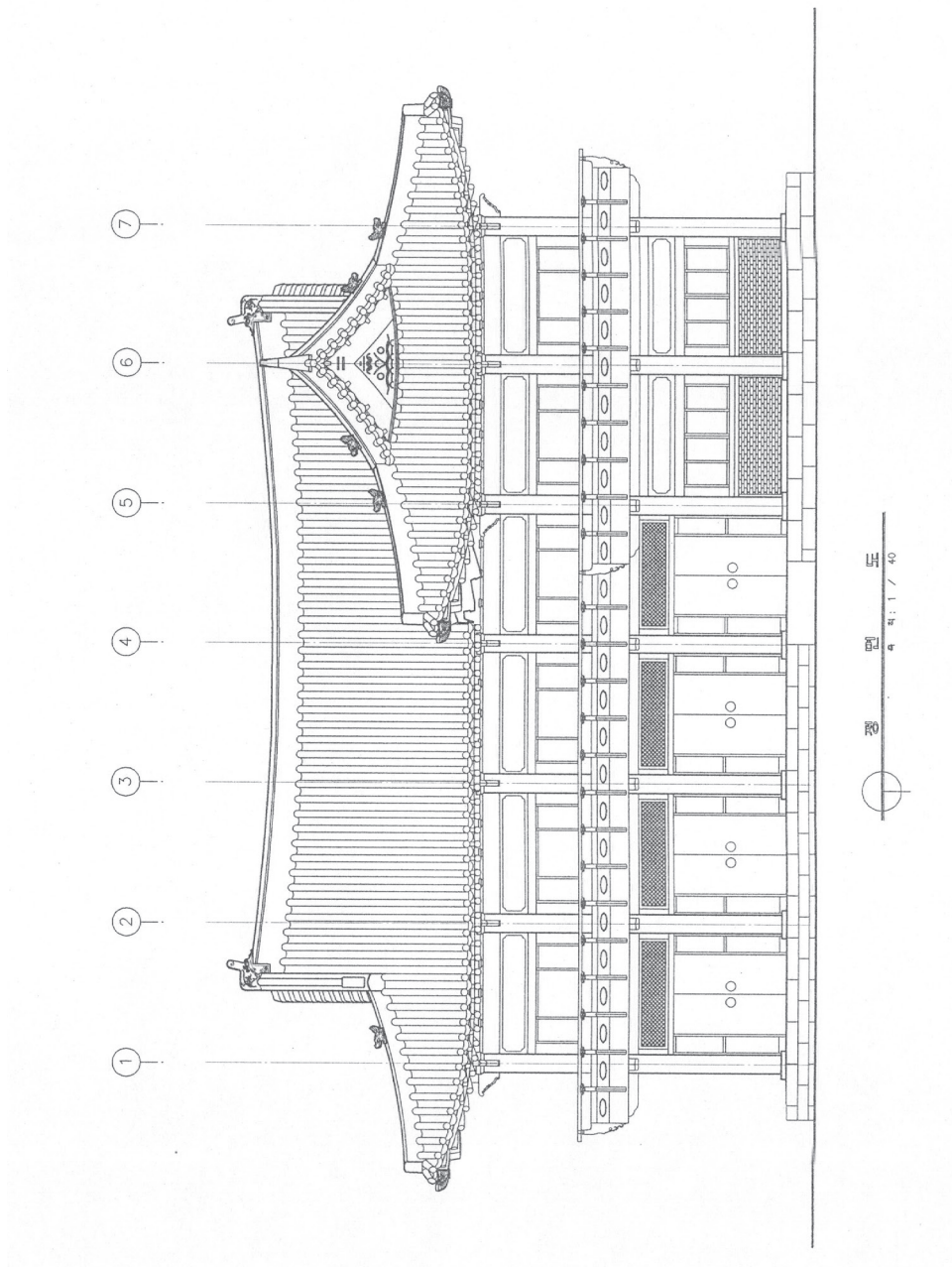


괴시마을(2001)_2





장기인생가_N0102-05067



삼청각(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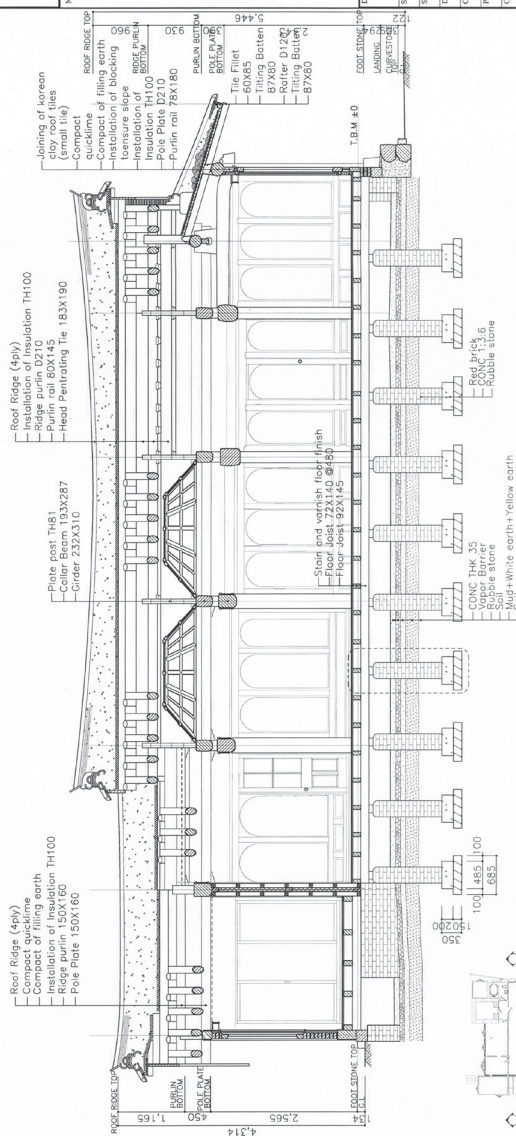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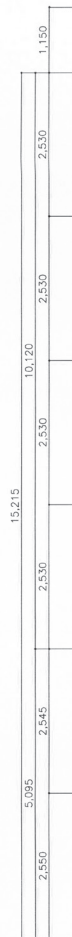


100

WARNING: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U.S. Government. Further reproduction and/or distribution is prohibited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Office of Foreign Buildings Operations, 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20522-3603. Information on the document is not to be stored except with the written approval of the individual whose name appears on the document.

**RESTORATION OF THE
OLD LEGATION HOUS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KOREA**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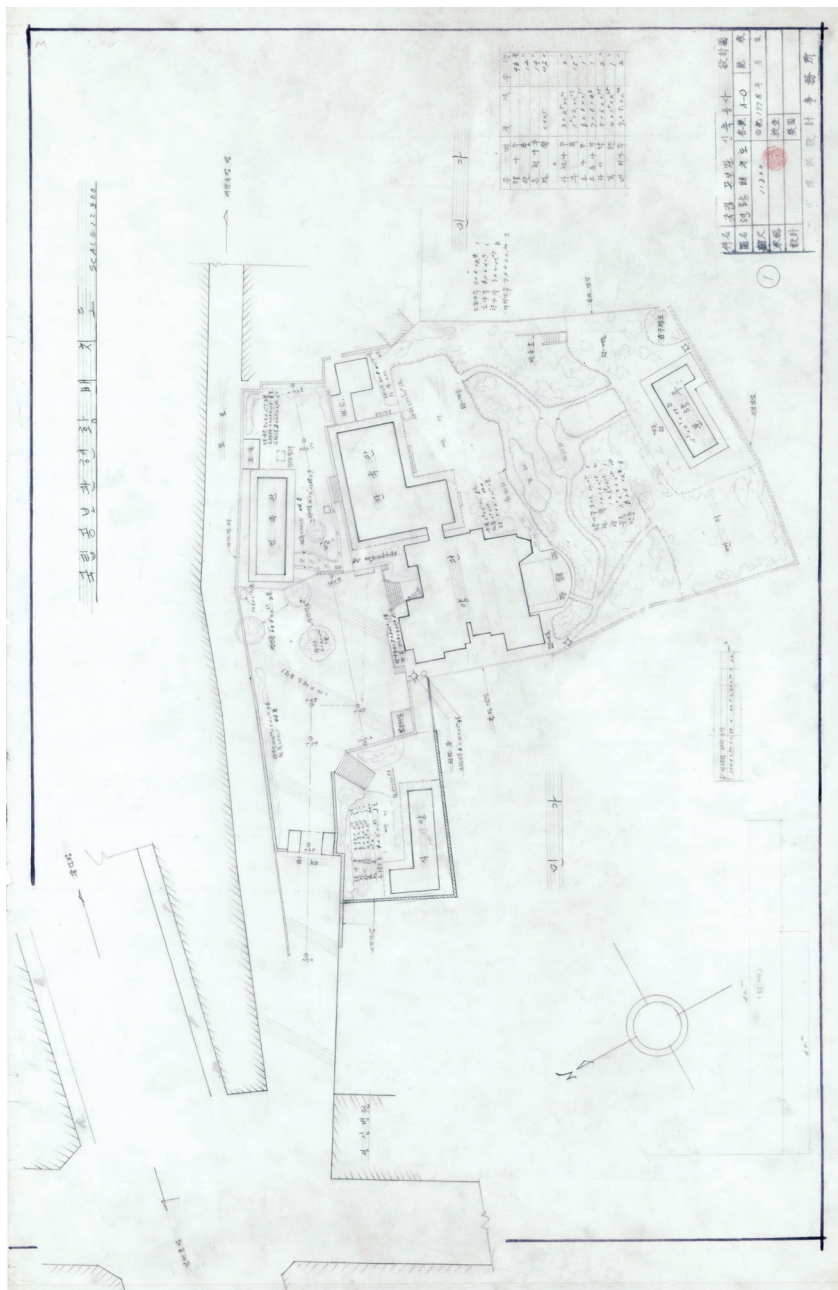
B-B' SECTION CONSERVATION PLAN

0
1
2
3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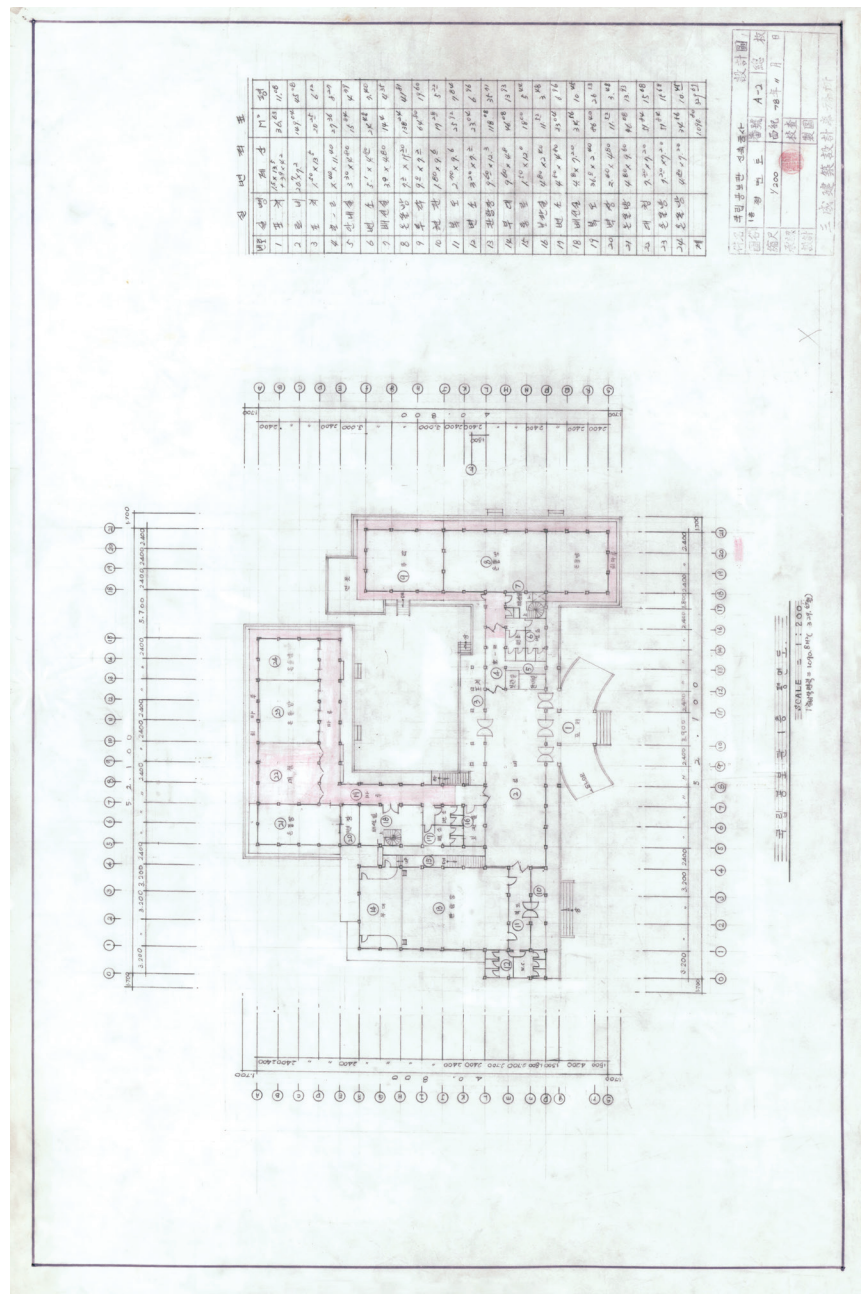


AMSEUNG ARCHITECTS' Co., Ltd.
SINCE 1965
Thungdam-dong 134-20 SamseokBldg.417
Kangnam-gu, Seoul, KOREA 135-100
TEL. (02) 546-1781-2 FAX (02) 546-3785

[illegible]



한국의집(1978)_2



1 국가한옥센터의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머리말	032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과 현황	034
국가한옥센터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	038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구축	044
맺음말	050

2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 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과정과 활용 전략

머리말	056
백남학술정보관 분관 건축학술정보관의 역사	058
기증된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과정	062
건축자료의 활용 전략	074
맺음말	078

3 반세기, 삼성건축사사무소 실측설계의 전개

머리말	082
1960년대 한국건축설계의 시작	086
대형 프로젝트와 설계업무의 체계화	096
정밀실측 업무의 본격화	105
CAD설계시스템의 관문	112
지역제한입찰의 충격과 설계도서DB 구축	116
맺음말	121

4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주요 프로젝트

머리말	126
고대건축의 실증적 탐구	129
궁궐건축의 기법 확인	139
전통 주거공간의 기록	145
해체공사 속 결정적 증거	150
실측조사의 도전	158
맺음말	163

5

1970년대 건축문화재 수리·복원과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설계업무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학술적 가치

머리말	170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의 전개	172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수리·복원 설계 활동	180
1970년대 수리·복원 사업과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가치	185
맺음말	192

6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와 1970년대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에서의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중요성	198
문화재청 기록물과의 관계	199
1970년대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과 삼성건축사사무소	201
맺음말	208

1

국가한옥센터의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이 규 철

머리말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과 현황

국가한옥센터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구축

맺음말

국가한옥센터의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머리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을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되었다. 한옥의 건축을 장려하고 국민들에게 한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옥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한옥에 대한 기초조사와 한옥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외에도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의 가치를 확인하고 알리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옥 관련 자료의 수집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다. 2012년부터 한옥문화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와본^{瓦本} 김동현 선생과 목수^{木書} 신영훈 선생의 건축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김동현 선생의 구술집을 출판하기도 했다.¹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소장님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그동안 보관해 온 자료를 한양대 건축학부에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²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후문도 듣게 되었다. 2016년은 국가한옥센터에서 본격적으로 건축 아카이브의 구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순용 소장님과 한양대 한동수 교수님의 협의를 통해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5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삼성건축사사무소의 건축 기록물은 약 20여만 매의 수량으로 추정되는 대단히 많은 분량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해방이후 한국의 문화재에 대한 실측, 보존, 보수, 정비 등을 수행한 과정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록적 가치도 매우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국가한옥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 아카이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자료의 정리와 디지털화

1 국가한옥센터(2015), 「와본 김동현 구술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 2018년 10월 현재 삼아성건축사사무소의 상호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폐업이 된 것은 아니다. 장순용 선생은 사무실 운영은 하지 않지만, 삼아성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은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작업을 지원하였다. 자료의 보관과 관리를 위임받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서 디지털 건축 아카이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자료는 국가한옥센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구축을 완료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소장님과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한동수 교수님의 소망처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나 기관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필요했다. 또한 국가한옥센터에서는 체계적인 건축 아카이브를 구축한 첫 사례로서 아카이브의 구축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한옥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여러 건축 아카이브의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한옥센터에서 구축하고 있는 한국건축 아카이브의 한 사례로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를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이 기획되었다. 국가한옥센터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이 글과 아카이브의 보관과 관리를 위임받은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님의 글은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어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소장님과 동양미래대학교 장필구 교수님은 장기인, 장순용, 장필구로 이어져 온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연혁과 그동안 수행한 작업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자료의 생산자로서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과 문화재청 김지홍 박사님은 학술적 관점과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아카이브 자료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삼성건축사사무소 자료의 의의를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건축 아카이브의 현황을 통해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 구축의 의의를 살펴보고, 국가한옥센터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건축 아카이브의 구축 과정과 앞으로의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한 구상을 소개하겠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의의를 살펴보겠다.

3 전봉화·우동선·이우종(2004),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0(3), p.99.

4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에서는 건축 기록물의 생산자(Sources of Architectural Records)를 정부와 관련 기관(Government Offices and Other Organizations), 설계 사무소(Architects' Offices), 도급업체(Contractors, Engineers Firms, Engineers) 등으로 구분하였다. Section on Architectural Records(2000), *A Guide to the Archival Care of Architectural Records: 19th-20th Centuries*, 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 pp.21-25.

건축 아카이브의 개념과 현황

건축 아카이브의 대상과 역할

건축 아카이브 *architectural archives*는 건축 활동과 관련하여 그 전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기록물, 그리고 그러한 기록물들을 조직적으로 수집, 정리한 집적체를 총칭한다.³ 건축 아카이브가 이처럼 다양한 기록물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 등의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획 단계에서 공간에 대한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지선정과 설계·시공·운영 방안 등을 결정하고, 설계·시공·감리·관리입주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건축물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주, 투자자, 설계자(건축, 구조, 시공자(건축, 전기, 설비, 토목, 인테리어 등, 감리자, 운영자, 그리고 인허가와 같은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분야의 주체가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관하게 된다.⁴

이와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축물이 겪는 변화도 다양하다. 시대적, 사회적, 지역적 변화에 따라 각종 이벤트와 사건·사고가 건축물 안팎에서 일어나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전용되기도 한다. 보다 적극적인 변화로서 증축, 개축, 이축 등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거나 건축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기능과 의미의 터전으로 탈바꿈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와 관련된 주체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사용자, 지역 주민, 기록가, 수집가, 언론 등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생산되는 건축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모두 건축 아카이브의 대상이 된다. 건축 아카이브는 해당 건축물의 과거와 현재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용을 갖는다.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에서의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공간구성, 형태, 재료, 시공 방법, 이용현황 등이 현재의 모습으로 구현되어 온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선택되지 못한 여러 대안과 방법론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은 물론이고, 건축 교육의 훌륭한 교재로서 건축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건축적 대안이나 상상력을 기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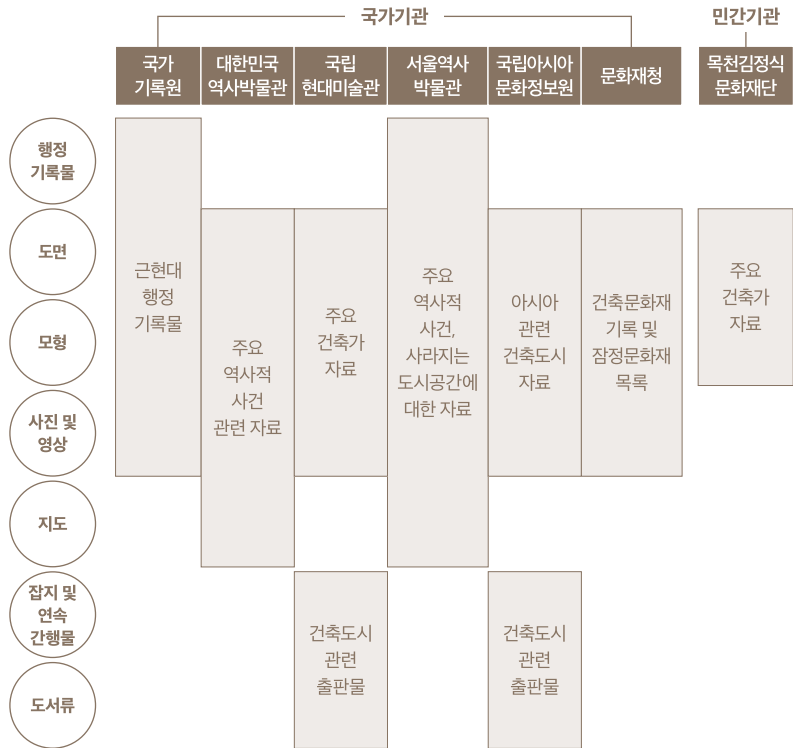
5 프랑스의 르 꼬르뷔지에 재단 (Fondation Le Corbusier)과 일본의 타케나가 도쿠 박물관(竹中大工道具館) 등이 대표적이다.

6 국내외의 건축 아카이브 사례는 다음의 연구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조준배·엄운진(2009),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45-52; 김상호 외(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59-63.

7 SAR과 ADAG는 건축 기록물의 아카이브 방법론과 건축 도면의 기술 방법론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ICAM은 2년마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정기간행물도 발간하고 있다. Section on Architectural Records(2000), *A Guide to the Archival Care of Architectural Records: 19th-20th Centuries*, 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 Architectural Drawings Advisory Group(1994), *A Guide to the Description of Architectural Drawings*, G. K. Hall & Company; ICAM, *icam print*, www.icam-web.org/icam_print.php, 2018.8.25.

국내외 건축 아카이브 동향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유명 건축가나 건축 관련 회사를 중심으로 개별 아카이브를 구축해 왔고,⁵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건축박물관 National Building Museum, 프랑스의 20세기 건축기록물 보존소 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e siècle, 네덜란드 건축 연구소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현재는 Het Nieuwe Instituut로 개편 등과 같이 국가에서 설립한 건축 관련 연구소나 박물관에서 건축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⁶ ICA 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의 건축 기록 분과 Section on Architectural Records, SAR, 워싱턴 국립미술관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의 건축 도면 위원회 Architectural Drawings Advisory Group, ADAG, 국제 건축박물관 연합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rchitectural Museums, ICAM 등은 건축 아카이브의 기술과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기도 한다.⁷



국내 도시건축 아카이브 현황

출처 : 김상호 외(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59

8 전봉희·주상훈·최순섭(2008),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학교 편』, 국가기록원; 전봉희·주상훈·장필구(2009),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I-고적·박람회·박물관·시험소·관사·신사·군현소 편』, 국가기록원; 전봉희·주상훈·김수범(2010),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II-법원·형무소 편』, 국가기록원; 전봉희 외(2010),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V-의료·세관시설 편』, 국가기록원; 전봉희 외(2011),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조선총독부청사(남산)·소속기관·관측소 편』, 국가기록원; 전봉희 외(2012),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I-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치안시설·전매시설 편』, 국가기록원; 전봉희 외(2014),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II-각급 기관 및 지방청사 편』, 국가기록원; 이강근·홍승재(2009),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근·홍승재(2009),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봉희·서영희·이규철(2012),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근대 측량도와 건축도 (1861~191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박상규 외(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 왕실 건축 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규 외(2014), 『덕수궁미술관설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9 목천 김정식 문화재단의 아카이브 소개 웹페이지 참조. 재단법인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아카이브 소개』, <http://www.mokchon-kimjungsik.org/common/people/archive.php>, 2018.8.19.

10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 웹페이지 참조.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https://www.mmca.go.kr/research/archiveSearch-List.do>, 2018.8.19.

11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김종업 건축박물관 소개 웹페이지 참조. 안양문화예술재단, 『김종업건축박물관』, http://www.ayac.or.kr/museum/kimchungup/kim-chungup_01.asp, 2018.12.20.

국내에서의 건축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사적 기록물 중에서 건축과 관련된 자료가 함께 포함된 수준이었다. 건축 아카이브로 별도의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역사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문헌, 사진, 건축도면, 지도 등에 대해서는 건축 아카이브로서 해제집이 발간되기도 했다.⁸

본격적인 건축 아카이브는 2010년 목천 김정식 문화재단에서 ‘목천 건축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시작되었고, 건축가의 구술집 발간과 아카이브 전시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⁹ 2013년 이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건축가 정기용, 이타미준, 김태수, 김종성 등의 건축가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전시해 오고 있다. 기존의 미술 아카이브에 건축 아카이브를 특수자료 컬렉션으로 추가하여 넓은 의미의 미술 작품으로서 건축 아카이브를 다루는 것이다.¹⁰ 건축가 아카이브로서 2014년에 개관한 김종업건축박물관은 김종업이 설계한 (주)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하여 김종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김종업 관련 기관과 인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¹¹ 2015년에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확대해 가는 사례이다.¹²

도시건축박물관의 건축 아카이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건축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¹³ 2010년대에서야 몇몇 건축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있다. 해외의 건축 아카이브와 비교하면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수준이다. 아직은 공공과 민간에서 개별 건축가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아카이브의 구축 방법론을 모색하고 확대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아카이브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건축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건축박물관에서 국가 차원의 건축 아카이브 기능을 구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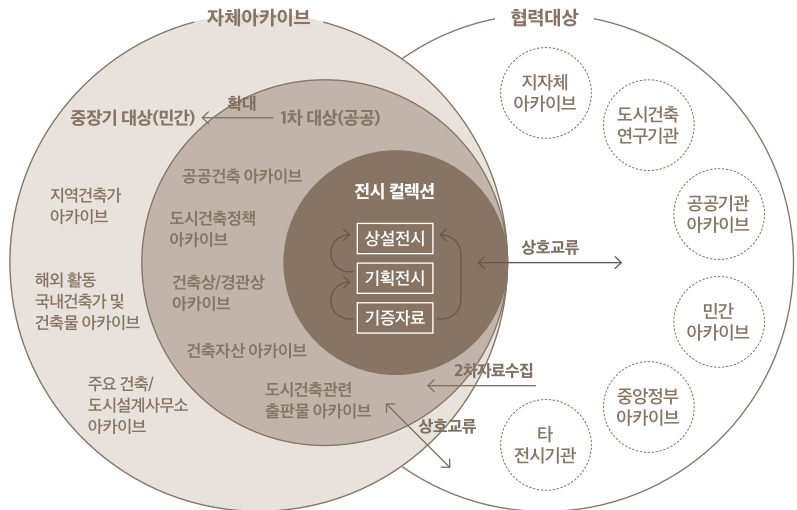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건축박물관의 추진현황과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도시건축박물관을 포함한 5개의 박물관 계획이 반영되었고, 2011년 국립박물관단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어 2012년에는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의 차관급 협약서가 체결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건립추진을 위해 도시건축박물관을 포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홈페이지 참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http://archive.acc.go.kr>, 2018.12.20.

13 전봉화·우동선·이우중(2004),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는 문집 계획』, v.20(3) 등.

14 도시건축박물관의 경과와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http://www.naacc.go.kr/sub.do>, 2018.8.20.; 김상호 외(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7-69.

함한 국립박물관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2015년,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의 설계 공모가 시행되어 당선작이 확정되었으며 2016년, 2017년 이후 콘텐츠를 확보하여 2023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아카이브와 전시를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고, 아카이브의 목표는 ‘한국 근현대 도시건축 국가자산 구축’으로 설정되었다. 국가적인 건축도시 아카이브로서 공공과 민간의 주요한 건축 기록물을 수집하고, 건축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 아카이브의 중심 허브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¹⁴



도시건축박물관 아카이브 기본구상

출처 : 김상호 외(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61

국가한옥센터의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¹⁵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아카이브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2007년 연구소 설립과 함께 건축도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²⁰⁰⁷에서는 역사적 기록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등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건축도시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해외의 건축도시 기록물의 수집, 관리, 전시, 연구 현황을 통해 향후 한국의 도시 건축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⁶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²⁰⁰⁸에서는 건축 아카이브를 도시의 범위로 확대한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¹⁷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²⁰⁰⁹에서는 건축가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김종업과 이손건축을 대상으로 건축가 아카이브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¹⁸ 이 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김종업 아카이브는 2014년에 설립된 김종업박물관 아카이브의 기초가 되었다.¹⁹

¹⁵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는 국가한옥센터의 주요 대상이지만,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¹⁶ 유광홍·조상규·임운진(2007),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¹⁷ 유광홍 외(2008),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¹⁸ 조준배·임운진(2009),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¹⁹ 김종업박물관은 2016년 8월에 김종업건축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²⁰ 국가한옥센터는 2010년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대통령 보고의 조치로서 2011년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진흥 정책과 한옥 법률 제정을 지원하여, 2014년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한 법정 센터로 지정되었다.

국가한옥센터의 한옥 콘텐츠 구축 사업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아카이브 연구는 2011년에 설립된 국가한옥센터의 한옥 콘텐츠 개발 연구로 이어져 지속되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지식 체계화를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산업을 지원하며,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법정 센터이다.²⁰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의 보전과 한옥문화 육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옥 관련 콘텐츠를 수집하였고, 이들 자료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 콘텐츠 구축 사업’으로 김동현 선생님, 신영훈 선생님, 장기인 선생님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한옥 콘텐츠로 구축된 자료는 김동현 선생님의 자료이다. 김동현 선생님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 등을 지내시면서 주요 문화재 건축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셨다. 이중 슬라이드 사진과 각종 문헌자료 등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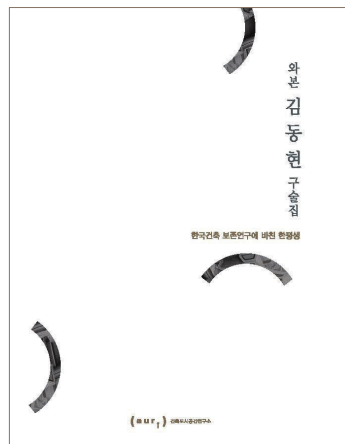
21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김동욱, 이왕기, 이강근, 김철민, 김기주, 이경미, 최지혁 등이 김동현 선생님과 8번에 걸쳐 대담을 하고 녹취하였다.

22 국가한옥센터(2015), 「와본 김동현 구술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분의 자료를 특임교수로 재직하였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와 김성우 교수 연구실에 연구자료로 기증하였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디지털화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2년에 국가한옥센터의 예산 지원으로 김성우 교수 연구실에서 위탁용역을 수행하여 슬라이드 23,200여 건, 문헌자료 5,200여 건을 스캔하여 목록화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김동현 선생님의 구술집 편찬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7년부터 몇몇 뜻있는 건축역사 연구자들은 김동현 선생님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대담의 형식으로 녹취해 오고 있었다.²¹ 국가한옥센터에서는 2012년에 김동현 선생님의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면서 구술 녹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김동현 선생님과 녹취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동의를 얻어 구술집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의 녹취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동현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와본 김동현 구술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²²을 발간하였다.

김동현 선생님에 이어 국가한옥센터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신영훈 선생님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다. 신영훈 선생님은 건축문화재의 수리·보존·복원 등의 공사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한옥을 설계하고 시공하며 대목으로 활동하셨고, 한국건축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한옥의 보급에도 앞장선 학자이다.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만큼 소장하고 계신 자료도 방대했는데, 2001년 사위 김도경 교수와 장녀 신지용 선생과 함께 강원도 홍천에 지용한옥학교를 설립하고 평생 수집하고 생산한 자료를 교육용으로 소장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국가한옥센터에서는 신영훈 선생님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한옥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에 강원대학교 김도경 교수 연구실에 위탁용역을 발주하여, 슬라이드 사진, 독서카드, 문서자료, 음성파일 등 89,000여 건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와본 김동현 구술집」 표지

출처 : 국가한옥센터(2015), 「와본 김동현 구술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의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한옥센터에서 추진한 ‘한옥 콘텐츠 구축 사업’을 통해 김동현, 신영훈,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국가한옥센터는 넓은 범위의 한옥에 대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육과 홍보에 활용하고자 기초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해 왔는데, 김동현, 신영훈, 삼성건축사사무소 등의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국가한옥센터의 아카이브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김동현, 신영훈,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자료를 체계적인 아카이브로 구축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까지의 ‘한옥 콘텐츠 구축 사업’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이들 자료를 목록화하였다면, 2017년 이후의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에서는 아카이브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별 아카이브에 적합한 메타데이터의 기술 항목 규정, 목록의 데이터와 실물 자료를 연동하기 위한 관리체계 정비, 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이용 협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국가한옥센터에서는 개별 아카이브를 지원하고, 개별 아카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한옥센터 한국건축 아카이브’를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아카이브의 지원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 [저작권 이용 협의] -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구축]-[아카이브 단행본 발간] 등의 순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삼성건축사사무소」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기획된 첫 번째 아카이브 단행본으로, 향후 신영훈 아카이브, 김동현 아카이브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영훈 아카이브는 2013년과 2014년에 디지털화와 목록 구축이 이루어졌으나, 자료의 분류 체계와 기술 요소 등이 마련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구축의 사례를 참고하여 2017년에는 신영훈 아카이브의 고도화 용역을 진행하였다. 소장 자료의 형식에 따라 도서류, 도면류, 문서류, 시청각류, 사진류, 기타 등으로 자료를 구분하고, 개별 자료를 생산년도, 문자, 지역, 자료유형, 자료범주 등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자료를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기술 요소로서 식별, 배경, 내용구조, 열람이용조건, 연관자료, 기술통제, 물리적 기술 등을 도출하였다.

신영훈 아카이브 분류체계

명칭	일련 번호	생산 년도	문자		지역		자료유형		자료범주		
			코드	언어	코드	지역	코드	자료	코드	내용	
KAAS			K	한국어	KR	1	서울 경기	B	도서류	01	고도서
		C	한자	2		강원	02			논문	
		C	중국어	3		충청	03			단행본	
		J	일본어	4		경상	04			보고서	
		E	영어	5		전라	05			전집	
		F	기타	6		제주	06			정기간행물	
			7	황해		07	원고				
			8	평안		08	기타				
			9	함경		D	도면류	11	원도면		
			0	기타				12	야장		
				CN	-	중국	13	사본			
				JP	-	일본	14	청사진			
				MY	-	말레이시아	15	현장스케치			
				US	-	미국	16	기타			
				UK	-	영국	F	문서류	21	고문서	
				FR	-	프랑스			22	공문	
				NE	-	네팔			23	독서카드	
									23	메모	
									24	수첩	
									25	회의록	
									26	기타	
				상기의 국가 이외도 영문 2자리 약자코드 사용			AV	시청각류		영상	
										음성	
							P	사진류		사진	
										필름	
							E	기타		건축용품	
										생활용품	
										기타	

출처 : 한국건축역사학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브 구축-(구)해라시아문화연구소 건축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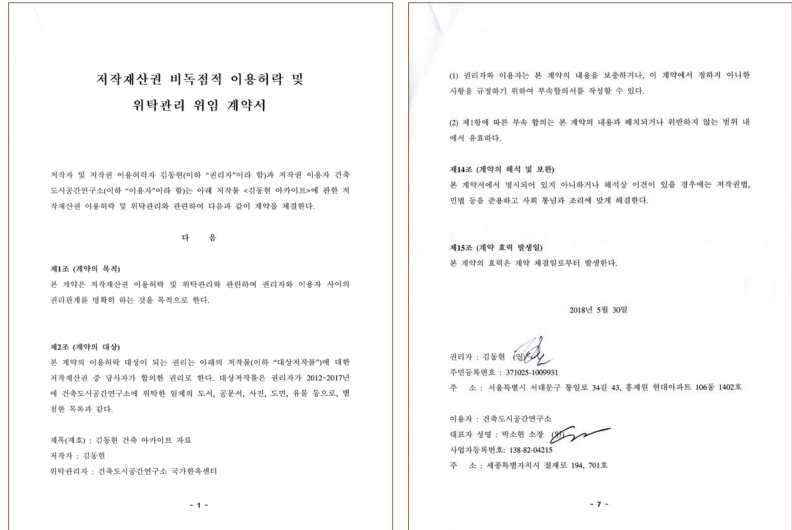
신영훈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영역	기술요소	내용
식별	관리번호	향후 전체적 체제에 따른 관리번호 정리 필요
	분류코드	분류체계에 따라 규정된 코드 입력
	명칭(자료명)	각 자료의 명칭
	일자	생산일자, 출판일자
배경	생산자	작성자, 출판사
	기록물이력	생산자가 원소유자에게 증여한 과정이나 이유 기술, 구입, 기증
	원소유자	신영훈
내용구조	내용	예) 반구대 암각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작성된 모본
	보존기간	영구
	제작형식	필기, 인쇄, 필사, 복사, 제본, 탁본, 납본, 스케치, 스크랩, 녹음, 촬영
열람이용조건	열람조건	원자료, 디지털 자료 모두 이용 가능
	재생산조건	교육목적: 저작 및 원소유자 명기, 출판, 상용목적은 저작권 소유자와 합의 필요
	보관위치	지용한옥학교
	디지털자료위치	웹사이트 구성이후 명시
연관자료	컬렉션 명칭	한글(한문) 목수 신영훈 소장자료
		자료영문 Korea Architectural Archives of Shinyounghoon
	사본존재	없음
기술통제	아키비스트주기	-
	규칙과 협약	저작권 소유자 : 신영훈
	아카이브스 작성	년 월 일
물리적 기술	크기	가로x세로x두께(mm) 또는 상용크기 A4, A3... 등
	수량	우리나라 단위(개, 장, 책, 권) 사용
	재료	비디오 테이프, 디지털영상, 마그네틱 테이프, 음성디지털, 포지티브 필름, 네거티브 필름, 가족, 종이(트레이싱), 나무
	특기사항	보관상태, 훼손정도, 주석, 메모 등의 상태 기술
비고	주기사항 및 생산이력, 키워드(해라시아, 민학회, 목수한옥연구소, 상근전문의원 시절 등 - 신영훈의 이력사항)	

출처 : 한국건축역사학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브 구축-(구)해라시아문화연구소 건축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45

23 김동현 선생님의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한옥센터에서 저작권의 이용과 함께 자료의 위탁 관리를 위임받았다.

2017년부터는 국가한옥센터에서 지원한 개별 아카이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아카이브의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 삼성건축사사무소와 「저작권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협약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8년 5월에는 김동현 선생님과 「저작권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및 위탁관리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²³ 신영훈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신영훈 선생님의 건강 문제로 장녀인 신지용 선생과 이용 협약을 추진중이다.



김동현 아카이브의 「저작권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및 위탁관리 위임 계약서」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소장 자료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구축

삼성건축사사무소는 1965년 고 장기인 선생이 개소한 이래 아들 장순용 선생과 손자 장필구 선생까지 3대에 걸쳐 지속된 전통건축 분야 전문 설계사무소이다. 60여 년간 문화재를 비롯한 전통건축의 보수, 보존, 복원, 신축 등 수많은 건축 작품에 참여하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경험과 명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6년에 여러 사정에 의해 휴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자료의 처분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다행히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한동수 교수 연구실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자료를 보관하기로 하였고, 2016년 10월에 임시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건축학부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다.

당시에 국가한옥센터는 2012년부터 ‘한옥 콘텐츠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다행히도 2016년에는 그동안의 김동현 선생님과 신영훈 선생님의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분류체계

명칭	일련번호		생산 년도	언어		지역		자료유형		건축유형		공사유형	
	사업별	세부항목		코드	구분	코드	지역	코드	자료	코드	유형	코드	성격
K A A C	00001	0000-0000	1959	K	한국어	S	1 서울경기	남한	B	문헌	H	주택	S 실측
	00002	0000-0000	1967	J	일본어		2 강원		D	도면	P	궁궐	R 보수
	00003	0000-0000	1972	C	중국어		3 충청		F	문서	C	성곽	C 복원
			1984	E	영어		4 경상		P	사진	T	능묘	N 신축
			1992	F	기타		5 전라		R	유물	R	종교	P 단청
			2002				6 제주		E	기타	G	관아	O 기타
						N	7 황해	북한			A	단묘	
							8 평안				C	유교	
							9 함경				L	원림	
						F	외국				B	교량	
											E	기타	

*문헌 : 서적 및 출판 관련 자료 포함 / *도면 : 청사진, 양피지, 켄트지, 트레이싱지에 그려진 도면, 야장, 스케치 등 포함 / *문서 : 공문서, 회의록 등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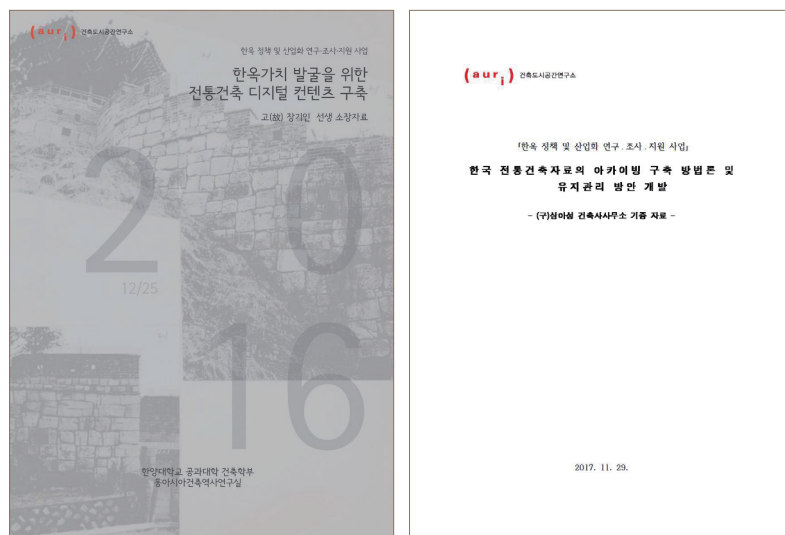
*사진 : 필름, 인화된 것 포함 / *종교 : 불교, 도교, 민간신앙, 탑 등 포함 / *단묘 : 사당, 종묘, 사직, 무묘, 비각 등 포함 / *유교 : 문묘, 서원, 향교 포함 /

*보수 : 수선, 수리, 정비, 이축 등 포함 / *실측 : 정밀, 일반 포함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2016), 『한옥가치 발굴을 위한 전통건축 디지털 콘텐츠 구축: 고 장기인 선생 소장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139

자료에 대한 콘텐츠 구축 사업이 일단락되고, 후속 콘텐츠를 탐색하고 있었다. 2016년 하반기에 서둘러 자료의 소장자인 장순용 소장님과 그의 아들 장필구 교수님, 그리고 자료의 위탁·관리를 맡은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님과 협의하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로 옮겨지는 자료 중 주요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와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가한옥센터의 ‘한옥 콘텐츠 구축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 연구실에서 용역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디지털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삼성건축사사무소, 위탁관리 기관이자 용역 수행자인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 연구실,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한옥센터가 함께 공유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개월간 수원화성, 안동수물지구, 경주 등과 관련된 251개 프로젝트, 8,500여 건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목록을 구축하였다. 특히 한동수 교수 연구실에서는 삼성건축사사무소 자료의 메타데이터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일련번호, 생산년도, 언어, 지역, 자료유형, 건축유형, 공사유형 등을 분류하여 목록화하였다.

국가한옥센터는 2017년부터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디지털화와 목록화 작업을 진행해 온 김동현 아카이브, 신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구축 용역 보고서(좌: 2016년, 우: 2017년)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소장 자료

영혼 아카이브,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 연구실에서 2016년에 이어 주요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2016년에 검토한 메타데이터 분류 체계를 보완하여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정보를 분류 체계에 맞추어 입력하였다. 2017년에는 3,500여 건의 추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2016년의 8,500여건과 함께 총 12,000여 건의 자료를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로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전체 자료의 수량으로 추정되는 20만 건의 6%에 불과한 시작 단계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

영역	기술요소	내용
식별	관리번호	KAAC 01084
	분류코드	KAAC 01084-1972KS1DCS-01084
	표제(부제)	수원화성실측도면(없음)
	일자	1972년 8월 20일(생산일자·출판일자·배포일자)
배경	발주자명	문화재청
	생산자명	삼성건축사사무소
	생산기간	-
	소요경비	-
	기록물 이력	(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한양대 기증자료
	원소유자	삼아성건축사사무소
내용구조	키워드	성곽, 수원, 복원, 정화, 도면
	내용	수원성곽 복원,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도면
	보존기간	영구
	축척	1/100, 1/200 혼재
	표현형식	연필 및 잉크를 활용한 수기 도면
	중요기록사항	도면 표기 이외의 기록 내용
열람이용 조건	열람조건	원도 열람, 디지털 자료 이용 모두 가능
	재생산조건	교육목적: 저작자 명기, 출판·상용목적은 저작자와 협의 필요.
	보관위치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건축기술관 자료실
	전자파일유무	스캔 자료 존재
	검색가능주소	http://kaac.auri.re.kr/ , http://fahl.hanyang.ac.kr/

영역	기술요소	내용
연관자료	컬렉션 명칭	한글 장기인 / 순용 / 필구 고건축자료 영문 Korea Architectural Archives of Changkiin/soonyong/pilgu
	사본 존재위치	없음
	기술	아키비스트주기 -
통제	규칙과 협약	저작권자: 장순용·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 연구실
	아카이브스작성	2017년 10월 31일 (한동수)
물리적 기술	크기	A1 : 841x594(mm)
	매수	30장
	재료	트레이싱지
물리적 기술	필기구	로트링, 연필
	테크닉	수작업 도면
	기타	특징적인 내용 기술
건축문화재 기술	지정명칭	수원 화성
	지정유형	사적 제3호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유형	성곽
	시대	조선시대(1796년)
	재료	석재, 벽돌, 목재
	건축문화재 개요	1796년 정조가 그의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화성은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 받는다. 사적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
	관리자	문화재청, 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	본 자료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 및 인터뷰 내용

비고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 44-45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10월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보관되어 있던 자료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건축학부 자료실로 이전하여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는 2017년 8월 신축한 건축관으로 이전하면서 건축학술정보관을 마련하였고, 건축학부에 기증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ιβ는 건축학술정보관의 안정적인 시설과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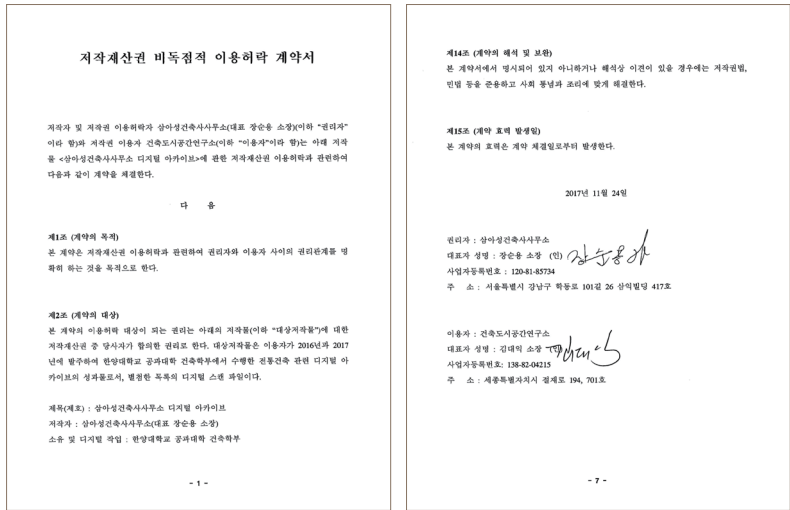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ιβ의 저작권자인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소장은 위탁관리자인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2016년 10월에 일체의 자료를 기증하고 기증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소유권과 저작권을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자료의 위탁·관리와 함께 이용의 권한을 갖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한옥센터는 저작권자인 장순용 선생님과 협의하여 2017년 11월에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ιβ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작권 이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국가한옥센터는 2016년과 2017년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와 아카ιβ 구축을 위한 학술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저작권자, 위탁관리자, 지원기관의 3자간에 기증 협약(이용 협약 포함), 이용 협약, 용역 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아카ιβ 구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사업 진행의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한옥센터는 구축된 아카ιβ를 활용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국가한옥센터에서는 구축된 아카ιβ를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국가한옥센터 아카ιβ 단행본 시리즈’를 구상하였다. 본 아카ιβ 단행본은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성과이다. 사실 삼성건축사사무소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ιβ의 수장 상황(좌: 정리 완료된 자료, 우: 정리중의 자료)

출처 : 저자 촬영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저작권침해 예방계약서」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소장 자료

아카이브는 국가한옥센터에서 추진해 온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되었고 자료의 디지털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작권자와 위탁관리 기관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여, 자료의 기증과 이관, 저작권 이용 협의, 아카이브 수장 공간의 마련 등이 상당히 신속하게 협의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저작권자와 위탁관리 기관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함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단행본 집필진 회의(2018.3.7.)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소장 자료



맺음말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의 진흥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2012년부터 ‘한옥 콘텐츠 구축 사업’을 통해 개별 아카이브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7년 이후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전환되어 체계적인 건축 아카이브의 구축 방법론을 고민하게 되었고,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동현 아카이브, 신영훈 아카이브,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등을 지원하여, 건축도면, 행정문서, 조사 일지 및 야장, 영상 및 음성 자료 등의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술집과 아카이브 소개 단행본 출판, 온라인 아카이브 자료 해제 등을 통해 주목할 만한 건축 아카이브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²⁴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는 국가한옥센터의 한국건축 아카이브의 대표 사례이자 모범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카이브는 자료 생산자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물리적 형태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자료의 보관 방법이나 자료 목록의 분류 항목도 다르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국가한옥센터는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개별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분류 체계와 관리 방법을 폭넓게 검토하였고, 더 나아가 다양한 아카이브 활용과 협력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건축 아카이브 자료는 수집할 가치가 있는 과거의 자료도 방대하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자료가 생산되어 양적으로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수집 자료를 수장할 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자료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자료를 한곳에 보관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료의 생산, 소유, 특성 등에 따라 개별 아카이브가 독립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국가한옥센터에서는 개별 아카이브의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건축 아카이브의 통합시스템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건축과 관련된 국내외의 개별 아카이브를 통합할 수 있는 공통 형식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개별 아카이브 시스템을 연결하여 통합 검색하거나 디지털화된 자료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 통합시스템은 향후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전시와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건축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김동현, 신영훈,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는 196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한 인물과 기관이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

²⁴ 국가한옥센터에서 지원하고 구축해 온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현황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국가한옥센터, 『한국건축 아카이브』, http://www.hanokdb.kr/archives/sub_02, 2018.12.10.

국 근현대의 건축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설계·구조·시공 등의 실무, 건축학계, 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건축업무 등에 참여한 인물이나 기관의 개별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한국건축 아카이브의 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한 시대와 지역을 확대하여 관련 기관에서 이미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 있는 한국건축 아카이브와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 목천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건축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의 일제강점기 근대도면 아카이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근대이행기 건축도면 및 측량도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조선왕실 건축도면 아카이브,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아카이브 등 역사자료 소장 기관과 다양한 수준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아카이브 자료의 목록과 디지털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통합 건축 아카이브로 확대하고 건축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을 확대하여 일본의 교토대학과 나고야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가와 케이치(小川敬吉)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그 밖의 해외 소장 자료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한옥센터의 중장기 아카이브 추진 계획과 함께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를 비롯한 기존의 한국건축 아카이브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삼성건축사사무소 자료는 지난 3년 동안 비교적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화된 자료가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은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존재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한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한옥포털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의 구축 현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고,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서도 자료의 해제와 열람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 위탁관리 기관, 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에 협력하여 모범적인 건축 아카이브의 구축사례로 자리매김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가한옥센터(2015), 「와본 김동현 구술집: 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평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가한옥센터, 「한국건축 아카이브」, http://www.hanokdb.kr/archives/sub_02, 2018.12.10.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http://archive.acc.go.kr>, 2018.12.20.
-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https://www.mmca.go.kr/research/archiveSearchList.do>, 2018.8.19.
- 김상호 외(2016),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박상규 외(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 왕실 건축 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 박상규 외(2014), 「덕수궁미술관설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 안양문화예술재단, 「김중업건축박물관」, http://www.ayac.or.kr/museum/kimchungup/kimchungup_01.asp, 2018.12.20.
- 유광흠 외(2008),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유광흠·조상규·엄운진(2007), 「건축도시공간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강근·홍승재(2009),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강근·홍승재(2009),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한국학중앙연구원
- 재단법인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아카이브 소개」, <http://www.mokchon-kimjungsik.org/common/people/archive.php>, 2018.8.19.
- 전봉희 외(2010),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V-의료·세관시설 편」, 국가기록원
- 전봉희 외(2011),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조선총독부 청사(남산)·소속기관·관측소 편」, 국가기록원
- 전봉희 외(2012),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I-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치안시설·전매시설 편」, 국가기록원
- 전봉희 외(2014),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VII-각급 기관 및 지방청사 편」, 국가기록원
- 전봉희·서영희·이규철(2012),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근대 측량도와 건축도 (1861~19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봉희·우동선·이우종(2004),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0(3)
- 전봉희·주상훈·김수범(2010),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II-법원·형무소 편」, 국가기록원
- 전봉희·주상훈·장필구(2009),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I-고적·박람회·박물관·시험소·관사·신사·군현련소 편」, 국가기록원
- 전봉희·주상훈·최순섭(2008),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I-학교 편」, 국가기록원
- 조준배·엄운진(2009),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한국건축역사학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브 구축-(구)해라시아문화연구소 건축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2016), 「한옥가치 발굴을 위한 전통건축 디지털 콘텐츠 구축: 고 장기인 선생 소장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http://www.naacc.go.kr/sub.do>, 2018.8.20.
 - Architectural Drawings Advisory Group(1994), *A Guide to the Description of Architectural Drawings*, G. K. Hall & Company
 - ICAM, *icam print*, www.icam-web.org/icam_print.php, 2018.8.25.
 - Section on Architectural Records(2000), *A Guide to the Archival Care of Architectural Records: 19th-20th Centuries*, 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

2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 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과정과 활용 전략





한 동 수

머리말

백남학술정보관 분관 건축학술정보관의 역사

기증된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과정

건축자료의 활용 전략

맺음말

2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 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과정과 활용 전략

머리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전통건축 관련 전문 아카이브가 제대로 구축되어 운용된 바가 없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건축문화재 관련 기록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UNESCO의 자문·지원 기구인 ICOMOS는 1999년 채택된 「Principles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Timber Structures」에서는 전통건축의 기록 및 문서화를 통하여 전통 기술의 보존 및 적용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문화유산 및 전통 건조물 보존 방침의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 문화재청 고시 2009-74호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의 제 17조에서는 유적의 수리 또는 복원된 부분과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 일환으로 한국건축 아카이브 구축 과제를 추진하여 1930년대 이후 고증 및 기록절차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의 문화재 보수 및 건축설계 참여자들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한국 전통건축의 맥락을 보존·전수하는 차원에서 높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 현존하는 전통건축 자료는 일부 관련자들에게만 공개되고 있으며, 소장자 또는 관계자들의 은퇴 및 사망에 따른 멸실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한국 전통건축 자료 보존에 대한 당위성과 시의적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국가한옥센터는 고문헌 및 전통건축자료의 발굴을 통해 기록물 보존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연구 자료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통한옥 보존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국가한옥센터에서는 전통 건축 관련 전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차적으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문화재 관련 고문서, 국가기록원의 건축도면, 규장각 및 장서각의 건축도면 등에 대한 디지털화와 대중 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전통건축 관련 자료의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축적해 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의 구축은 우리나라 전통건축자료를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후 유사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훌륭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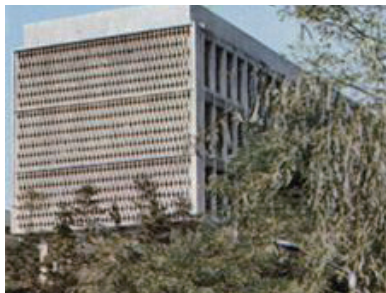
따라서 여기서는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기증한 건축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분관 건축학술정보관의 역사 및 기증자료의 아카이빙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 자료들이 우리나라 건축 학술계와 업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모색해 보며, 미분류 자료들에 대한 향후 대책과 자료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백남학술정보관 분관 건축학술정보관의 역사

건축 아카이브의 대상과 역할

건축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분관 건축학술정보관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 도서관이 속한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전신은 1948년 한양공과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조성된 소규모의 도서관에서 비롯하였다. 이후 1953년 행당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이후 교사 신축을 시작했으며 1959년 종합대학 승격에 따른 중앙도서관의 편성이 요구되자 당시 건축과에 재직하던 박학재 교수의 설계로 중앙도서관 건물이 신축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규모가 크지 않았고 1981년 일부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열람 및 서고 공간의 부족에 직면하였으며 학교의 규모와 위상에 어울리는 도서관 건물의 신축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한양대학교 건축과에 재직 중이던 이강업 교수의 설계로 1998년 지하 3층, 지상 6층의 단독건물을 준공하면서 해결되었고 명칭도 한양대학교의 설립자인 고 김연준 박사의 호를 붙인 백남학술정보관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곳에는 2018년 현재 135만권의 장서와 12,500종의 연속간행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8,300종의 전자저널 및 50종의 학술데이터가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분관 형식으로 법학학술정보관 2000년 개관, 의학학술정보관 1970년 개관, 음악자료실 1991년 개관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개관한 건축학술정보관은 네 번째 분관이 되었다. 그 밖에도 현재는 없어졌지만 1969년에 산업과학도서관, 1983년 기초과학도서관, 1996년 자연과학도서관을 운영한 바 있다.



1970년대의 중앙도서관 박학재 교수 설계(좌), 현재의 백남학술정보관 이강업 교수 설계(우)

출처 : 한양대학교 1978년 졸업앨범(좌), 한양대학교 포털사이트(우)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도서관 역사는 그 출발 시점을 명확하게 전해 주는 문건은 없으나 졸업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69년에 설치된 산업과학도서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점차 건축 도서를 집중적으로 수집, 소장하게 됨으로써 당시 국내 유일의 건축전문도서관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1990년대 후반 폐관이 될 때까지 당시 토건관 현재는 그 옆의 다른 건물과 함께 국제관이라고 함이라고 부르던 건물의 6층에 위치하였으며 장서는 대략 15,000여권을 상회했다.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생 조교가 배정되었고 지금은 없어진 종로서적 외서부를 통하여 매년 일정한 분량의 외국 건축서적을 전문적으로 구입하여 장서를 늘려갔다. 이와 더불어 졸업생들의 기증도 간간이 있었으며 외국유학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동문의 소장 도서가 유족들에 의해 기증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덕분에 장서 수준은 외국의 원만한 건축과 도서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유학을 떠난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건축(공)학부 도서관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학생 증가에 따른 필요 공간 부족을 이유로 도서관은 폐관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고 잘못된 판단임이 분명한데 최종적으로는 도서관의 폐관과 장서의 방출로 결정이 났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오랜 기간 염신하여 수집한 장서가 중앙도서관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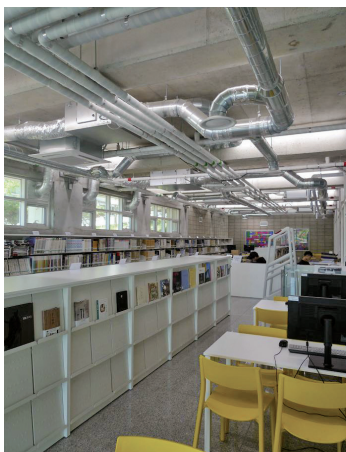
건축(공)학부 도서관이 있던 토건관의 1970년대 모습(좌), 리모델링 후 2018년의 모습(우)

출처 : 한양대학교 1978년 졸업앨범(좌), 저자 촬영(우)

관되지 못한 채 폐관과 더불어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당시 건축도서관의 장서는 중앙도서관에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자체적인 별도의 장서목록을 작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관이 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가볍게 처리되었던 것이다.

그 뒤 건축도서관은 줄곧 재개관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들어 건축학교육인증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중요한 시설의 하나로 건축도서관이 대두되자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08년 비로소 건축자료실이란 명칭으로 과학기술관 4층에 소규모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촉박하였고 건축(공)학부 재직 교수들과 동문들이 기증한 도서 및 잡지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 제반 여건의 미비로 실질적인 운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충분한 가용 공간의 미확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과 재정 지원의 부족에 있었다.

2017년 8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건축관이 건축학부 안기현, 김재경 두 교수의 설계로 준공되면서 이 건물 지하1층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과학기술관 지하 1층 및 2층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건축전문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영무 현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와 백남학술정보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분관 형식으로 건축학술정보관을 새롭게 개관, 운영하게 되었다.



신축된 건축관 전경(좌), 정기간행물실(중), 서고 내부(우)

출처 : 저자 촬영

건축학술정보관은 신축한 건축관의 지하 1층에 서고 및 정기간행물실, 과
학기술관 지하 2층에 미분류자료 보관실과 자료 정리실을 가지고 있으며 1명의
전문사서와 2명의 근로 장학생을 두고 있다. 주요 장서와 자료로는 3만여 권에
이르는 동아시아 건축역사서적 및 이론서, 고건축 실측조사보고서 등 단행본 도
서를 비롯하여 40여종의 건축 관련 정기간행물, 슬라이드 필름을 비롯한 흑백
필름과 인화된 사진, 그리고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전통건축자료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주목할 자료로는 한국건축교육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양대학교
및 건축(공)학과와 관련된 문서, 교보재, 건축도구, 작고한 교수들의 유품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자료의 취득은 주로 기증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8년 4월까지 김동
현, 김철민, 신범식, 양성욱, 이해성, 장석웅, 장한수, 장순용, 한동수, 일본 학자 토
미이 마사노리와 이오 미쓰루, 서인건축사사무소, 양우건축사사무소, 현신건축
사사무소 등 11명의 개인 및 3개 기관이 도서 및 정기간행물, 사진자료를 기증하
였다. 또한 동문인 원양건축사사무소 이종찬 회장의 지원으로 정기간행물 가운
데 14종의 국외건축잡지를 유료 구독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과 시설을 기반으로
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분관 건축학술정보관은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건축전문도서관이자 전통건축 아카이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기증된 고건축 자료의 아카이빙 과정

기증 경위

장기인·순용·필구 기증 전통건축자료 Korea Architectural Archives of Chang kiin-soon-yong·pilgu / KAAC, 이하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로 표기함 아카이브는 삼성건축사사무소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을 통하여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분관 건축학술정보관에 기증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 자료의 아카이빙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자료의 기증 경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소장의 자료 기증 의사는 매우 사적인 모임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오랜 기간 전통건축 분야에 종사해 온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소장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말 한옥 문화원 장명희 원장이 김동욱 경기대 명예교수, 이왕기 목원대 교수, 한동수 한양대 교수를 초청하여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였다. 식사 도중 장순용 소장이 자료 보관의 고충과 폐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자리한 사람들은 폐기는 너무 손실이 크므로 어디든 기증을 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한양대에서 그것을 일단 받아두는 것으로 구두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곧바로 실천에 옮겨져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는 결국 한양대로 이관되었다.

기증과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인수 받아 보관하는 과정은 모두 임기응변식의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구체적인 아카이빙의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자료가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안산 건축학과의 이한승 교수의 도움이 매우 컸다. 이한승 교수는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안산 내 초대형 구조 실험동의 빈 공간을 흔쾌히 비워주었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료가 온전히 보관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자료 기증식을 마친 후 촬영한 기념사진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제공

공식적인 기증 자료 전달식은 이로부터 석 달 뒤인 2016년 10월 10일 한양대학교 이영무 총장과 삼성건축사사무소 장순용 소장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장순용 소장의 아들 장필구 교수, 공대 학장 정성훈 교수, 건축학부의 이강업·이정만·한동수·노승범 교수가 배석하였다.

기증 자료의 아카이빙 과정

아카이빙의 주요 대상인 기증된 자료는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지난 60여 년간 사무소의 운영을 통해 생산된 것이다. 이 사무소는 고 장기인 선생이 본격적으로 건축설계에 매진하기 시작한 1965년에 문을 연 삼성건축설계사무소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후 삼성건축사사무소 1983년, (주)삼성건축사사무소 1999년을 거쳐 2010년 (주)삼아성건축사사무소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건축 분야를 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진 전통건축 분야의 전문 설계사무소로서 문화재는 물론 전통건축과 관련된 국내의 주요한 사업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였으며, 실무를 익히는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전통건축에 관련된 설계와 실측, 보수 등 실무의 정도 正道를 익히는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창업자 고 장기인 선생의 뒤를 이어 아들 장순용, 손자 장필구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운영된 건축사사무소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기증 초기에는 적절한 보관 장소가 준비되지 않아 삼성건축사사무소로부터 이관된 자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안산 공학대학 건축학부 소속 초대형 구조실험동 내의 창고에 임시로 보관되었다. 그 후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건축관의 준공과 더불어 건축학술정보관이 들어서고 자료에 대한 2차 아카이빙 작업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에 모두 옮겨와 건축관 지하 1, 2층에 분산 보관되어 오늘에 이른다.

기증된 자료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걸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국가한옥센터의 지원을 받아 아카이빙의 가장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목록화 및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체 자료의 70%에 해당하는 9,743종의 목록 DB가 완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전산화 과정을 거쳐 12,000매의 건축도면이 디지털 DB로 구축되었다. 이것은 20여만 장으로 추정되는 전체 건축 도면의 6%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아카이빙의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면 아카이빙은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의 주요 업무 목표는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의 개략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국내외 아카이빙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된 방법을 일부 선별 자료에 적용해 보는 실험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카이빙 작업에 대한 경험과 배경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국내외의 유관 디지털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방향성을 타진하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소장자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성화된 분류 및 관리체계를 나름대로 확정을 할 수 있었으며 이 부분은 두 번째 단계에서도 재검토 되어 최종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교수이자 도서관 관장으로 있는 정연경 교수의 조언과 자문이 매우 큰 역할을 했으며 선행연구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같은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별도로 일부 선별된 자료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작업도 추진하였다. 디지털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내외의 사례 검토를 통해 확정한 기준을 근거로 기증 자료에 합당한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기증된 자료가 개략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었으나 중복되거나 디지털화가 필요 없는 것도 있었으며 도면과 사진, 슬라이드, 도서류가 섞여 있기도 하여 자료 명칭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자료명은 결국 목록화 작업 이후 자료를 찾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어 가능하면 반복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확정을 했다.

디지털화 작업은 처음에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작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분야의 전문 업체와 논의를 한 결과 균질한 품질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의 범주에서 일부 선별된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날로 등장하고 있어 시간과 예산만 확보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의 디지털화 전 목록화 작업을 하는 모습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 제공

사진 처리 작업



① 자료 고정작업

접혀거나 말려있는 등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자료를 임시로 판에 평평하게 고정



② 낱장 자료의 평탄화와 고정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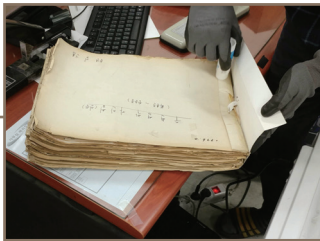
탁본이나 야장 등 낱장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펼쳐 판에 평평하게 고정

서적류 디지털화 작업



① 사진첩 자료 보수

사진첩 각 페이지에서 박락된 사진들을 원래 있던 위치를 찾아 붙이는 작업 수행



④ 재편집 작업

사진첩이나 서적 자료는 디지털화 공정을 마친 후, 책자의 형식으로 재편집



③ 평판 스캔 작업

A2규격의 평판스캐너를 사용하여 원본의 순서에 맞게 디지털화



② 제본 해철 작업

사진첩 및 도서 자료철을 해체하여 낱장으로 분리시키는 작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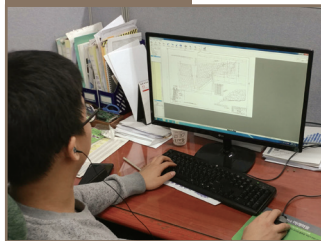
도면류 디지털화 작업



롤 스캔 작업

A1규격의 롤 스캐너를 사용하여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대형 도면을 선별 및 디지털화

사후 처리 작업



이미지 보정 작업

스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색조, 채도, 왜곡 등을 Adobe Photoshop을 사용해 보정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제공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시간과 예산의 범주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를 분류, 정리하여 목록화 하고 적절한 보관 시스템을 갖추며 이와 동시에 일부 선별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화는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종료가 되었으며 목록화 작업은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 여기서는 실제 작업의 착수에 앞서 첫 단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에 걸친 자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회차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첫 번째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분류체계와 기술요소를 수정,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냈으며, 2회 차는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와 동일한 성격의 전통건축 도면을 생산했던 태창, 금성, 새한 등 세 개의 대표적인 전통건축 관련 건축사무소의 도면 자료 보관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2회차 자문 세미나는 아카이빙 자료를 기증한 삼성건축사사무소의 과거 근무자를 초빙하여 자료의 생산 및 보관에 관련된 실제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사한 전통건축 설계도서의 보관사례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전통건축자료의 실태 및 보존가치,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통건축자료 아카이빙에 관한 자문 세미나 일정 및 주제

일자/장소	주제	발표주제 및 발표자
1회차 2017.08.11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610호	전통건축 자료의 아카이빙을 위한 과제와 전망	해외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의 검토와 기록물 관리의 개선 방향 모색 /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일본 전통건축 자료 아카이브의 현황 : 中井家 문서를 중심으로 / 서동천, 한양대 겸임교수 한국 전통건축 기록물의 조직화 : 분류와 기술 요소에 관하여 / 정연경, 이화여대 교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만 주요 건축 설계 도설(圖說)의 수집 및 디지털화 계획 / 林一宏, 대만박물관 연구원, 정문경 번역 대만 근현대 건축 도설(圖說)의 보존과 관리 개황 / 林一宏, 대만박물관 연구원, 한동수 번역
2회차 2017.09.14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610호	국내외 개인 소장 한국 전통건축 자료의 현황과 과제	태창건축사사무소 전통건축 관련 자료의 현황과 과제 / 박무룡, 태창건축사사무소 소장 새한건축사사무소 전통건축 관련 자료의 현황과 과제 / 고주환, 새한티엠 소장 (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전통건축 관련 자료의 현황과 과제 /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및 금성건축사사무소 전통건축 관련 자료의 현황과 과제 / 김우웅,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부소장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

뿐만 아니라 아카이빙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인 분류코드에 대해서는 자문 항목들을 토대로 기 제작된 코드분류체계를 수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정 지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KAAC 02078-0104 1967KS3DCR’로 기록된 것이 ‘KAAC 02078-0104 1967KaD_AC_R’의 형식으로 변환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추가된 ‘-’ 부분은 향후 세부적인 내용의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료 유형 항목에 세부 확장 항목이 정리되면 ‘Ba : 문헌-계약서’ 혹은 ‘Bb: 문헌-내역서’ 등의 형식으로 자료유형을 확장해 가는 것으로, 이는 건축유형에도 적용시켰다.

수정된 코드분류체계

명칭	일련번호		생산 년도	언어		지역		자료유형			시대유형		건축유형			공사유형		
	사업별	세부항목		코드	구분	코드	구분	확장	코드	구분	확장	코드	구분	코드	구분	확장	코드	구분
K A A C	0001	0000-0000	1959	K	한국어	A	서울	-	B	문헌	-	A	전근대	H	주택	-	S	실측
	0002	0000-0000	1967	J	일본어	B	경기	-	D	도면		B	근대	P	궁궐		R	보수
	0003	0000-0000	1972	C	중국어	C	강원	-	F	문서		C	현대	C	성곽		C	복원
	0004	0000-0000	1984	A	영어	D	충청	-	P	사진		D	기타	T	능묘		N	신축
	0005	0000-0000	1992	E	기타	E	경상	-	R	유물			R	종교		P	단청	
	0006	0000-0000	2002			F	전라	-	E	기타			G	관아		M	아축	
	0007	0000-0000				G	제주	-					A	단묘		E	기타	
	0008	0000-0000				H	황해	-					C	유교				
	0009	0000-0000				I	평안	-					L	원림				
	0010	0000-0000				J	함경	-					B	교량				
	0011	0000-0000											E	기타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7

이와 더불어 이번 아카이빙 과정에서는 적용할 수 없었지만 향후 보다 완벽한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자료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인 개별 자료에 대한 기술요소를 개략적으로 규정해 보았다. 이것 역시 첫 번째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것을 수정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제시된 것이다.

수정 확정된 건축문화재 도면의 기술요소(수원 화성 자료를 사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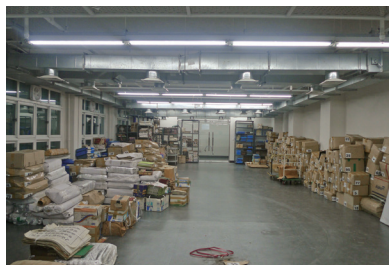
영역	기술요소	내용
식별	관리번호	KAAC 01084
	분류코드	KAAC 01084-1972KS1DCS-01084
	표제(부제)	수원화성실측도면(없음)
	일자	1972년 8월 20일(생산일자·출판일자·배포일자)
배경	발주자명	문화재청
	생산자명	삼성건축사사무소
	생산기간	-
	소요경비	-
	기록물 이력	(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한양대 기증자료
	원소유자	삼아성건축사사무소
내용구조	키워드	성곽, 수원, 복원, 정화, 도면
	내용	수원성곽 복원,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도면
	보존기간	영구
	축척	1/100, 1/200 혼재
	표현형식	연필 및 잉크를 활용한 수기 도면
	중요기록사항	도면 표기 이외의 기록 내용
열람이용 조건	열람조건	원도 열람, 디지털 자료 이용 모두 가능
	재생산조건	교육목적: 저작자 명기, 출판·상용목적은 저작자와 협의 필요.
	보관위치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건축기술관 자료실
	전자파일유무	스캔 자료 존재
	검색가능주소	http://kaac.auri.re.kr/ , http://fahl.hanyang.ac.kr/
연관자료	컬렉션 명칭	한글 장기인 / 순용 / 필구 고건축자료 영문 Korea Architectural Archives of Changkiin/soonyong/pilgu
	사본 존재위치	없음
	기술	아키비스트주기 -
통제	규칙과 협약	저작권자: 장순용·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 연구실
	아카이브스작성	2017년 10월 31일 (한동수)
물리적 기술	크기	A1 : 841x594(mm)
	매수	30장
	재료	트레이싱지

영역	기술요소	내용
물리적 기술	필기구	로트링, 연필
	테크닉	수작업 도면
	기타	특징적인 내용 기술
건축문화재 기술	지정명칭	수원 화성
	지정유형	사적 제3호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유형	성곽
	시대	조선시대(1796년)
	재료	석재, 벽돌, 목재
	건축문화재 개요	1796년 정조가 그의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화성은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 받는다. 사적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
	관리자	문화재청, 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	본 자료의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 및 인터뷰 내용
비고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38-39

다음으로는 목록화 및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초대형 구조 실험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 모두를 건축학술정보관 서고로 예정된 장소까지 옮겨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아마도 이번 아카이빙 과정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서고로 운반을 하면서 이후 작업의 편리함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가분류를 한 다음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능적으로 분산, 배치를 하였다.

목록화 작업은 모든 자료 박스를 개봉하여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으므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었다. 그것은 연구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연구자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 목록화 작업은 주간은 물론 종종 밤을 넘겨 새벽까지 진



기증 자료 하역(좌), 건축학술정보관 서고 예정 공간에 1차 분류 및 적재(우)

출처 : 한동수 외(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8을 토대로 재구성



건축학술정보관 서고 예정 공간에 마련된 목록화 작업 공간과 작업 장면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0(좌),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우)

행되었으며 그 결과 9000여건에 달하는 자료 목록의 DB가 완성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 자료는 선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를 위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였다. 디지털화 작업을 의뢰한 자료 중, 설계도 원도 자료는 접어놓은 채로 장시간 보관되어 있어 펴는 작업이 수반되기도 하였으며, 사진첩의 경우 사진이 박락되어 낱장의 사진을 원래의 위치를 찾아 다시 붙이는 등 사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제본이 되어있는 경우, 자료를 낱장으로 분해한 후 디지털화 하고 다시 제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장시간 보관으로 재질이 온전하지 못하며 디지털화 작업에서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사후처리 작업을 통해 왜곡을 보정하여 수직·수평, 명암 등을 균질하게 정리하였다.

목록화된 자료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모두 준비된 보관함에 넣어 정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관함의 규격과 내구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가 다양한 유형과 규격, 재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A1 규격인 841×594mm 보다 약간 여유 있는 규격인 900×650mm로 확정되었으며 내구성 및 내후성이 비교적 우수한 3m/m 골판지로 하되, 상부 하중으로 인한 변형 방지를 위해 측부를 이중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도면이나 유물 보관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덮개가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담긴 자료들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건축학술정보관 지하 1층 단행본 서고에 분류, 배치하였으며 전용 컴퓨터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자료의 보관함 위치를 확인한 다음 관내에서 원자료를 직접 스캔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분류된 자료는 지하 2층 자료 보관실에 개략적으로 분류되어 보관 중에 있다. 반면 전산화된 건축도면의 디지털 DB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웹사이트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웹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립 전 상태의 보관함 반입과 운반 과정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0



조립된 보관함과 자료 적재 상태의 모습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1



목록화 된 자료 보관 상황(좌), 미분류 자료 보관 상황(우)

출처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제공

자료가 보관된 건축학술정보관의 물리적인 시설인 서가와 분류 박스, 기타 관련 시설은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이종찬 회장의 기부금과 한양대학교 대학 본부의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형식을 완성하였으며 단우건축사사무소 김연호 소장 및 신성건축사사무소 권오준 소장 등 한양대학교 건축 동문들의 후원을 통해 간단한 전산화 시설을 갖추었다.

이상과 같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연구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정신,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진행된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의 아카이빙 과정은 건축자료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학계가 향후 자료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나아갈 길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작업 단계별 참여인원 구성 및 담당업무

구분	직책	성명	담당업무	
1단계 작업	책임연구원	한동수	과제총괄, 적정기준검토, 보고서 작성	
		연구원 (7명)	이성호	일본 사례조사, 해외사례조사 책임, 보고서 책임, 현장작업
			심은애	국내 사례조사 5건
			이동범	국내 사례조사 1건, 현장작업
			최지해	회계, 국내 사례조사 2건, 보고서 보조, 현장작업
			신수경	현장작업
			김영재	북미 및 유럽 사례조사 책임
			서동천	일본 사례조사, 국내 사례조사 책임
	연구보조원 (8명)	석진영	국내 사례조사 2건, 현장작업	
		최금미	국내 사례조사 1건, 현장작업	
		이도경	국내 사례조사 1건, 현장작업	
		왕치웨이	중국어권 사례조사, 현장작업	
		정문경	중국어권 사례조사, 현장작업	
		김태형	북미 및 유럽 사례조사	
		류병수	북미 및 유럽 사례조사	
		이진아	북미 및 유럽 사례조사	
	보조원	탁예진	현장작업, 보고서 표지디자인	
	2단계 작업	책임연구원	한동수	과제총괄
		연구원 (3명)	이동범	이관 및 보관 작업 책임 (현장업무)
이성호			보고서 및 목록화 작업 책임 (사무 및 현장업무)	
최지해			행정 및 회계 책임 (사무업무)	
연구보조원 (3명)		이호선	보관 및 목록화 작업 (현장업무)	
		장소영	보관 및 목록화 작업 (현장업무)	
		범서기	보관 및 목록화 작업 (현장업무)	

출처 : 저자 작성

건축자료의 활용 전략

현재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는 목록화를 통한 분류와 정리라고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최소한의 아카이빙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것도 미분류 자료가 1/3 정도 남아 있어 매우 불완전한 상태의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차 계획을 세워 미분류 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자료의 특성과 사용자의 편리, 관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활용도 높은 아카이브가 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가 국내 건축계를 위해 효과적인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술요소의 연차별 확장

기술요소와 분류체계, 관리코드 등 아카이브 구축의 제반 사항 설정에 신중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 번 정해지면 수정이나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당시 충분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바람직한 기술요소와 분류체계, 관리코드 등의 제반 체제 마련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술요소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건축도면 생산과정 재현을 통한 분류기준 정밀화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는 건축도면 중에서도 특히 문화재나 이에 준하는 건축물·구축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와 분류를 위해서는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의 절차 중, 설계단계의 건축도면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건축도면의 생산과정을 전말을 조사하고 세부단계로 구분하여 도면 분류코드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소장 도면의 이해와 분류를 위해 실측·복원·보수·정비·문화재기록화 사업 등 조사유형별 구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건축도면의 사안마다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 자칫 오보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상 자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 해당 건별로 도면 생산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을 활용하여 자료 분류에 도움이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료의 성격에 호응하는 융통성 확보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는 건축도면이 주류를 이루며 일부 사진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고 장기인 선생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내용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단행본을 비롯하여 단행본의 출판을 위한 각 단계의 자료, 예를 들면 원고 집필을 위한 카드, 초고, 교정본, 최종본 등등, 공문서, 보고서, 회의자료, 도구, 문화재 조사 시 습득한 관련 건축 재료 등과 같은 것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건축도면을 중심으로 제시된 현재의 분류체계에 이들 자료들이 나름대로의 연계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더 나아가 향후 다른 아카이브와의 연동까지 원활하게 되도록 융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본자료의 보관과 공개

연차별로 많은 수의 디지털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나 그에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원본자료의 보관과 관리문제가 수반된다. 연구를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시설 투자를 통하여 원본자료의 항구적인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도면의 특성상 원본 자료의 공개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설계도서나 문서 외에도 실측장 등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부수적인 데이터도 반드시 함께 보존 관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조사된 모든 사항들이 도면화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과물로서의 도면 외에 실측장, 또는 사진첩 등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자료들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선별 원칙과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자료의 해제작업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들은 그 보존 대책 수립 후 자료적 가치의 보존과 활용의 가능성을 위해 해제작업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자료 정리자들의 작업은 어디까지나 서지적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아카이브로서의 가치는 해제과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기증자료가 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자료의 정확한 해제를 위해서는 서지분류 작업자의 1차 분류 작업 이후에도 자료 전반에 얹혀 있는 다양한 내용을 추적하여 보완하는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자료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해제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 과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 아카이브는 우선적으로 아카이빙 된 자료에 관해 하나의 큰 원칙을 정한 바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운영 및 소장품 관리 방식과 달리 개방형 건축도면 전문 아카이브로 체제를 갖추어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 자료의 접근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이지만 소장자료는 유물로 취급하지 않고 학술적인 연구 활동은 물론 비상업용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자료에 대해 직접 열람 및 복사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건축역사 분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삼성건축사사무소와 한양대학교 사이에는 자료 기증 과정에서 자료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의 기본적인 정신은 “모든 자료의 완전 공개와 상업적 운영의 배제”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 방향을 예상해 보면 첫째로 국내 대학 및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국가기록원,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소장 자료 목록 정보의 공유를 통해 건축건축 도면자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직도 건축도면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에 대해 인식 수준이 낮은 국내의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내고 여러 층위의 국내외의 학술세미나를 전개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자료의 전시활동과 연계시킨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자료의 활용으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카이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시 기능이다. 전시는 목록화된 자료는 물론 미분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록화와 디지털화된 소장 자료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나아가 전통건축의 배경과 성격이 유사한 중국이나 대만, 일본과의 교류전을 통해 우리나라 도면의 특성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소장자료를 선별하여 현재 우리 학계의 수요가 많고 보편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한 도서를 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디지털 자료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아날로그 자료의 중요성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 가운데 유일본들은 DB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겠지만 복본을 만들어 연구자는 물론 생산자와 발

주자, 아카이브 관리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건축계 전반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최근에는 아카이빙의 결과를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매뉴얼을 마련하고 건축역사수업과 연계시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국내외 관련 강좌 및 특강 지원 서비스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확인되므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운영 체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대학원 과정의 건축역사수업에서 아카이브의 자료를 적극 활용한 수업 주제를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학위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때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간략한 내용 정리를 통해 정보의 공유를 추진하는 것도 국내 전통건축 아카이브의 선구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임무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축 학술정보관의 개관과 더불어 이미 한양대학교 대외협력실에 “한양대학교 건축 학술정보관 발전기금”이라는 기부금 항목을 설정하여 외부의 기부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미 작고하신 고 이해성 한양대학교 명예총장의 유족을 비롯한 몇몇 동문들로부터 기부금의 적립이 이루지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면 이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사서의 훈련, 특수 자료의 구입, 보존 처리, 보관 시설의 개선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다.

맺음말

전통건축 기록물의 가치는 내용, 생산 시점, 보존 상태, 희소성, 생산 기관, 제작이나 수집한 사람의 지명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전통건축을 살아있는 역사적 실체로 인식하고 특히 변화나 변형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수리와 복원 자료로 활용하고 후대의 연구와 학술, 교육, 창작,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전통건축의 역사가 그 자체의 역사로 그치지 않고 전통건축 활동의 역사로 확장되어 살아있는 입체적인 자료로 축적이 될 수 있다면 전통건축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 기증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된 전통건축 아카이브는 우리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며 향후 전통건축의 수리와 복원, 해석과 평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낼 것으로 확신을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시간은 요원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첫발을 내디딘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양대학교는 물론 우리 건축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조연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들을 한양대학교가 소장,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한양대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점적 소유물내지 박물관의 소장품과 같은 유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우리 건축계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3

반세기, 삼성건축사사무소 실측설계의 전개





장 필 구

머리말

1960년대 한국건축설계의 시작

대형 프로젝트와 설계업무의 체계화

정밀실측 업무의 본격화

CAD설계시스템의 관문

지역제한입찰의 충격과 설계도서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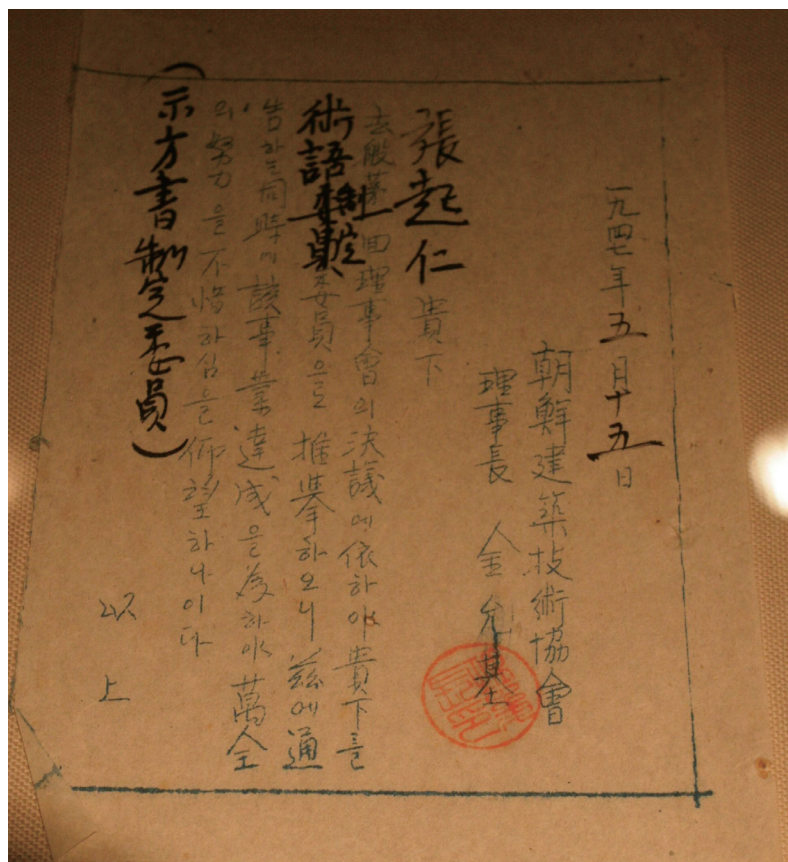
맺음말

1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시작은 1965년 삼성건축설계사무소로 개소했다고 전해진다. 1984년 건축사법에 따라 삼성건축사사무소로 개칭되었고, 1994년에는 (주)삼성건축사사무소로 개편하였다. 2010년에는 삼성전자(주), 삼성물산(주)의 상표권 주장에 의하여 (주)삼아성건축사사무소로 개칭되었다. 이 글에서는 삼성건축사사무소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2 장기제는 1930년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였다. 유치진과 함께 극예술연구회 설립의 주축이었으며, 장기제는 영어권의 희곡과 시 번역을 담당하다. 극예술연구회 창설과 장기제를 포함한 설립 명단은 「新劇樹立을目標로 劃期的團體出現」 기사(『동아일보』, 1931.07.19., 4면)를 참조할 수 있다.

낸 수많은 실무자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설계도서가 설계사무소의 경력이라면 역대 실무자는 그 경력을 일구어낸 주역이자 설계사무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켜온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삼성건축사사무소가 겪어온 시간에 대한 기억이면서 지금까지 경력을 이어온 실무자들에 대한 기억이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¹ 설립자 장기인은 1916년 평안북도 의주군 고성면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일본 와세다 대학 본과를 졸업한 장기제(張起悌)²는 장기인의 형이면서 형제들에게 신문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는 자식을 ‘목수’로 만들 수 없다는 부친의 반대를 설득할 때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장기인은 1935년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 진학하여 신학문을 수학하였고,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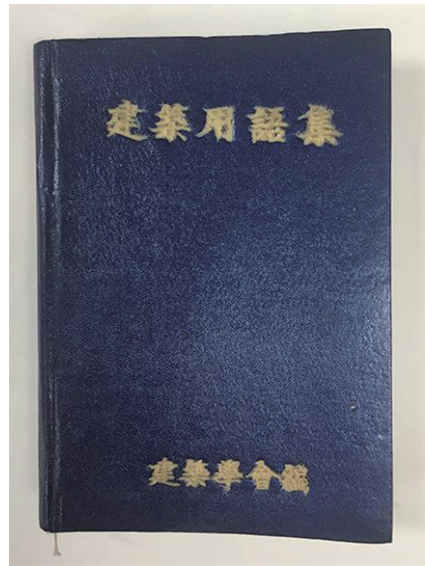
조선건축기술협회 술어제정위원 추거(1947)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개항, 전쟁, 그리고 한국건축(2013)」 전시물을 저자 촬영

3 장기인의 활동내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장기인 1916~」, 2003년도 한국근현대예술사 학술채록연구 시리즈 2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에 학술채록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년 졸업과 함께 경성부청에 근무하였으나, 1년여 만에 퇴사하고 1939년 조선공영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 조선공영주식회사는 토지개발을 통해 한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장기인은 여기에서 한옥 설계에 참여하였다. 이때의 한옥설계 실무는 한옥건축을 이해하는 본격적인 실무경험이 되었으며, 동시에 한옥 시공기술자와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³.

해방 후에는 1945년 9월 1일 창설된 조선건축기술단에 소속되었다. 국내의 건축기술자들과 함께 광복을 맞은 조국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고유한 건축산업 발전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당시 일본어 일색이었던 건축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건축술어 편찬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작업에 주력하였다. 건축용어 제정사업은 1947년 기술단의 간행물인 「조선건축」에 「건축술어 제정보고」를 연재하며 조직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1958년 「건축용어집」으로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장기인이 편찬위원장이 되어 1966년 대한건축학회에서 출간



『건축용어집(1958)』건축학회편 표지

장기인 선생의 첫 건축용어집으로 1958년 11월 25일 발행

출처 : 저자 소장

되었다. 장기인이 주도한 용어집과 시방서 편찬은 이후 한국 건축시장에 한국어로 된 기초자료가 유통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피난하였을 때에는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다. 상경한 후에는 한양대학교 시설과에 근무하면서 건축공학과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였으며, 1960년대 초에는 부국건설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중에도 장기인은 회사 업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건축설계업무를 병행하였고 본인의 실무 노하우를 살려 1965년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기술, 학술, 예술을 아우른다는 의미의 삼성三城이라는 이름은 건축을 지식의 종합체로 이해하는 장기인의 건축관을 보여준다.

사무실 개소 직후 공장, 주택, 사무실 등 다양한 분야의 건축설계를 수행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재 건축설계 분야로 전향하였다. 이후 장기인과 삼성건축사사무소는 국내 문화재 보수설계 분야에서 수많은 실무 결과물을 생산하였으며, 1980년대 아들 장순용이 사무실 운영을 맡게 된 뒤에도 국내에서 선도적인 문화재 건축설계 사무실 역량을 발휘하였다.

삼성건축 아카이브는 장기인, 장순용이 운영한 삼성건축사사무소 개설 이래의 지적재산이지만, 동시에 이를 손수 생산한 실무자 역량의 집적체이기도 하다. 특히 설계도서의 품질과 설계방법론의 합리성 등은 실무자의 노하우와 의지가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 개설 이후로 시기별 업무 방향과 실무자의 현실적 고민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구성 유형과 그 내용의 시기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로 실무자들이 마주한 고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960년대 한국건축설계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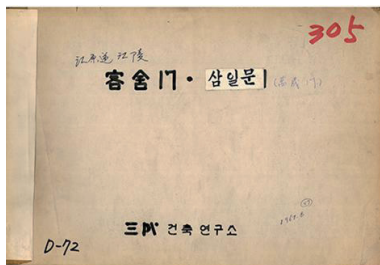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최초 개업 전후

삼성건축사사무소는 한국 1세대 건축가인 장기인(1916-2006)이 설립한 건축 설계사무소이다. 장기인이 '삼성'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소를 개소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이 시기에 근무했던 초기 실무자의 기억에 의하면 1965년 봄에 무교동 한옥건물 2층에 사무소를 개소하였고, 건축사법 시행 이전까지 '삼성건축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다고 전한다⁴. 따라서 1950, 1955년에 설계사무소를 자영하였다는 개인 약력의 내용은⁵, 1965년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설계용역을 맡아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대서방(代書房)⁶ 성격의 삼성건축연구소가 운영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1965년 봄에 '삼성건축설계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다.

4 대표자 이름 또는 별도의 명칭을 따라 '○○○건축연구소'로 개업하는 당시 건축설계사무소의 경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법」은 1963년 12월 16일 제정·시행되었고, 제23조에서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3조 (등록) ①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정하고, 그 건축사사무소에 관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청·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地方長官"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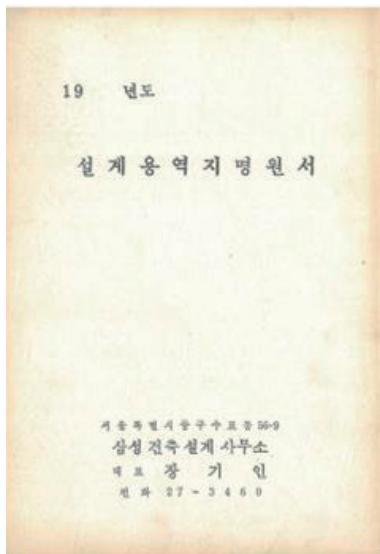
5 장기인의 약력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1976년에 간행된 「장기인선생 회갑기념논문집」이었다. 이 자료는 '문하생'이라고 표현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하고 장기인을 비롯한 당대 관련 전문가들의 글을 함께 수록한 비정규 간행물이다.

6 대서방(代書房)은 대서소(代書所)와 같은 뜻으로, 민원인을 대리하여 관청 행정이나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대서 업무와 그 업무공간을 지칭한다. 따라서 건축설계 대서방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대리하였다.



객사문·삼일문 실측 사진첩(1967)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삼성건축설계사무소 설계용역지명원서 (1970년대)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삼성三成은 건축이 포함하는 예술, 학술, 기술의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아우른다는 뜻으로 전해지는데, 미적요소를 갖추고 내구성 있는 건축물을 설계함과 동시에 건축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연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깊은 의지가 반영된 사무실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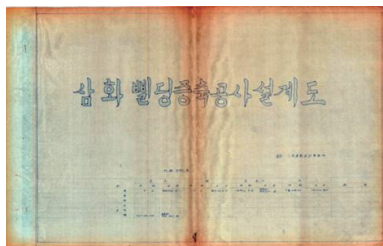
개소 초기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재학생 두 명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였다. 당시 장기인은 학교 강의 등의 외부활동을 위해서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업무를 계약하고 진행사항을 검토하는 역할 외

의 설계 실무는 학생 신분의 실무자가 맡았다고 전한다.

이 중 한 명은 장기인의 조카로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입학부터 장기인 자택(전농동 558-193)에 기거하며 설계실무와 건축연구 작업을 도맡았다. 안방 바로 옆 칸에 마련된 작업실에 제도판을 마련해 두고 설계도서와 「건축구조학」 원고를 작성하였다. 밤마다 안방 잠자리에 엎드려 원고를 검토하는 장기인의 열정을 계속 보아온 그에게 장기인 자택에 입숙한 기간은 대학교의 학업보다 강도가 높은 과중한 업무로 기억되었다. 동시에 그는 장기인과의 설계실무와 원고작업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보다 빠르게 건축을 학습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장기인의 연구활동과 저술작업에 대한 존경을 키울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1966년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생 세 명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당시의 설계 업무는 공장, 주택, 사무실 등 다양한 현대건축을 다루고 있었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소재한 삼화빌딩증축공사에서는 구조계산과 건축설계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창경원 동물사 신축공사는 일본 동물원 사례를 분석하여 동물과 관람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넉넉한 동물 관람 시설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초기 역량은 장기인이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건축 실무 분야의 체계를 정립했다는 사실에 기초하였다. 장기인은 1958년 「건축용어집」대한건축학회 편, 영기출판사⁷, 1964년 「건축구조학」문운당과 「건축설계제도」야정문화사⁸, 1966년 「건축시공학」문운당과 「건축공사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편 및 「한국건축용어집」한국건축가협회 편, 1967년 「건축적산학」야정문화사를 간행하였다. 장기인은 건축사사무소 개소 전후로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건축산업의 기본 체계가 되는 용어, 구조, 시방, 내역까지 이미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실무에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시 대학 건축과의 교재가 턱없이 부



소공동 삼화빌딩 증축공사 설계도서(1966)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창경원 현대식동물원 조감도(1967)

「동물사 계획연구자료철」 수록 이미지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7 한국건축용어집이 제작된 연혁에 관해서는 장기인, 「건축용어의 낙수」, 《대한건축학회지》 18권 61호, 1974, 56쪽을 참조할 수 있다. 장기인이 한국의 건축용어를 정립한 건축가라는 이력은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에 소개된 바 있다.

8 장기인·박윤성·이광노·이건영, 「건축설계제도」, 야정문화사, 1964(초판), 1966(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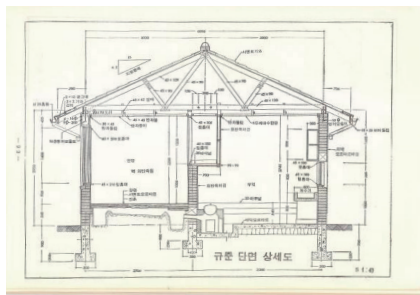
「건축구조(1962)」 표지

출처: 저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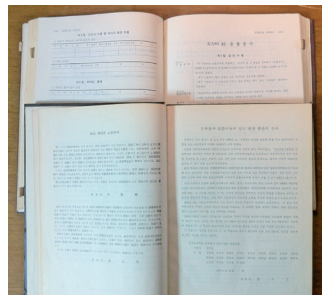
「한국건축용어집(1966) 제1권 표지

출처: 저자 소장



「건축설계제도(1966)」 수록도면

출처: 저자 소장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966)」

출처: 저자 소장

족한 상황에서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보급한 노력 때문에 초기 직원들 역시 장기인을 학자의 품모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실무자들이 기억하는 장기인은 잔소리와 지적이 없는 설계사무소 대표이었고, 실무자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주기 보다는 찾아 볼 자료를 알려주는 전문가였다. 모든 설계업무의 감독자로서 설계업무를 세세하게 관여하기보다는 실무자의 잠재력과 실천력을 기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장기인이 실무자에게 보여주는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면모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초기의 실무자는 스스로 해법을 찾는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업무의 기획과 설계도서의 검토는 장기인의 역할이었지만, 내용 전개는 전적으로 실무자의 몫이 되었다. 초기 직원들에게

설계 전과정을 스스로 다루는 업무는 고생스러운 업무로 기억됨과 동시에 독립적인 설계 역량을 기르는 방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업무는 독보적으로 박식하고 이론이 탄탄한 전문가로서 장기인이 갖는 전문성을 배우려는 실무자의 고군분투이기도 하였다. 퇴사 후 실무자들은 재직 기간을 통해서 완벽한 업무기술을 체득한 기술자가 되었다고 회고하였지만, 당시에는 정확하고 엄격한 장기인의 기준에 맞는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바쁜 일정이 반복되었다고도 기억한다. 물론 여기에는 회계, 행정 등의 업무도 포함되었다.

전통건축 분야로의 전향

1960년대는 건축계에서 한국성을 격렬하게 논쟁하는 시기였다. 전후복구에 매진하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리국의 국립중앙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설계경기와 당선작인 강봉진의 계획안이 보여주는 한국건축에서 전통계승에 관한 논쟁, 그리고 김수근의 부여박물관 건축에서 촉발된 왜색논쟁이 핵심을 이루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통계승에 관한 논쟁은 1966년 4월 신문지상을 통해 당선안이 소개되면서 시작되었다⁹. 문화재관리국의 전통 계승에 대한 완고한 의지는 박물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의 격렬한 문제제기에 의해 격한 찬반론이 계속되었다. 1967년 2월『공간』지에서는 1966년 11월에 발표된 수정 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 지식인 35명의 의견을 담은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지속되었다¹⁰.

부여박물관 왜색논쟁은 1967년에 부각되었다. 부여박물관의 지붕 형상이 일본 신사 지붕 양식과 유사하다는 건축가 김중업과 국사학자 김철준의 문제제기 그리고 건축가 개인의 현대적 건축양식을 표현했다는 김수근의 반론이 신문지상에서 격렬하게 제기되었다¹¹.

바로 이 시기에 장기인은 제2대 대한건축사협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순하(金舜河) 초대회장이 취임 이듬해인 1966년 12월 26일에 별세하여 당시 제1대 임원 중 이사를 맡고 있었던 장기인이 2대 회장에 취임하였다¹². 보궐 성격의 회장직이었기 때문에 그의 임기는 채 일 년이 되지 않았다(1967.01.29~1967.09.29).

장기인은 국내 건축사를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써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다고 전한다. 논쟁을 주도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 모두 국내 건축계의 대표 주자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건축 프로젝트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가 비판하는 구도에 대하여 건축사 대표 기관이 적합한

9 강난형, 「국보건설단 강봉진과 국립종합박물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3집, 2017.7

10 「특집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심포지엄 시리즈1: 국립종합박물관의 경우」, 『공간』, 1967.2,

11 안창모, 「(자료)1960년대 한국건축의 반공, 전통이데올로기와 모더니티」, 건축역사연구, v.12, n.4, 2003.12

12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소개 자료 참조

13 「매일경제」, 1967.09.14., 「『撤去해야한다』日本神社様式扶餘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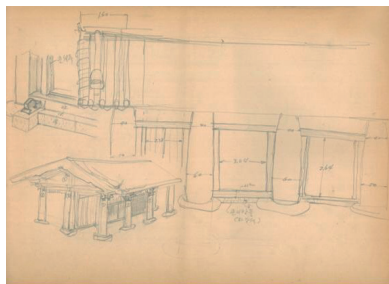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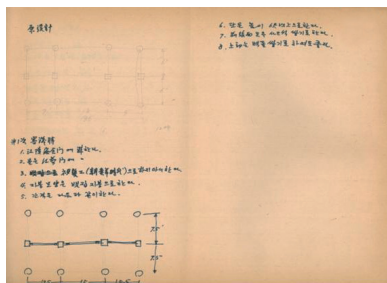
묘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67년 9월 13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신문화관에서 ‘부여박물관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본 신사를 닮은 박물관의 철거와 재건립의 의견을 도출하기도 하였다¹³. 이런 상황은 문화재를 대하는 정부의 시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장기인 스스로도 건축 전문가로서 한국 고유의 건축문화를 탐구하는 당위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교육 받은 기술 중심의 커리큘럼에 비해 당시 건축의 빠른 변화 속도에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영향이 적은 전통건축 분야에서 외연을 확장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전한다.

1967년, 장기인과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주업무를 문화재 설계 분야로 전향하고 폭발적 수량의 관련 용역을 수행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실무를 통해 찾으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설계사무소 운영을 위한 수익구조 개편 측면에서 판단한 전략이라는 증언도 있다. 1966년만 해도 창동 삼양제지 공장 건물 신축공사, 창경원 동물사 신축공사 등 일반건축 설계용역도 수행하였지만, 당시 일반 건축물의 설계용역 수주가 쉽지 않은 것도 문화재 설계로 전향하는 간접적 요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배경으로 장기인은 문화재 경내의 신축공사, 문화재의 보수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 건축문화재와 관련된 경력을 축적한다. 1966년 12월의 경주 불국사 사리각 신축공사는 장기인의 초기 문화재 신축공사로 기억되고 있다. 삼성건축 아카이브에 소장하고 있는 금산사 대적광전 보수공사, 창덕궁 승화루, 도갑사 해탈문, 별교 홍교, 정림사지 5층 석탑, 화엄사 대웅전 등의 실측자료는 모두 1967년 하반기에 작성되었다.

이 중에서 1967년 건립된 탑골공원 삼일문은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물인 강릉 객사문을 실측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된 사례이다. 장기인이 직접 조사하고 메모한 자료를 살펴보면, 삼일문 설계는 객사문을 따른다는 설계방향이 관련 심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객사문을 답사하고 실측했음을 알 수 있다. 객사문의 칸살이, 부재의 명칭과 크기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설계의 열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세심한 투시도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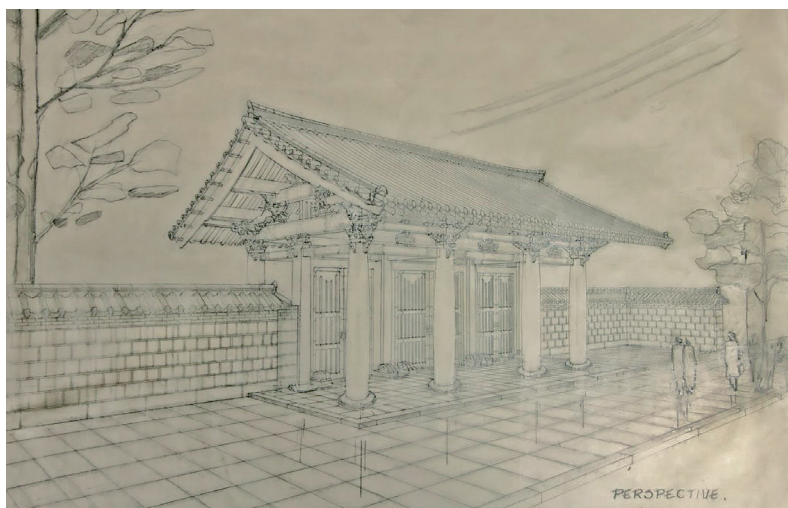
당시 실무 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건축사사무소의 문화재 건축물 실측용역은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실측조사의 효율적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장기인과 직원들이 현장과 사무실에서 긴밀하게 의논하였다고 한다. 보수공사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현장실측, 신축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건축문화재의 실측조사는 한옥에 대한 일반적 관심 또는 현대건축에서의 전문성



삼일문 건립 심의 의견과 원 설계 방향(좌), 강릉 객사문 실측자료(우)

『강릉 객사문 사진·실측장(1967)』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삼일문 투시도(1967)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과는 또 다른 영역이었다. 실측과 도면작성 그 자체가 완결성을 갖는 독립된 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측하는 범위, 내용과 방법은 사무실에서 도면을 작성하는 연속 과정의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정착될 수 있었다. 기둥간격과 기둥크기, 벽체의 두께와 창호 위치 등 평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실측하고, 각 부재의 높이와 조립방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면과 입면을 실측한 후 각각의 중요한 디테일을 기록하는 프로세스를 확정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줄자에 불과한 초보적인 실측장비로 실측하기 어려운 높은 위치의 서까래와 추녀 등의 부재를 실측하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실측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높은 곳에 있는 부재를 실측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에 자를 부착해서 사용했던 방식은 후에 토목측량에서 사용하는 스타프로 대체되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부재의 수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꼭 사진으로 촬영하여 설계도면 작성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기와와 서까래 개수 등을 일일이 세는 단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장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일환이었다. 이와 같이 초기의 실측 작업은 합리적인 방식을 스스로 찾아가는 실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건축양식연구보고서 용역

1966년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회 조직과 기구가 대폭 증가되어 새로운 국회의사당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67년 의사당건립 부지로 여의도가 선정되었고 1968년에 건축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다¹⁴. 이 과정 속에서 국회사무처에서는 기본설계연구의 일환으로 ‘한국건축양식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였다.

‘한국에 현존하는 고건축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다 민주적인 건축문화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한국 고유의 건축물을 발굴하고, 이를 분석하여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 및 설계에 긴요한 참고자료를 얻고자’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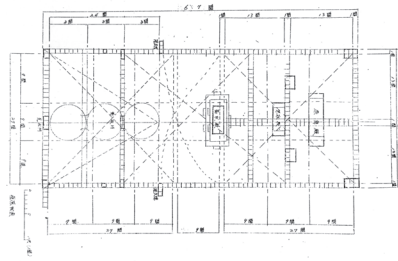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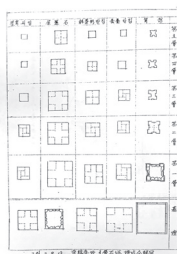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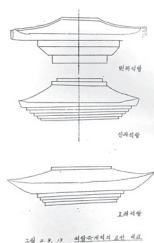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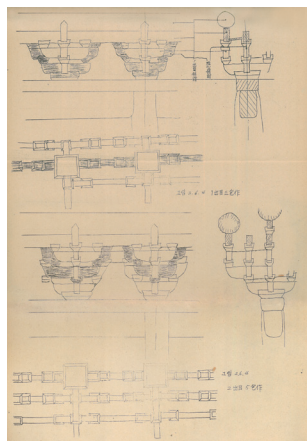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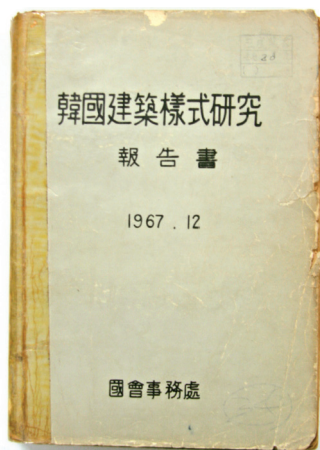
한국건축양식연구는 국가적 상징이 될 국회의사당 건립을 명분으로 국내 건축문화재 중 우수한 사례를 통해 현대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건축계의 한국성 논쟁과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건축 사업에서 전통성을 주목하는 인식이 나타났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 작업은 실측과 연대추정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문화재 조사와는 달리 현대건축에 응용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재를 목록화 하고 각각의 기법을 재해석한 첫 시도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¹⁶.

그러나 1975년 8월 15일에 완공된 국회의사당의 최종 형태는 한국 전통건축을 응용하기 보다는 서양의 고전건축 사례를 따르거나 혹은 중앙청에 비견할 만한 ‘돔’이 있는 국회의사당 등과 같은 파편적인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지게 되었다. 전통의 적용은 경회루에서 차용하였다는 거대한 열주 그리고 실내장식에

14 한동수, 송기형,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설과정과 그 의미」,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1

15 국회사무처, 「한국건축양식연구보고서」, 1967, 3쪽

16 김지홍, 「1960~70년대 국가 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한국건축양식연구보고서(1967.12)」 표지 및 내용 일부 발췌

출처 : 삼성건축사사무소 소장

일정이 수립되었다. 각 대상별로 배치도, 평면도각층, 기초, 지붕, 천장, 입면도각면, 단면도2방향, 상세도, 분석도와 응용도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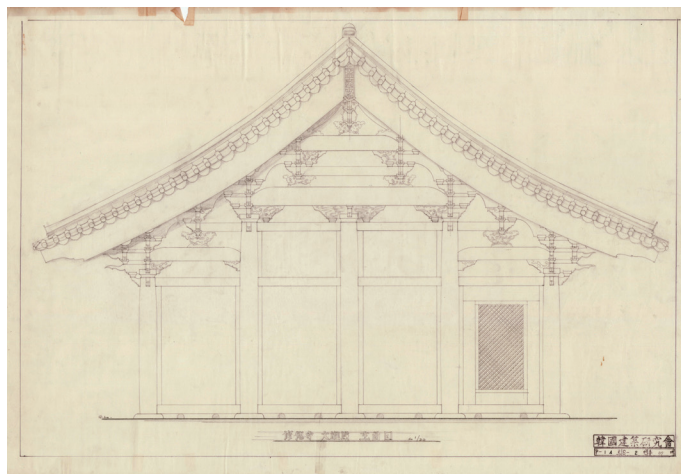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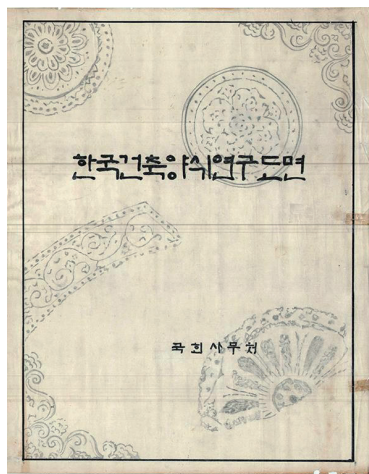
한국건축양식연구는 계획서가 작성된 1967년 12월에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국회의사당을 건립함에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문화를 반영하여 민족적인 긍지를 부각시키고자 참고문헌 수집 등 예비조사를 거쳐 각 전문가로 하여금 한국 현존 전통건축 29개소를 대상으로 배치계획, 공간구성 및 세부외장 수법 등을 실측조사 연구한 결과이다. 조사를 통해 건축문화재 29개소의 사진435매과 도면164매를 수록한 결과뿐만 아니라, 건축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전통건축의 수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실측조사 자료와 구별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⁸. 공궐 배치의 평면 비례를 분석하고, 석탑의 입면 비례를 분석하는 등, 실측 결과물에서 일종의 계획 수법을 모색한 노력이 해설도판과 설명문으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18 김지홍, 앞의글, 2014, 166쪽

삼성건축사사무소 실무자에게 있어서 한국건축양식연구의 본질은 건물과 석탑을 포함한 중요 문화재 건조물을 직접 실측하고 도면으로 작성했다는 점에 있다. 이전의 실측조사가 보수공사를 위한 실측조사, 또는 삼일문과 같이 설계 참조자료로서의 실측조사였다면, 이 도면은 실측자료를 그대로 도면으로 표현하는 기록 작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두세 명의 후임직원을 데리고 직접 실측하고 도면을 그렸다는 실무자의 기억은 정확한 실측과 도면작성을 추구하는 업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다만, 「한국건축양식연구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작성된 도면집이 현재는 삼성건축 아카이브에 도면 표지를 포함하여 총 17매만 확인되었다. 수량이 적어 당시 실측조사의 완성도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실측조사의 수법과 도면 작성법이 이미 숙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된 신속한 실측조사 작업은 장기인과 삼성건축사사무소 직원이 수행한 문화재 보수설계의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큰 밑거름이 되었다. 직원들은 양식조사 업무를 ‘5대궁 설계’로 이해할 정도로 양식조사 사업의 체계를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9개 건축물을 실측하고 도면세트를 만드는 작업이 숙련된 직원들의 손을 절대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실측조사의 기초적 체계는 이전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실무 작업을 통해 이미 연마되었다고 하겠다.



한국건축양식연구도면(1967) 표지(좌), 수덕사 대웅전 입면도(우)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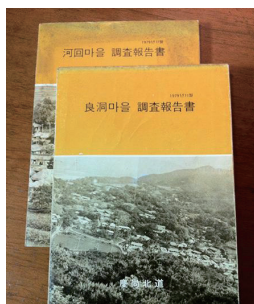
대형 프로젝트와 설계업무의 체계화

전방위적 복원설계

1970년대의 삼성건축사사무소는 매일 야근을 반복할 정도로 많은 수의 문화재 설계 업무를 반복하였다. 이미 60년대 후반에 문화재 설계 분야에 매진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계업무의 기초체계, 즉 용어, 구조, 재료, 시방, 내역 등의 근간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기인의 학술적 실무태도가 용역수주의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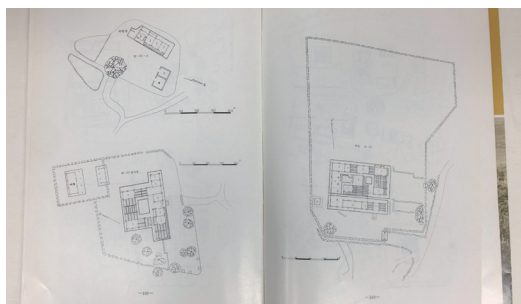
이때의 문화재업무는 당시 정권의 의지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이 적지 않았다. 댐 건설 때문에 진행되는 안동댐과 충주댐 수몰지구 이전 계획,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종합학술조사, 각종 국방 유적을 비롯하여 불교, 유교 관련 문화재의 복원, 정비 등이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방에서 실측설계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발주처인 지자체 공보실에 문의하여 해당 용역의 담당자를 확인하고, 방문 당일 면담 후에 동반하여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공용차를 사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택시를 대절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평판측량을 위해서 이기점移器點, T.P, Turning Point을 설정하고 말뚝을 박은 뒤 업무를 분담하고 작업 일정을 수립하였다. 전체 배치 조사를 비롯하여 조사 대상 건물을 분담하였다. 조사 시작 전에 야장에 조사 대상 전체를 미리 스케치하였고, 실제 조사 중에는 야장 스케치에 치수를 기입하고 메모를 기록하는 등 신속한 작업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실측조사 완료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심사를 받은 후에 발주처에 납품할 수 있었다.



양동마을·하회마을 조사보고서 「양동마을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실측도면

출처 : 저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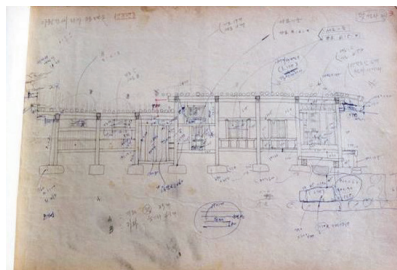


출처 : 저자 소장



침수 중인 수물지구에서 실측조사

출처 : 양경선(삼성건축OB, 전 수아건설(주) 이사) 소장



안동수물지구 실측장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다행히 당시 실측조사 실무자들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태도는 시골인심 그대로와 다르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소위 ‘나랏일’ 하는 실무자에 대한 마을의 존중 덕분에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조사는 요즘과 같은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다소 거리를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전통마을 조사는 포집 건물을 실측하고 내역을 만들던 실무자들에게는 다소 손쉬운 조사 대상이었다. 전통마을 조사는 당시의 보수 복원 설계와 달리 기록을 위한 조사업무였기 때문에 미리 약속된 절차에 따라 건물 양식을 조사하고, 건물의 상황을 도면으로 작성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수물지구의 현황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다른 점은 이미 댐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마을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진행했다는 점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측조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만 확인 가능한 조사 정보가 누락되었을 경우 물이 찬 이후에는 조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긴박한 실측조사를 통해 안동댐 수물지구는 안동민속박물관 야외박물관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는 ‘구름에’라는 한옥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니¹⁹ 고된 노고가 건물의 수명을 확대시켰다는 보람이 되었다.

국방 유적은 특히 성곽의 보수공사설계 분야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강화읍성과 외성, 서울성곽, 수원화성의 설계 작업은 성곽 실측설계의 방법을 모색하고 노하우를 집적하는 연속적인 기회가 되었다.

성곽은 토목 분야의 업무였다. 다만, 건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토목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었다. 이런 배경에서 부국건설에서 장기인과 함께 근무했던 토목기술자가 삼성건축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이전까지 건축기술자가 알음알음 진행하던 어수룩한 토목실측을 토목기술자를 통해 완성도 있는

¹⁹ 전통 리조트 구름에(<http://www.gurume-andong.com>)

토목설계도서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이 기회를 빌려 평판측량, 레벨기를 사용한 고저측량, 거리를 측정하는 트랜시트 측량의 기법이 실측설계에 도입되었고, 성토와 절토 등의 토목공사용 품셈이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성곽 공사의 자재 운송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나르는 목도 또는 이동거리 양끝을 연결한 끈에 자재를 실어 보내는 삭도(索道)에 대체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공사비는 흙과 석재의 자재량 뿐만 아니라 1인당 운송무게를 감안한 운송비의 정확한 계산이 중요하였다. 장기인의 연구를 통해 체계를 마련한 문화재품셈에 토목설계의 노하우가 결합됨으로써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인정하는 성곽 복원설계 도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수년간의 반복 작업을 통해 건축설계 실무자에게 온전하게 전수되었고, 관계 기관을 통해 타사에게도 전파될 수 있었다.

사실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토목 실측설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례는 경주 안압지와 현충사 주차장이 처음이었다. 이때의 시행착오와 토목기술자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연속된 성곽 공사에서는 토목설계의 노하우가 문화재 실측설계에 적용될 수 있었다.

성곽의 실측조사는 성곽 상하부의 수평 위치와 고저차를 측정하는 토목측량과 각 부분별로 입면을 측정하는 건축 조사로 구성되었다. 토목측량은 이 기점을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사용하였다. 문화재 토목측량은 통상의 토목 시공 현장에서 나대지를 측량하는 작업이 아니라 완성된 건축공간을 측량하는 후작업이라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측량 방식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당시 토목현장의 측량기술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다만, 토목실측과 동시에 건축 조사에서 현장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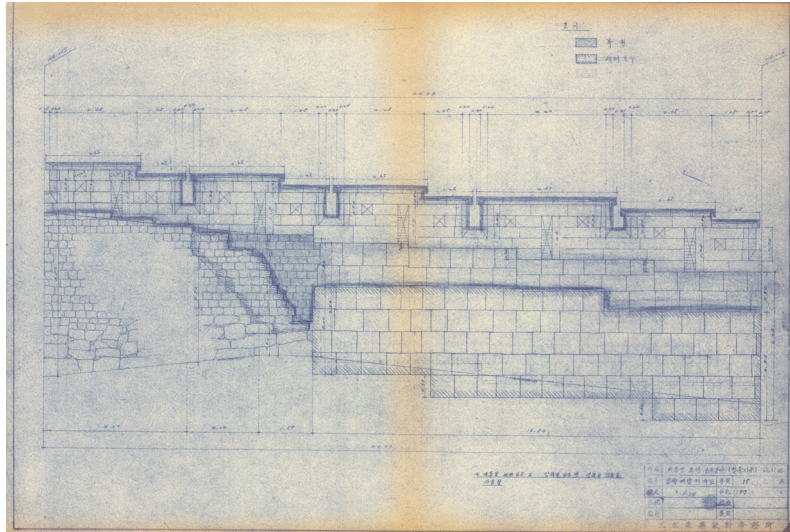
성곽 건축조사의 문제는 균질하지 않은 성돌이 쌓여서 만들어진 높고 긴 성벽 전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실측하고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었다. 실무자들은 대체로 20m 길이 간격으로 성벽을 구분하여 실측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성벽 상단 군사들이 몸을 숨기는 여장(女牆) 덮개돌에서 긴 막대기를 지면에 평행하게 성벽 외부로 돌출시키고 막대기 끝에 다림추를 달아내려 성곽의 총 높이를 측정하였다. 성벽이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기울어진 뒤물림 거리는 성벽 높이 측정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되, 지면에서부터 일정한 높이마다 다림추와 성벽돌과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다만, 성벽 뒤물림의 조사 작업은 성벽 외측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다리의 가용높이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성벽 외부 형상이 확인된 후에는 20m 너비로 구분된 단위 성벽의

입면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숙종대의 성벽은 나름 균질한 사각형의 성돌이 사용되었지만, 그 이전에 축조된 성벽은 형태가 제각각인 성돌이 사용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 형상을 정물화 그리듯이 일일이 따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도 않았다. 대안으로써 20m 너비의 성벽을 다시 5m 단위의 너비로 세분하고 세분한 지점에서 성돌이 위 아래로 만나는 위치를 바닥에서부터 차례로 실측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동시에 20m의 성벽을 대략 4~5m정도 수평 거리를 두고 가능한 반듯하게 필름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건축조사는 20m 단위 성벽의 열개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사무실에서 성곽 입면을 도면으로 작성할 때에는 현장에서 촬영한 필름을 활용하였다. 20m 간격의 성곽의 외곽선을 1:30 축척으로 작도한 도면을 벽에 붙인 후에 슬라이드 영사기로 해당 성곽의 입면을 촬영한 필름을 투사하고 슬라이드 영사기의 이격거리와 투사 각도를 조절하여 도면 속 20m 성곽 외곽선과 맞추어지도록 슬라이드 영사기를 고정하였다. 그리고 도면 위에 투사된 사진 속 성돌을 따라 베껴그리면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성곽 도면이 작성될 수 있었다. 다만, 성벽 자체가 지면과 수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위별로 슬라이드 영사기를 재조정하는 등 도면과 사진을 맞추는 작업이 절대 녹록지 않았다. 또한, 성벽을 필름으로 촬영하는 작업은 성벽의 높이에 비례하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성벽의 경우는 왜곡된 사진을 바탕으로 감각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교육지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성곽과 성돌의 높이와 너비를 실측하고 사진에 기록된 입면을 도면으로 전사하는 작도 방식은 당시 시공회사의 격찬을 받을 수 있었다. 도면만 보고 산출한 시공회사의 자체 공사내역서가 시행내역과 상당히 가까울 만큼 도면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물론,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보수공사가 진행될 경우 성돌이 해체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는데, 사라질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속 좁은 불평도 적지 않았다.

불규칙한 성벽의 입면을 일종의 투박한 그리드grid, 격자를 사용하여 실측하는 방식은, 비슷한 시기 불국사 본존불 실측 작업을 수행하는 미술사학 분야의 방식이 참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대형 조각상을 도면으로 남기기 위하여 그리드를 지면과 직각되도록 이중으로 세우고, 동일한 격자 위치에서 본존불의 형상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그리드가 비정형 물체의 기록을 체계화하는 수단임을 이해한 경험은 평균 높이 5~8m, 전체길이 수십km에 이르는 성곽의 실측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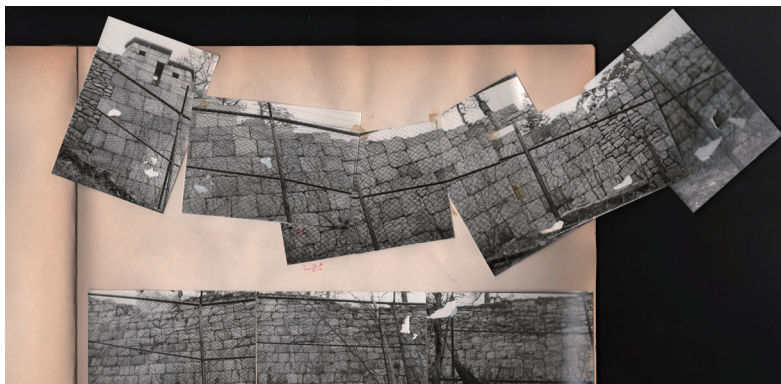
서울성곽 부분 입면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서울성곽 전체 배치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서울성곽 현황 사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콘크리트 한옥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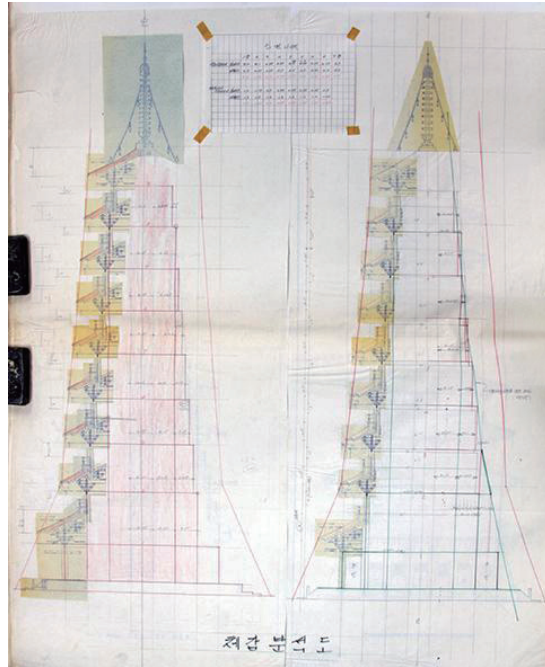
1970년대 경주지역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기에 해당하는 건축유적의 보수 및 복원공사가 다량으로 진행되었다.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을 국내기술로 복원하려는 시도는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기인의 주도로 황룡사 목탑의 복원안이 만들어졌고, 우연한 기회에 콘크리트로 복원하는 계획안까지도 만들어졌다. 목재보다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사용성을 높이고, 승강기를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내구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콘크리트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안은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했지만,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물성이 신축 한옥의 형태와 기능을 확대하는 신소재로 각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를 사용한 대형 한옥 형상의 공공건축물은 당시 정권의 지원을 통해 더욱 활성화된 바 있다.

1976년에는 경주 남산 화랑의 집 근교에 신라의 삼국통일 위업을 기리기 위한 삼국통일 위인전, 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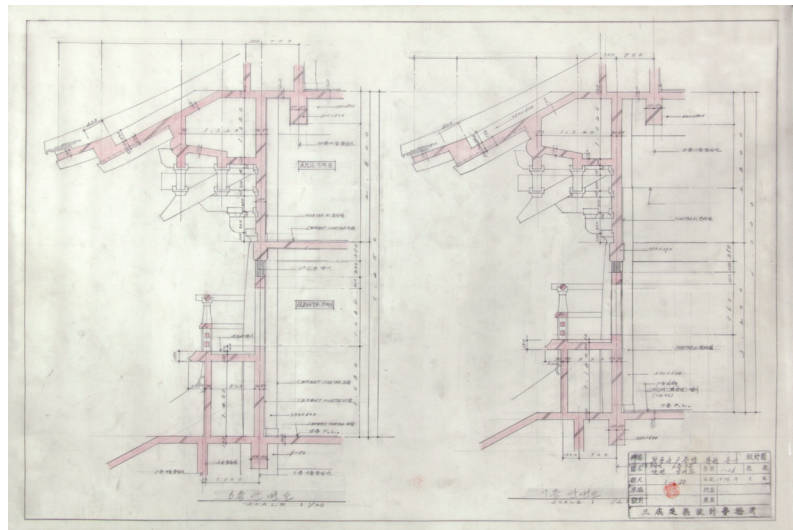
황룡사 9층 목탑 복원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황룡사 9층 목탑 체감분석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황룡사 9층 목탑 콘크리트 복원계획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20 문화재관리국, 「완주 화암사 실측조사 보고서」, 1985

21 경향신문, 1975.08.19., 「새 어린이會館 開館 눈앞에」

통일전이 건립되었다. 1975년 설계 과정에서 신라의 건축양식을 살리려는 의도는 하양식을 콘크리트 한옥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하양식 건축물인 완주 화암사가 보고된 것이 1985년이므로²⁰, 당시 국내에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건축양식이 적용된 셈이다. 전통양식을 활용한 건축물에 이전과 다른 형태를 구현하여 기념하려는 건축계획 측면의 의도가 만들어진 학구적 건축설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현대적인 용도로 조성된 시설로는 1975년 완공된 능동 어린이회관이 있다. 이 중에서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과학관과 지상2층의 문화관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수용한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건립되었다²¹. 1976년 용인 호암미술관 설계에서는 석재를 짜맞춤 식으로 구성한 석조 기단부로 1층을 구성하고 한옥을 구현한 목체부로 2층 전시관을 계획하였다. 전체적으로 불국사가 연상되는 구성이었는데, 건물은 ㄷ자형 평면으로 계획하여 중정과 외정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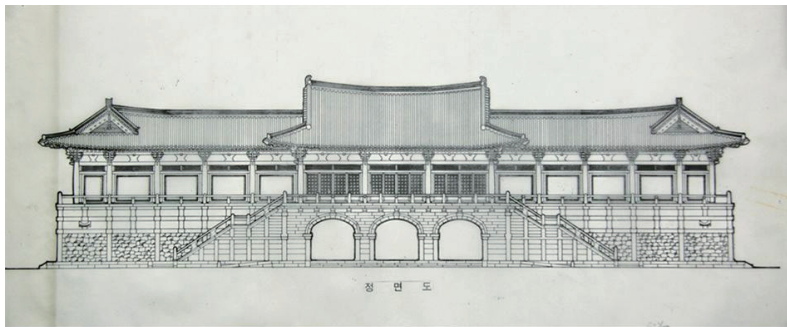
경주 통일전

출처 : 저자 촬영



어린이회관 과학관 전경

출처 : 경향신문(1975.8.19.), 「새 어린이會館 開館 눈앞에」



호암미술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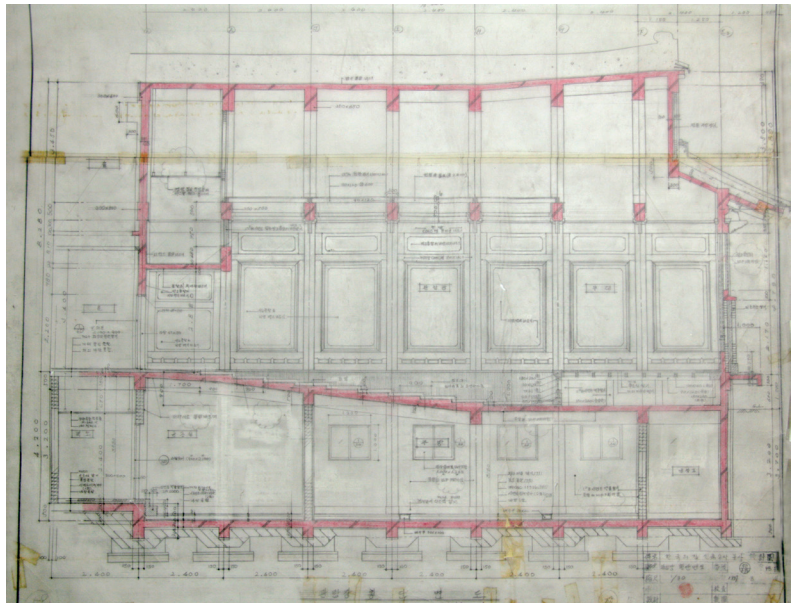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22 안창모, 「한국근대건축에서 식민지관광주의와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 철도역사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v.11 n.2, 2002.06

23 콘크리트 한옥에 대한 세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안창모,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의 사회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 재고」, 건축, 53(9), 2009.09, 36-49쪽을 참조할 수 있다.

콘크리트 한옥은 일제강점기 개성박물관, 몇몇 철도역사에서부터 나타난 한국건축의 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구조성능이 월등한 콘크리트가 목조로 지어지는 한옥을 대체함으로써 건축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필요로 하는 공간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옥 구법과 재질이 갖는 고유성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지향적인 수법으로 혹평하지만²³, 한옥의 건축적 규범과 현대적 공간계획 그리고 시공방법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접목되어야 하는 특별한 영역임에는 틀림없었다. 기존 한옥에서 시도되지 않은 대형 평면에 비례하는 입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옥의 평면·입면·단면 및 각 부재의 비례체계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기둥·보·도리에 반영되는 단면크기는 콘크리트 구조해석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를 통한 한옥의 새로운 시도는 1979년 서울시 중구 ‘한국의 집’ 설계에서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었다. 해린관, 소화당, 환벽루, 봉래당 등의 중심 목조 건물에는 기둥 간격을 7.2m로 설정하고 대형 대들보를 사용하여 당시로서는 대규모 한식목조 실내공간을 구축하였고, 민속극장은 주요 구조부를 콘크리트로 계획하면서도 연접한 목조건축과 견줄 수 있는 한옥의 디테일을 표현하였다.



한국의집 공연장 단면도(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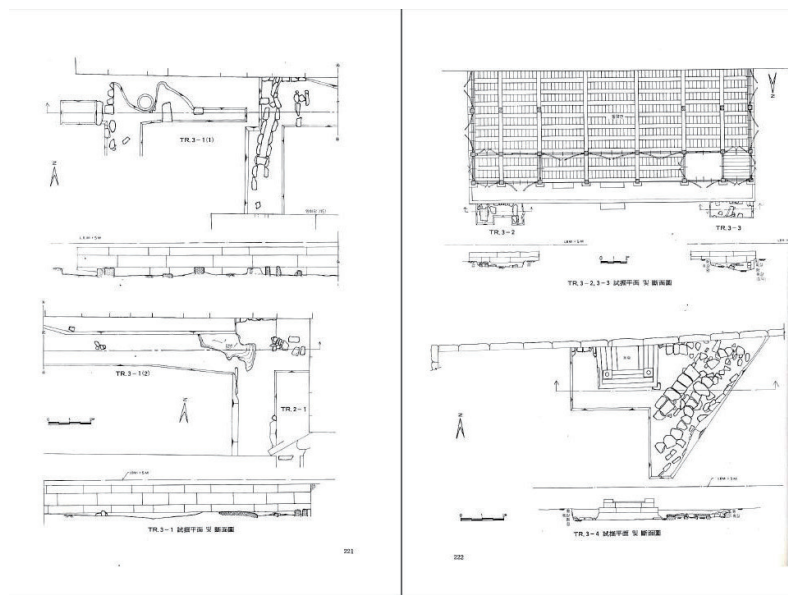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정밀실측 업무의 본격화

첫 궁궐 복원설계, 창경궁

1981년 11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 연맹 AGF 총회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1986년 아시안 게임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최가 예정된 대규모 국제행사의 준비 사업으로써 도심에서 포화상태로 운영 중인 창경원을 과천으로 이전하고, 창경궁을 복원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창경궁의 복원설계를 삼성건축사사무소가 맡게 되었다. 특이할 점은 남강도건축사회사가 발굴조사를 담당하지만, 유구의 사진촬영과 발굴 도면작성은 삼성건축사사무소가 별도로 용역 계약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이다²⁴. 창경궁의 복원 사업은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목표하였기 때문에, 복원설계의 기초가 되는 발굴도면을 설계사에서 직접 담당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발굴조사는 1984년 8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진행되었고, 복원공사는 1985년 4월부터 1986년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복원설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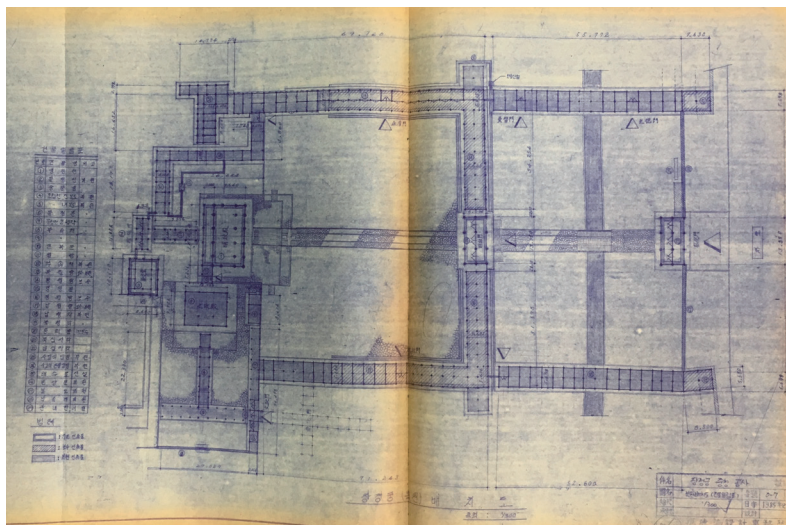


24 문화재관리국,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 1985, 조사방법 참조

문화재관리국, 「창경궁 중건보고서」, 1987, 추진경위 참조

창경궁 발굴도면

출처 : 문화재관리국(1987),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



『창경궁중창공사설계도』 최초납품본(1985) 중 복원배치도(건물일람표)

출처 : 대연건축 소장

1985년 2월에 최초 납품되었으므로, 발굴조사 기간 동안 발굴도면과 복원설계도면이 함께 신속하게 작성되었다. 그 결과 1986년 8월 23일 창덕궁에서 출발한 어가(御駕)가 창경궁에 당도하는 도시 퍼레이드를 포함하는 창경궁 중건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었다.

창경궁 복원설계는 발굴도면을 먼저 제작하는 과제가 있었다. 각종 시행착오 후에 명주실로 지표면에 격자를 만들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발굴기관에게는 통상적인 방식이었겠지만, 설계사무실에서는 그리드를 기초로 그림과 같은 발굴도면을 그리는 이색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었다.

복원설계에서는 발굴 결과가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 다만, 발굴결과에서 정확한 기둥간격을 확인하고 주칸(柱間)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건립 당시의 도량형인 영조척(營造尺)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도출은 복원설계의 신뢰성과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발굴을 통해 초석 하부의 적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적심 간격에서 일정한 치수 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 큰 애로사항이 되었다. 기둥간격 실측치는 짝수로 설정하는 것이 차후 평균치를 산출하거나 영조척을 계산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장기인의 조언도 있었지만, 그러한 노하우로 쉽게 극복할 사항은 아니었다. 또한, 명정전 회랑, 명정문 회

랑, 홍화문 회랑이 균질한 직교 체계를 갖지 않고 굴절점이 있다는 점도 복원설계를 쉽게 확정하기 어려운 배경이 되었다. 다행히 복원설계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의한 문화재관리국과 자문위원과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창경궁 복원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복원설계는 건축 문화재 설계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창경궁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조선 고적도보」 속 유리원판 사진, 1907년경에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동궐도형과 동궐도가 있지만 부분적인 자료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측설계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도면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발굴조사 도면작성과 복원설계가 통합되어 진행된 점은 이례적인 작업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설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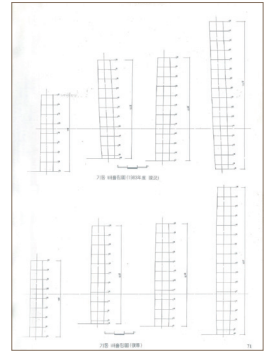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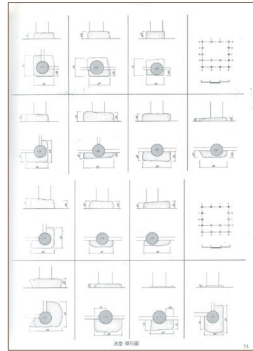
정밀실측설계업무의 노하우

1981년 상주 양진당이 세밀화 수준으로 실측도판이 만들어진 바 있으며, 1985년에는 국내 유일의 하양식 건축물을 알리기 위한 「완주 화암사 실측 조사 보고서」가 정밀실측조사를 통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정밀실측조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3년 「한국의 고건축」 제1호를 발간한 이후 연속하여 간행물로 제작해 왔다. 이 자료에서는 전국의 중요건축물에 대한 실측조사와 설명 자료를 혼합하여 기록 자료를 만들었으나, 주요 치수만 표기하는 약실측²⁵ 수준의 도면이었다. 「한국의 고건축」이 정밀실측조사를 수록한 것은 1984년에 간행된 제6호가 시작이었다. 여기에는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조사한 강화정수사 법당의 정밀실측자료가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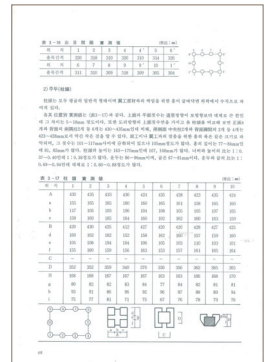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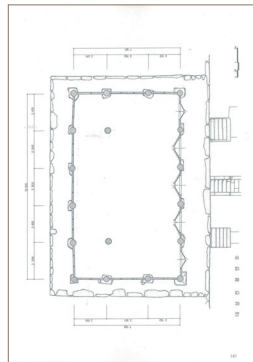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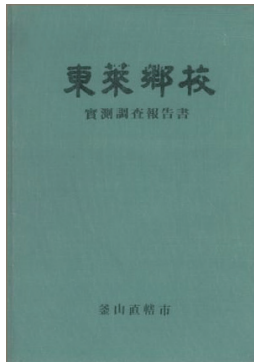
이후 문화재관리국 및 지자체로부터 정밀실측조사용역을 수주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간행된 「강원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에는 홍천 수타사, 강릉 경포대, 속초 신흥사의 실측조사 자료가 수록되었고, 강원도에 이어 자체 실측조사 시리즈를 시작한 경기도에서는 1989년 첫 번째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를 간행하고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조사한 용주사 대웅보전과 천보루의 실측조사 결과물이 수록되었다. 1990년에는 봉정사 화엄강당의 정밀실측조사 결과물이 제12호 「한국의 고건축」에 수록되었다. 한편 단일 건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실측조사 결과물로는 1988년에 조사하고 1989년 간행된 「동래향교실측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25 약실측이란 약식실측의 줄여 부르는 말로써, 부재의 세세한 치수보다는 기둥간격, 도리 높이 등 주요 구조체의 크기나 간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며 정밀실측보다 간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의 고건축(1990)』 제6호에 수록된 정수사 법당

출처 : 대연건축 소장



『동래향교실측조사보고서(1989)』

출처 : 대연건축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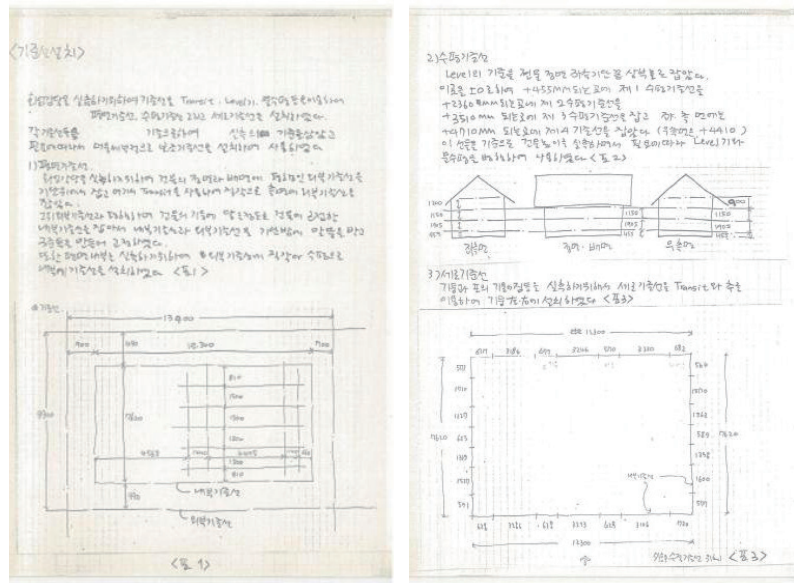
건축문화재의 정밀실측조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겠다. 이전까지의 건축 문화재 설계 업무가 보수·복원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의 공사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도서였던 반면, 정밀실측조사는 기록을 위한 실측조사였기 때문에 실측장야장, 현황사진, 도면과 원고보고서로 구성되는 새로운 설계자료 방식이 요구되었다. 또한 부재의 세세한 크기를 실측하는 정밀측정실측조사의 약어과 기둥 간격, 도리 높이 등 주요 치수만 실측하는 약실측이 구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밀실측 설계도서는 상세한 실측결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실측 설계 결과물과는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장부재의 분할 실측, 동일부재의

위치별 반복 실측, 부재의 변형 내용과 부재 수리 이력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배흘림기둥, 대들보, 외목도리, 평고대 등 길이가 긴 부재는 부재 단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30cm약 1자 간격으로 변형 추이를 기록하였다. 주두, 소로, 침차 등 건축물의 사방에 동일부재가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 각각의 세부 치수를 표로 정리하였다. 부재 간 틈이나 보수공사의 이력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현황을 면밀하게 기록하는 목적의 정밀실측조사는 보다 구체적인 실측조사 방법론이 필요하였다. 부재의 휨, 어긋남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1984년의 강화 정수사 법당 당시에만 해도 체계적 노하우가 부족하였다. 내부적으로 정밀실측조사의 체계를 갖춘 것은 1980년대 후반 연속적으로 정밀실측용역을 진행하면서 부터이다.

규준선을 사용하여 평면과 입면, 단면 조사에 사용할 기준선을 설치하고 가상의 격자체계를 만든 후, 여기서 각 부재의 형상을 수치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개별부재의 크기를 낱말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방식은 정밀실측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실무자 사이



정밀실측조사의 평면, 입면 기준선 설치와 실측방법의 설명

출처 : 『봉정사 화엄강당 약식보고서(1987)』 내용 발췌, 대연건축 소장

에서 지속된 고민은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론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작업으로 건물을 실측할 경우, 조사 부위가 건물 전체의 형상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건물의 평면 실측은 대체로 지상 1m 높이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평면 기준선은 실내 바닥 높이에 가깝도록 낮게 설치하였다. 이 경우 기준선이 설치된 기둥 하부 위치의 건축정보를 주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부재의 부분 또는 전체가 다른 부재에 매입되어 있어 해체공사가 아니면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일부 수장재가 원기둥과 맞닿아 있을 경우에는 수장재의 노출부위가 곡면 형상이 되기 때문에 수치를 기입하기 애매한 부분이었다. 고식 건물일수록 곡선형으로 만들어진 대들보의 정확한 형상을 수치화하는 것, 공중에 떠있는 추녀와 사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 등은 지속적인 고민의 대상이었다.

입면은 지반, 기단, 마루, 도리, 용마루의 높이를 기점으로 삼았다. 물수평으로 동일한 높이를 확인하고 기둥과 벽에 수평기준선을 설치하면, 건물의 기울어짐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입면 실측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모서리 기둥이 다른 평주보다 큰 높이를 갖는 귀솟음과 기둥이 내측으로 기울어진 안출림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귀솟음은 미약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기둥의 세부 치수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기둥 전체를 초석 상면에서부터 30cm 간격으로 구분하고 각 지점에서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둥의 좌우 경계선을 측정하는 작업은 자연목 기둥의 건조수축, 건물 자중에 의한 기둥의 기울어짐, 기둥의 흘림이나 배흘림 등 기둥 자체의 형상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방안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정밀실측은 사진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자료가 용역 산출물로 설정되어 있기도 했지만, 현장 조사 후 사무실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측장에 표기되지 않는 현장 상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필름 카메라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절약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도면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매수를 더욱 확보하려는 의욕이 항상 애처로운 갈등이었다. 현장을 기억하는 효과적인 한 장의 사진을 담으려는 실무자의 노력은, 개개인의 카메라 촬영 실력을 키우거나 아예 중형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진촬영을 취미로 다루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정밀실측조사의 고민은 해당 건물에 대한 최초의 세밀한 조사에 임하는 담당 실무자의 직업적 사명감에 기인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확한 실측 자료를 남기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는 해를 거듭하며 합리적으로 다듬어졌다. 사진

촬영을 꼼꼼하게 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건탁^{乾拓}, 물을 적시지 않는 탁본 방식으로 현존 자료를 남기는 등의 기술개선이 이를 보여준다. 이때의 고민은 초기 정밀실측자료에 실측방법으로 소개되었고, 이후 사무실의 후임 실무자들에게 자체 노하우로 전수되었다. 또한, 정밀실측 도면작성은 선임자의 작도법을 후임자에게 전하는 일종의 도제식 교육과도 같았다. 물론, 현장에서의 실측작업 역시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건축문화재 실측설계는 스스로 실무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전수하는 그들의 지식 전달창구가 되었다.

CAD설계시스템의 관문

캐드설계의 새로운 작도법

수작업으로 모든 설계도서를 산출하던 상황에서 PC의 등장은 새로운 작도방식을 숙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수고스러운 관문을 가져다주었다. 프로그램 습득의 난이도와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파악되지 않는 그 수고가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사무실 내부의 엄격한 테스트가 선결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는 Autodesk사에서 개발한 AutoCAD 이하 '캐드'라 칭함 R12와 이를 구동할 수 있는 업무용 PC를 처음으로 한 세트 구매하였고, 1993년에 최초로 캐드로 작성된 도면이 만들어졌다. 1992년 12월에 안성 청룡사 대웅전의 정밀실측 결과를 도면으로 제도하던 중, 대웅전 단집의 작은 공포들을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작도하고 있던 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결과였다.

이후 강릉시립박물관 신축공사에서는 구조도면을 캐드로 작성하였고, 1994년 경희궁 자정전 복원공사에서는 전체 건축도면을 캐드도 작성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물론, 이때에도 익공은 캐드도면을 출력한 후에 수작업으로 추가하였다. 당시 전문위원인 김동현 위원은 도면 자문을 마치 후에 “맛이 안 나더라”라는 후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소위 ‘손맛’이라고 하는 수작업 도면의 개성 있는 필체를 더 이상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캐드는 사용자에게 관계없이 기계적이고 정확한 도면선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드를 사용하는 도면 작업의 첫 단계는 캐드의 기능을 이해하는 일과 작도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었다. 수작업 도면에서 베테랑이었던 실무자가 하루아침에 초보기사가 된 셈이었다. 도입 초기에는 파일 저장의 실수와 보완, 캐드도면의 작도 미숙에 의한 수정 작업의 반복, 한글 폰트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 때문에 캐드 작업은 작업속도 면에서 개선된 바가 거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캐드가 요구하는 mm단위가 초래한 정확도였다. 수작업 도면에서는 제도의 기법과 제도펜 두께로 경미한 오차를 해결할 수 있는 융통성, 즉 소위 “어사무사”하게 작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캐드는 정확한 곡선식 반지름과 각도를 갖는 호, 타원, 방정식 등과 치수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도리하부는 도리 부재의 최하단면을 지칭하지만, 도리 단면이 원형인 굴도리는 하부에 윗면에 곡면의 홈이 파인 장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관상 도리하부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도면으로 작도할 경우, 도리 최하단부는 장

여에 가려서 작도될 수 없지만,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지시선은 도리 최하단부를 가리키게 된다. 이전의 수작업 도면에서는 적당한 지시선 위치와 도면 선두께로 이런 오차가 드러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소수점 mm단위까지 표현 가능한 캐드에서는 실무자 스스로 무시할 수 없는 애매한 표현방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선자연 부분의 기와 간격, 서까래 간격의 경우 실측할 때에는 각 부재의 단부를 직접 연결하는 3차원상의 최단거리로 측정하지만, 캐드에서는 이차원의 평면 또는 입면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새롭게 드러나는 오차도 있었다.

수작업 도면 수준의 정확도를 사용하여도 수십 년간 설계와 시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한옥도면에서는 캐드의 기능이 과잉기술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초기 캐드 도면은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의 기술과 의지가 관건이었다. 반복작업, 공동작업, 재작업이 가능하다는 효율성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창호 및 벽돌 부위 작도 등의 신속도 그리고 수정작업을 간편하게 하고 저장방식을 간소하게 하는 등의 장점은 분명하였다. 다만, 도면 자체의 개성이 상실되고 배율이 손쉽게 변환되는 기능 때문에 실무자의 스케일 감각이 무뎠다는 점은 단점이었다. 무엇보다 작도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진입관문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수작업이 캐드 작업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1999년의 일이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도면을 작도하는 초급, 중급 실무자들의 책상은 업무용 PC로 교체되었으나, 상급 실무자들의 주 업무는 도면을 검수하거나 도면을 참고하여 수기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제도판을 사용한 업무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업무용 PC와 캐드의 등장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전자장비의 활용을 유도하였다. 플로터와 모뎀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초기 펜 드로잉 방식의 플로터는 캐드 작도내용을 일일이 따라가며 선으로 직접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도면 한 장의 출력 속도가 신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퇴근 후 밤새 멈추어 있던 플로터는 펜 속 잉크가 굳어지기 때문에 출근과 함께 온수를 이용하여 굳은 잉크를 청소하는 준비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반면, 모뎀은 사무실 간에 캐드 도면 또는 스캔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매체로 인식되었다.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느린 통신 속도였지만, 사진 한 장, 도면 한 장을 전달하기 위해 우편이나 인편을 사용한 방식에 비교하면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는 방편이 되었다.

대체로 1995년경에는 국내 문화재 실측설계사무실에서 캐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캐드를 활용한 실측설계는 설계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새

26 AutoCad(캐드) Lisp(리습)이란 무엇인가 (<http://hoitallica.blogspot.com/2012/04/autocad-lisp.html>)

로운 전환기가 되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 디지털 장비의 구입비용과 업데이트 비용 부담 그리고 디지털 장비를 업무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실무적응력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SAMCAD의 고안

캐드의 도입은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토론거리를 생산하였다. 보다 정확한 작도기능에 부응하는 실측기술의 개발, 그리고 캐드 설계에서 사용되는 반복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의 고안 등이 그것이었다. 캐드작업의 기술개선은 AutoLISP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다. AutoLISP이란 AutoCAD의 앞글자와 List Processing의 준말인 LISP의 합성어로, AutoCAD의 사용자언어라고 할 수 있다²⁶. 캐드의 작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함수만 골라서 쉬운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전에 없던 명령을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캐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화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AutoLISP 개발은 캐드 자체 기능의 이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의 이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현업 실무자가 병행하기에는



SAMCAD의 한옥 관련 라이브러리

출처 : 삼성건축사사무소의 SAMCAD 사용화면 캡처

무리였다. 마침 직원의 소개를 통해 관심 있는 건축과 대학원생이 계약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한옥도면에 최적화된 LISP 개발에 매진하였다. 제도 화면과 레이어^{Layer}의 세팅, 자주 사용하는 캐드명령어를 윈손 자판만으로 사용하게 하는 입력키의 단순화, 창호와 담장 등의 자동설계, 치수선의 버블^{bubble} 표시를 비롯한 각종 기호들의 자동표기 등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목록으로 제안되었고 실무자의 작도 프로세스를 따라서 AutoLISP으로 개발되었다.

이때에 개발된 LISP과 캐드용 Block Library 등은 세트로 묶어서 SAMCAD라고 명명하였다. 도면작업에 기반을 둔 LISP과 자료세트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2000년대 초 SAMCAD가 완성된 후에는 Leecad라는 일종의 보안키^{lock key}가 만들어졌다. 개발자의 성을 따라 만들어진 보안키는 설계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판단하고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확산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개발자의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실측의 일부분은 수작업 도면으로 보완하였다. 함수로 정의되지 않는 변형된 처마곡선, 자연석의 막돌 쌓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보다 세밀한 실측조사와 사진촬영의 정형화를 통해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3차원 스캐너가 도입된 후에는 심지어 현장 방문 없이도 작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다.

지역제한입찰의 충격과 설계도서DB 구축

설계도서DB 구축

설계사무소는 완료된 설계도서를 중요하게 관리한다. 시공 중의 도면수정 revision 및 향후 유지관리의 기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재 설계도서는 애당초 유지관리 차원에서 작성될 뿐만 아니라, 해당 설계도서는 해당 건축물의 보수이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히나 자료 관리가 중요하다.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한해의 용역 결과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문화재 설계용역이 뜸해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안정맞춤이기 때문이다.

먼저 2000년 초부터 개인 PC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서 산출물 데이터를 통합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사무실의 설계업무가 수작업에서 PC로 전향되었지만, 실무자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을 뿐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매년 데이터를 CD에 저장해 보았으나, 오래지 않아 데이터가 망가지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전체자료를 백업하기 위한 외장하드를 마련하였고, 매년 연말에 자료를 저장하였다. 특히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밀레니엄 버그가 이미 심각하게 예상되었고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보고되었기 때문에 백업용 외장하드를 두 세트로 확대하였다.

PC데이터는 크게 1998년 이전, 2000년 이전, 2001년 이후의 세 개 시기로 나누어 관리되었다. 1998년 이전은 수작업과 PC작업이 병용되었기 때문에 캐드도면이 불완전하였다. 2000년까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 연도의 자료를 통합하여 정리하였던 반면, 2001년부터는 각 연도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다시 세분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요구된 편의성이 검토된 결과이다.

사무실의 작업 일체가 PC작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설계도서를 출력물로 보관하는 방식을 지속하였다. 발주처에서 제출물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추후 유사 사업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경우가 빈번하여 그 편리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사실, 삼성건축사사무소 데이터 정리의 핵심은 PC작업 이전에 생산된 도면, 내역 등의 설계 자료들의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계도서의 체계적 정리는 1970년대부터 직원들 간에 제기되어온 숙원사업이었다. 과거부

터 도면은 두루마리 형태로, 서류는 서류봉투에 넣어서 사무실 빈 장소에 되는 대로 보관해 왔다. 체계적이지 못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 서가에 정리한 것은 2003~2004년의 일이었다. 사무소가 운영되어 온 상가 건물의 옥탑 창고를 임대함으로써 설계도서의 전용 저장 공간이 마련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설계도서의 목록화 작업은 문헌정보과 학생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사무실에서 사용한 자체 분류체계를 따르기로 하였다. 이 분류체계가 설계도서 정리의 정답은 아니었지만, 수년간의 자료정리 경험 속에서 도출된 최적이면서 자료별로 정리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목록화 작업은 지금까지 보관된 설계도서에 서류별로 라벨을 부착함과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CCES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서류의 정보 분류, 공사유형, 지역, 공사번호, 유형, 일련번호, 도면번호, 공사명, 폴더명, 도면명, 비고를 입력하고 EXCEL로 변환하여 전체 목록을 만드는 순서도 진행되었다.

삼성건축사사무소 설계도서 분류체계

유형	위치
A 궁	가 원도
B 성	나 청사진
C 사찰	다 축소본, 자료;(다大, 다中, 다小)
D 가옥, 마을	라 접이 청사진
E 사당, 묘, 릉	마 실측장
F 정자, 루	바 탁본;(바大, 바小)
G 공공시설, 기념관, 박물관, 전시관	사 측량 배치도
H 문	아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I 탑, 비, 비각, 불상, 보호각	자 원도(大)
J 기타	차 참고보관 청사진;(차大, 차小)
K 서원	
I 일반건물	

출처 : 저자 작성

사무실 설계도서의 목록화 덕분에 직원들은 큰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반세기 연혁을 가진 사무실의 자료 보관이 우수하다는 소문 덕분에 문화재 기관, 동

중 사무실 등으로부터 과거 설계도서의 대여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시기가 먼 자료일수록 찾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업무가 바쁜 시기에 거절하기 어려운 경로를 통한 자료 문의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PC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PC로 자료를 검색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설계도서를 출력물 형태로 도면함에 보관하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제출 자료의 복본을 만들거나 차후 동일한 건물에서 다른 용역이 발생할 경우 자료열람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방식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운 조직 한계도 있었지만, 문화재 건조물 유지관리 특성상 지난 설계도서는 차기 보수설계 용역의 기초자료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업무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설계도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돌이켜 보면 문화재 설계사무실의 업무는 발주처에 납품하여 완료되지만, 이때부터 설계도서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번 보수공사는 바로 이 자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재 설계사무실에서 자료 관리에 대한 끊임없는 노고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제한입찰의 시행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이 시행되었다. 2007년의 개정을 거쳐, 시행령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항 6호,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1호)에 의거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중 5억원 미만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소재지에서 운영 중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지방계약법은 지방건설업의 보호,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²⁷.

당장 국내 건축문화재 설계, 시공 업체는 큰 지각변동을 맞이하였다. 당시 문화재 설계업의 주력 사무실은 행정 업무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소재해 있었지만, 사실 국내 문화재건조물의 대다수는 수도권 밖, 특히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재공사의 상당 부분은 공사비 5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문화재 설계용역이 지역제한입찰에 묶이게 된 것이다.

사실 삼성건축사사무소에게 지역제한입찰의 여파는 다소 연착되었다. 과거 실적 덕분에 지역제한에서 예외적인 소액의 수의계약 용역 건이 적지 않게

²⁷ 김준한, 「지역제한입찰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구매조달학회지, 2005.02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주가 예전과 같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실무자들이 먼저 전략적 사업구조조정을 건의하였다. 희망 직원을 이용하여 지방에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지점 역할을 하는 별도 업체를 만들어 용역 수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문화재 설계의 대부분이 수도권 밖에서 발주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80년대부터 경상도 지역에서의 실무 경력이 특출하게 많다는 이점을 활용한 의견이었다. 사실 이 시기 주력 문화재 건축사사무소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문화재 분야의 업역을 축소하는 등의 큰 변화들이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직원들의 제안은 업무상 이익을 위한 편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순용 소장의 경영철학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지방 분점을 만드는 것이 편법인지는 판별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실제 설계도서 작성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순은 직원들도 공감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역제한입찰의 풍파는 더디게 다가오는 듯 했으나, 2016년 업무종료를 기준으로 반추해보면 그 때의 구조조정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 당시 직원들의 평가였다.

삼아성건축사사무소로의 개명

삼성건축설계사무소는 1985년 삼성건축사사무소로 개명하였다. 1984년 12월 31일 개정되고 이듬해인 1985년 1월 1일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²⁸. 그리고 1999년에는 (주)삼성건축사사무소로 개칭하고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주)삼아성건축사사무소에서 (주)삼아성건축사사무소로 개칭하였다. 2010년 5월 20일 삼성전자(주)와 삼성물산(주)가 대리인을 통해 ‘삼성’이라는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삼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통보였다. 대기업 삼성그룹에서 ‘삼성’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것은 1997년의 일이고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주식회사로 등록한 것은 1999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혁 관계 속에서는 삼성건축사사무소가 대기업 삼성그룹의 브랜드가치를 편취하려는 의도로 회사명을 사용했다는 해석이었다.

반세기 동안 삼성건축설계사무소, 삼성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설계 용역을 수행한 연혁이 있었으며, 더욱이 1978년 완공된 용인 호암미술관을 설계할 당시 삼성그룹의 선대 회장과 서로 회사명을 소개하며 한글은 같아도 한문이 다른 별개 회사임을 확인한 일레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이라는 명

28 건축사법 제23조(등록) 제6항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29 「한겨레신문」, 2011.03.28, 「삼성그룹의 매정한 통보에 40년 회사이름 '쓸쓸한 개명」(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0258.html, 디지털판)

칭을 쓰지 못했다는 건축계 안에서 공유되는 사실들도 충분한 반증 사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을 상대로 법리로 판단하는 지리한 법정 다툼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본연의 이름을 방해하지 않는 아예자를 가운데에 추가하여 '(주)삼아성건축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상황은 당시 일간 매체에서도 기사화 되었지만²⁹, 삼성이 삼아성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사무실 안팎의 여러 고비에서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선진이 작명한 사무실 이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지울 수 없었다.

맺음말

반세기 삼성건축사사무소의 기술력은 설계도서와 각종 보고서로 구성된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세기라는 기간은 국내 전체 설계업체를 통틀어 현재까지 최장기간의 운영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회사가 장기간 운영된 사실은 회사의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만들어내는 설계도서의 품질이 중요한 뼈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자가 직접 실측, 설계, 감리 전 과정을 참여하면서 다듬어지고 개선되는 업무방법은 실무를 통해 후임자에게 전수되면서 스스로 높은 완성도의 설계도서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설계 노하우는 사무실 역량으로 외부에 드러나면서, 사무실 명성과 실무자 개인 역량 강화 간의 시너지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제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만들어진 설계도서들은 삼성건축 아카이브로 다음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 정확한 실측기록의 모범이며, 국내 건축문화재 사업의 담지자로서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의 관심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참고문헌

- 강남형(2017), 「국보건설단 강봉진과 국립종합박물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33
- 강원도(1987), 「강원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 경기도(1989),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 경상북도(1979),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 경상북도(1979), 「하회마을 조사보고서」
- 국회사무처(1967), 「한국건축양식조사보고서」
- 공간(1967), 「특집 한국현대건축을 위한 심포지엄 시리즈1: 국립종합박물관의 경우」
- 김소연(2017),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 김준한(2005), 「지역제한입찰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구매조달학회지
- 김지홍(2014),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건축학회(1959), 「건축용어집」, 영기출판사
- 대한건축학회(1966),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문화재관리국(1973), 「한국의 고건축」, v.1
- 문화재관리국(1984), 「한국의 고건축」, v.6
- 문화재관리국(1985), 「완주화암사실측조사보고서」
- 문화재관리국(1985),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
- 문화재관리국(1987), 「창경궁 중건보고서」
- 문화재관리국(1990), 「한국의 고건축」, v.12
- 부산직할시(1989), 「동래향교실측조사보고서」
- 안창모(2003), 「(자료)1960년대 한국건축의 반공, 전통이데올로기와 모더니티」, 건축역사연구, v.12(4)
- 안창모(2009),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의 사회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 재고」, 건축, v.53(9)
- 안창모, 「한국근대건축에서 식민지관광주의와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 철도역사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v.11 n.2, 2002.06
- 장기인(1964), 「건축구조학」, 문운당
- 장기인(1964), 「건축제도」, 야정문화사
- 장기인(1966), 「건축시공학」, 문운당
- 장기인(1967), 「건축 적산학」, 야정문화사
- 장기인(1974), 「건축용어의 낙수」, 대한건축학회지 v.18(61)
- 장기인·박윤성·이광노·이건영(1966), 「건축설계제도(개정판)」, 야정문화사
- 장기인선생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1976), 「장기인선생 회갑기념논문집」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2004), 「장기인 1916~」,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v.2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동수·송기형(2007),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설과정과 그 의미」,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전통리조트구름에(<http://www.gurume-andong.com>)

-
- GIS-ARCGIS-CAD-LISP-IT 블로그(<http://hoitallica.blogspot.com>) 'AutoCad(캐드) Lisp(리슘)이란 무엇인가'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경향신문」
 - 「한겨레신문」

4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주요 프로젝트





장 순 용

머리말

고대건축의 실증적 탐구

궁궐건축의 기법 확인

전통 주거공간의 기록

해체공사 속 결정적 증거

실측조사의 도전

맺음말

4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주요 프로젝트

머리말

삼성건축사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수표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면서 점차 사무실이 비좁아졌고, 설계용 제도판이 연이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앉은 동료 직원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또한 해마다 오르는 전세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서 이사 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1985년 6월에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삼익아파트 단지 내 삼익상가로 이사하게 되었다.

요즈음 청담동이라 하면 유명한 동네이지만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이 매우 어려웠다. 대신 이전 사무실에 비해 두 배 이상 넓은 장소였기에 마음대로 활개치고 작업할 수 있었다. 이사 올 당시에는 사무실 한 편에 칸막이를 두고 설계도면과 실측장, 사진첩 등을 보관하였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도면자료가 쌓이기만 하고 줄지 않으니 이 곳 저 곳에 산만하게 설계자료를 쌓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예전의 자료를 찾으려고 자료들을 파헤치다 보면 도면 속 제도연필과 먼지 때문에 손과 옷이 검댕이 범벅이 되곤 하였다.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존 도면을 찾는 작업이 점차 악화되었고 직원들이 자료 찾는 일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져서 결국 자료목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노트에는 도면의 명칭과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에는 꼬리표를 붙여 놓는 방법이었다. 도면을 펼쳐놓아 보관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무실 공간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돌돌 말아 겉면에 제목을 기입하고 마구리에 꼬리표를 달아 서가에 꽂아두고 꼬리표 보면서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작업은 임시직원 2명이 꼬박 6개월 동안 맡아주었다.

트레이싱지로 작성된 원도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나 청사진 등의 사본은 중판과 대판, 16절 규격으로 접어서 철한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규격별로 쌓아 놓고 견출지를 한쪽 끝에 붙여 제목을 기입하였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지만 검색이 반복될수록 서가의 위아래가 뒤섞이면서 다시 혼란스럽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무실 내의 공간만으로는 도면 보관 장소가 해결 되지 않아 같은 건물의 옥상층 창고를 월세로 임대하여 도면과 각종 서류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항상 그랬듯이 매해 연말에는 사무실 대청소를 하면서 도면자료를 정리하여 쌓아두는데, 보관 장소가 사무실 안과 건물 옥상의 작은 창고 두 곳에 분산하여 운영하다 보니 자료를 찾는 애로는 여전하였다. 그래도 철지난 도면을 찾는 긴급한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며, 이것도 사무실의 더할 나위 없는 자산이라 여기며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창덕궁 낙선재 일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용역을 마무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무실 적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오랫동안 고민해 온 일이었는데, 결국 그 해 10월에 사무실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경영이 힘든 고비에서도 내일을 기약하며 버텼으나 이번의 고충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휴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무소에 제직 중이던 직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새로운 직장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사무실 업무 공간만큼을 차지하고 있던 설계자료를 정리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평소 친분이 깊은 단청기술자 양종찬 씨에게 마당 한켠이나 적당한 창고에 도면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그가 충주에 개인주택을 마련하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지인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도면자료를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는 일이 여의치 않다고 말하였는데, 한동수 교수는 잠시의 뜸도 들이지 않고 단번에 한양대에서 보관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주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라고 답하였더니, 한동수 교수는 삼성건축의 자료를 한양대에 보관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이 고마운 일이고 한양대에서도 환영해 마지않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이 답을 듣는 순간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고, 그 저녁 만찬은 아마도 평생토록 기억될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당시 한양대 본교에서는 건축과 건물이 2017년에 준공될 예정이었기 때

문에, 그 때까지 안산캠퍼스에 임시보관 하였다가 본교 건축과 건물이 준공되면 그 때에 다시 옮겨와서 본격적인 자료정리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한동수 교수와의 극적인 대화가 삼성건축의 소장 자료를 한양대에 넘기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한양대학교와 건축과의 배려 속에 여러 절차를 거쳐 한양대학교 도서관 장서로 사무실 자료를 기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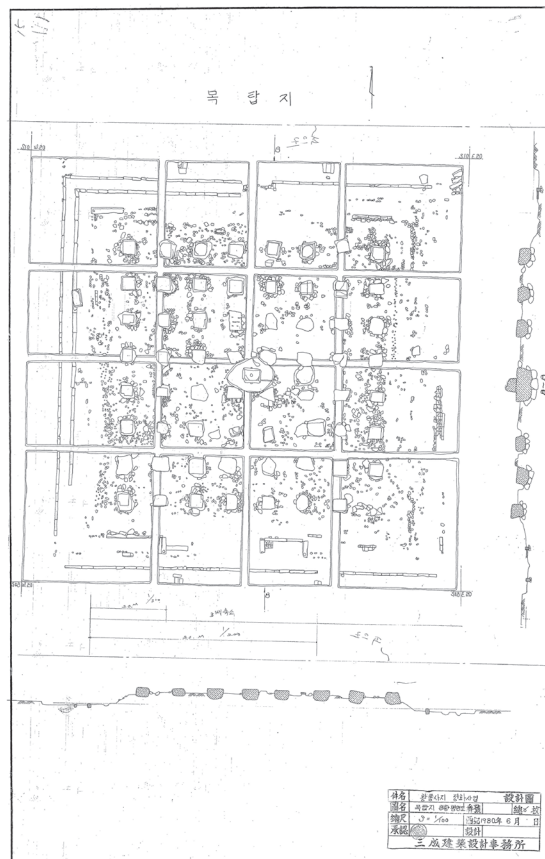
50년 이상 누적된 도면자료를 허망하게 폐기처분하고 싶지는 않았던 큰 바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일찍 도착한 대형 이삿짐 트럭 3대가 도면을 가득 가득 채우고 잠깐 만에 떠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과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되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동시에 도면에 밴 여러 가지 감회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다른 소장처 중에서도 연구자의 출입 문턱이 낮은 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고 삼성건축 아카이브로 남게 된 일은 도면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맞이한 셈이고, ‘삼성건축’으로써도 오랜 기간 보관하였던 수고와 노력에 보상을 받은 셈이다. 이 자료들이 귀중한 연구 자료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 간절하다.

새롭게 태어난 삼성건축 아카이브를 바라보며,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자료들 중에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용역을 수행할 당시에 기억되는 숨겨진 일화를 통해 사업의 성격과 의미를 기억해 보고, 도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짧게나마 풀어보는 것은 나중이라도 삼성건축 아카이브를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유이다.

고대건축의 실증적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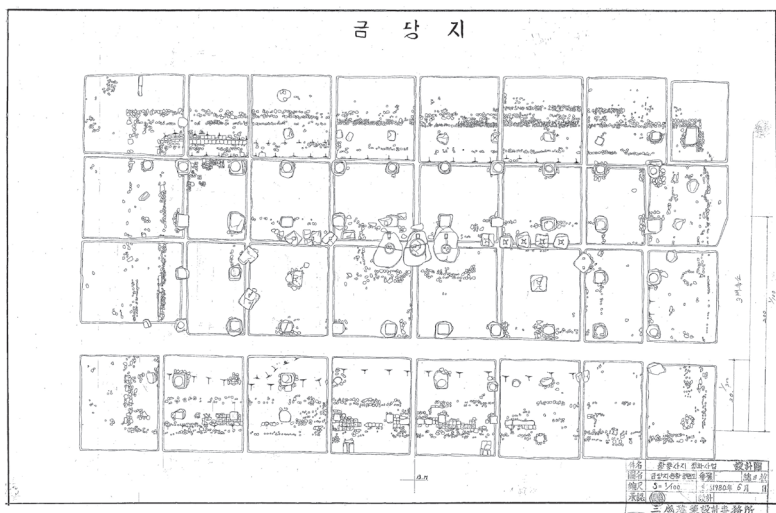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설계

경주지역의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황룡사 터에 구층탑을 복원하자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발굴조사는 장기간 진행되었으나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행정적 판단에 따른 건축사업인 셈이었다. 다만, 내구성을 고려하면서 경주 지역을 둘러보는 전망대로 만들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고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본방침이 설정되었다. 우선은 목조 9층탑의 복원안을 설계한 후에 이것을 콘크리트 구조로



황룡사 9층 목탑지 현황평면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황룡사 금당지 현황평면도

출처: 삼성건축 아카이브

변환하여 설계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때가 1976년경이었다. 필자의 석사논문이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¹⁾”이었던 연유로 경주의 도시계획과 랜드마크 건축물을 함께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설계이기도 하였다.

당시는 외국 여행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에 현존하는 문헌과 건물 사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현존하는 목탑으로는 법주사 팔상전과 쌍봉사 법당이 있었으나 법주사 팔상전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일본의 법륜사 목탑 등은 기존에 출간된 문헌자료를 통해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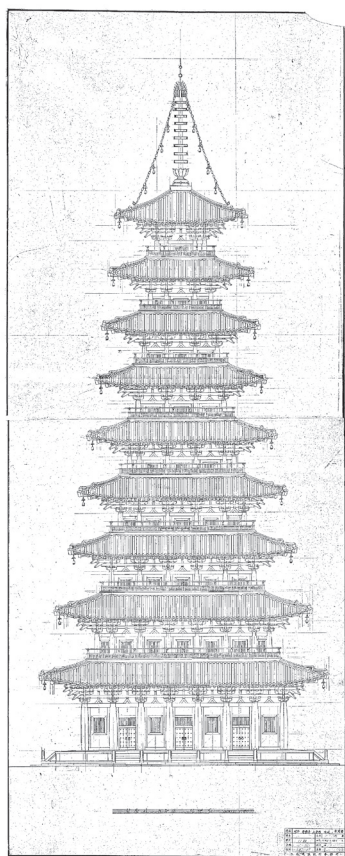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간행된 목탑관계 서적을 외국서적 전문 수입상에게 의뢰할 경우 책을 받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렸다. 더구나 외국 서적에 대해서는 당시에 서적을 검열 부서의 검열을 통과한 후에 책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서적은 공산당에 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은 먹으로 새까맣게 칠하거나 심지어는 책이 곳저 곳의 부분을 찢어 버리기도 했으니 책을 온전하게 살피기가 매우 어려웠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처분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공권력이 매우 삼엄한 시절이었으니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시에는 삼국시대 건축기술에 관한 연구라고는 보잘 것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황룡사 발굴조사 보고서조차도 당시의 영조적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

1 장순용, 『新羅 王京의 都市計劃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론,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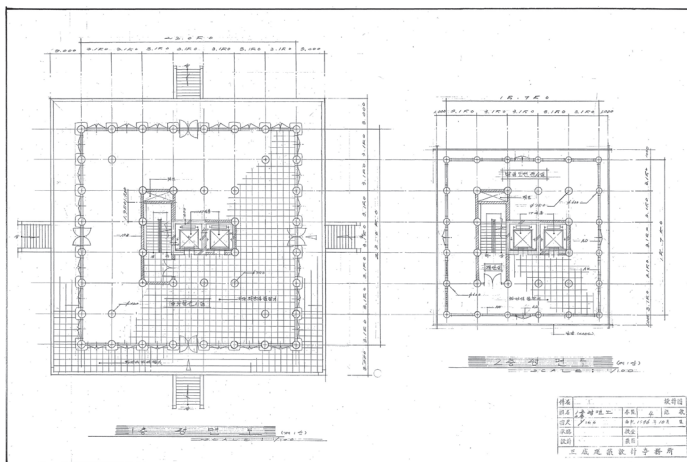
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료를 더듬어 모든 것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법주사 팔상전을 몸체의 기본모델로 삼고 일본의 법륜사 목탑에서 상륜부 구성을 기본 형태로 삼아 설계를 진행하였다.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아 회의 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법주사 팔상전과 같은 통주형식으로 황룡사 9층 목탑 설계안이 정리되었다. 근래에는 삼국시대의 건축기법에 관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통주식 형태 보다는 평좌식 구조가 유력한 구조양식으로 대두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기본설계가 성안된 후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변환하였고 구조계산은 전공 교수에게 의뢰하여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도면을 완성할 수 있었다.

힘난한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승인되었으나 건립 장소 문제가 또 다른 복병이 되었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에서 건립안건을 심의하면서 원위치 복원은 유적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경주 지역의 타처에 건립하는 대안도 해당지역의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겠으나,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경주에서의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은 절대불가라는 결론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설계용역은 기본지침서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발주된 것이므로 설계도서는 납품 처리하기로 하였고, 대신 복원공사가 불가하였기 때문에 계획안으로만 남게 되었다.



황룡사 9층 목탑 복원 입면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황룡사 9층 목탑 콘크리트 복원안 평면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신라시대의 건축부재가 실제로 발굴된 것은 안압지에서 발굴된 난간부재와 처마 등의 기와류가 전부였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일찍 시도된 설계안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황룡사 9층 목탑의 설계과정에서 한국 전통구조의 기법에 관한 연구가 부단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점은 개인적인 깨달음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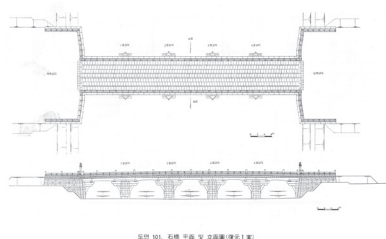
월정교지_{月精橋址} 실측설계

경주시 문천 하천에 남아있던 월정교지는 신라시대에 건설된 교량 유적으로, 최근에 월정교로 복원된 바 있다. 1986년 경주시에서는 석재 유구만 흐트러진 상태로 존재하던 월정교지 유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석재를 조사하고 교량의 하부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발주하였다.

넷물이 흐르는 하천을 가로질러 존재했던 교각의 유구와 붕괴되어 흐트러진 석재를 하나하나 실측조사 하여 현황도면과 복원안을 작성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이 하천에 노출된 유구라는 특성상 현장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다.

석재의 중량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천에 석재를 부분적으로 들어올리기 위한 조사용 가설재를 설치했고, 실측조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물막이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부분적으로는 석재 하부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발굴조사를 병행해야 했고, 실측된 부재는 별도로 마련된 공터에 부재별로 번호를 표시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현장에서 석재 조사를 하던 중에 월정교지 하류에서 토사에 매몰되어 있던 목교 유적을 발굴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통나무를 잘 다듬어 정교하게 조립한 것으로 신라시대에 건조된 목교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



석교 평면 및 입면도 (복원 1안)

출처 : 경주시(1986), 『월정교지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보고서』, p.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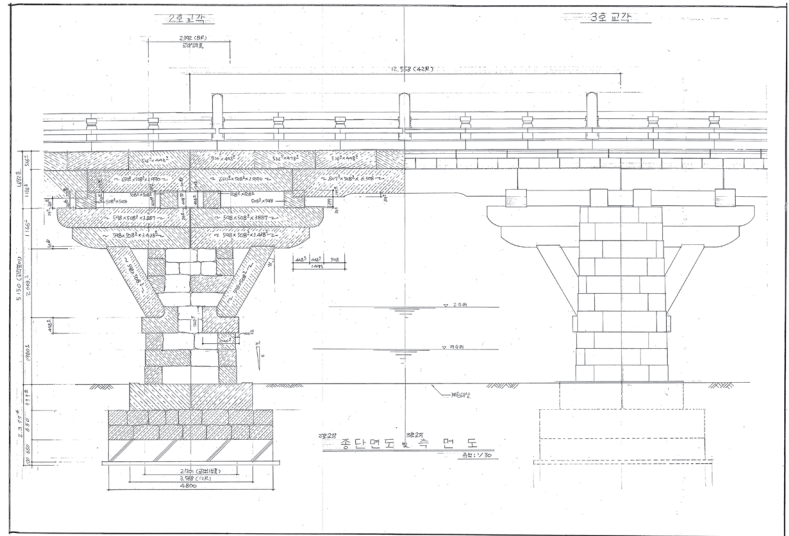


2호 목교 전경(유교로 판단된 유구)

출처 : 경주시(1986), 『월정교지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보고서』, p.220

2 경향신문, 1986.04.01, 「新羅 때 나무다리구조물 發見 慶州서千 2百여년전것 推定」

한 사실이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하였다². 삼국유사에는 문천에 문천교蚊川橋 또는 유교榆橋라는 다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에 관한 전설도 실려 있는데, 발견된 목교유적이 문천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삼국유사에 수록된 내용의 신빙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 이 목교는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조사하여 수습하였고 보전 처리되어 별도로 보관되었다.



월정교 복원 종단면도와 측면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월정교지 실측조사 전경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이 당시에 조사한 보고서와 유구가 오랫동안 존치되어 왔다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정교 복원공사가 최근에 준공되었으니 조사한 후 30년 정도 경과한 후에 복원된 셈이다.

임해전지 건물 복원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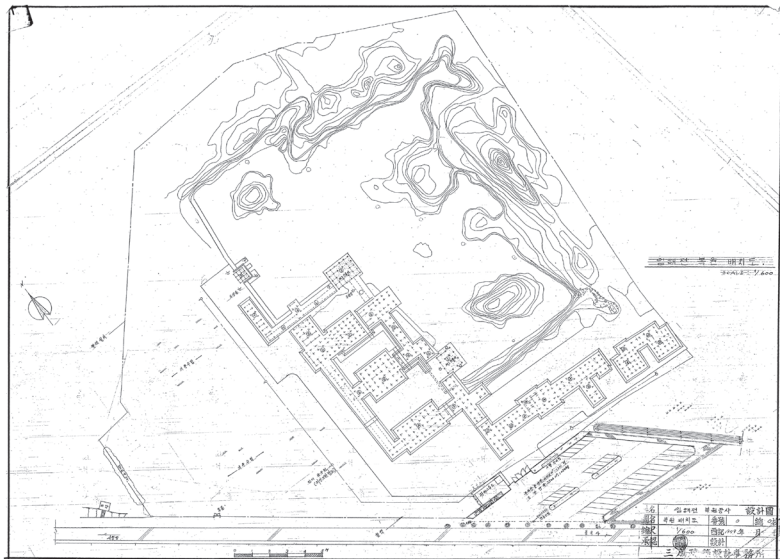
대대적인 안압지 발굴조사 후에 복원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석축과 연못을 정비한 후 1, 3, 5 건물지의 복원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들 건물지가 다른 건물지에 비해서 초석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건물의 규모와 위치 판단이 보다 확실했기 때문이다.

임해전지 복원설계의 핵심은 황룡사 구층탑과 마찬가지로 신라시대 양식을 추정하는 작업이었다. 고증을 위하여 봉정사와 부석사, 일본에 현존하는 고대 건축물 등을 비교 검토하였고 경주 시내의 석탑 중에서 건축물을 묘사한 부조를 분석하였다. 마침 안압지에서 발굴된 난간부재와 기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임해전지 발굴평면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임해전지 복원공사 배치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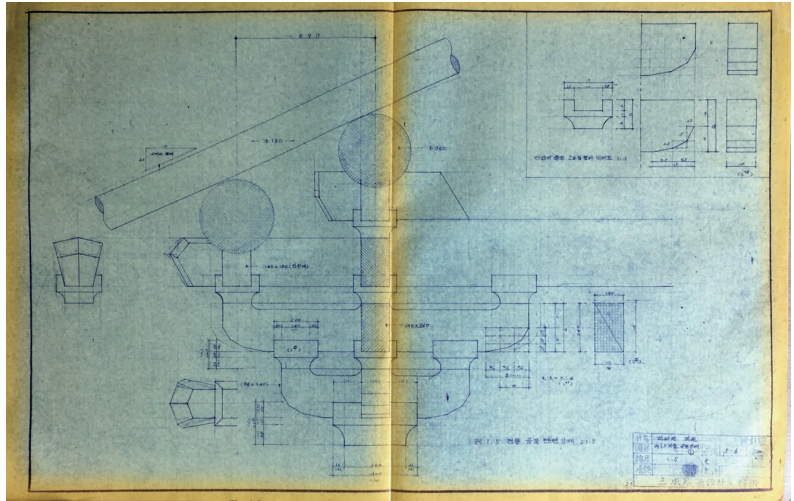
임해전지 복원계획에서 안압지의 발굴조사와 주변 지역의 조사 결과가 좋은 자료가 되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고식 공포는 『영조법식』에 기록된 권쇄법 卷殺法이 적용된 방식이었고, 부연 위치가 표시된 통평고대는 겹처마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외에 치미, 귀면, 모서리기와는 출토부재로부터 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압지에서 발굴된 난간철물은 불국사 난간의 형태 및 황룡사에서 출토된 사리함의 장식과 함께 난간 계획에 사용되었다.

대들보는 시각적 보정장치 역할을 하는 향아리보를 적용하였고 기둥은 배흘림을 제안하였다. 배흘림 계획에는 현수곡선 방정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미 『장기인 선생 회갑기념논문집』에 수록된 「朝式構造에 나타나는 曲線의 作圖方法에 대하여」 원고에서 정리한 이론을 설계실무에 적용한 첫 사례가 되었다³. 이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에서 10cm 간격으로 기둥 지름을 제안할 수 있었고, 기둥머리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 편수깎기도 적용하였다. 배흘림과 편수깎기는 고식 건축물에서 확인되는 기법으로 현재의 신축공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당시의 복원 공사에서 온전하게 적용된 것은 큰 보람이었다.

한편, 당시 병행되었던 월성 해자 발굴조사에서도 당시의 건축유구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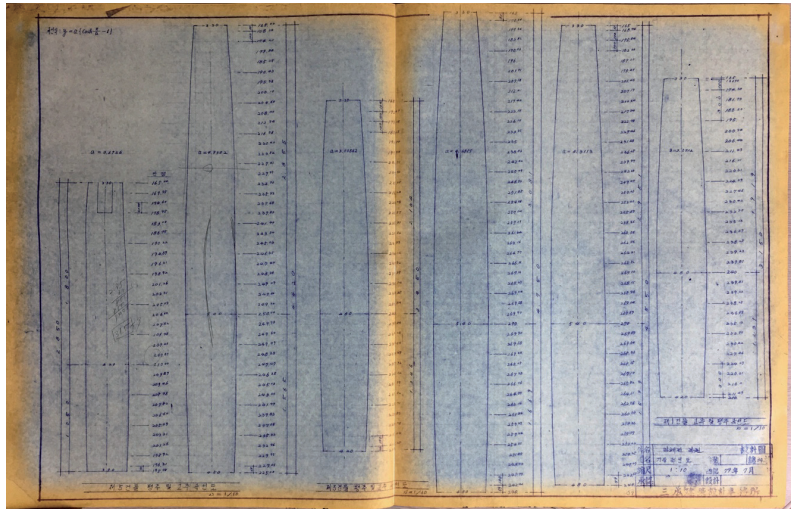
3 『장기인 선생 회갑기념논문집』은 1976년 삼성건축사사무소 설립자 장기인 선생의 문하생들이 그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도서로 편저자와 출판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논문집에는 장기인의 개인 저술 활동을 비롯하여 동년배 건축가의 저술 및 문하생의 연구물이 수록되었다. 이 중에는 장순용이 작성한 「朝式構造에 나타나는 曲線의 作圖方法에 대하여」의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

굴되었는데, 국가사업 결과물을 민간 설계사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고집이 심의를 통해서야 겨우 교정될 수 있었던 점은 관 주도 문화재사업을 아우르는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였다.



임해전지 제1.5건물 공포상세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임해전지 기둥곡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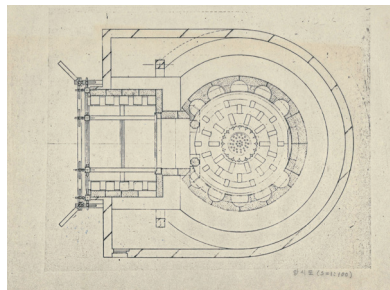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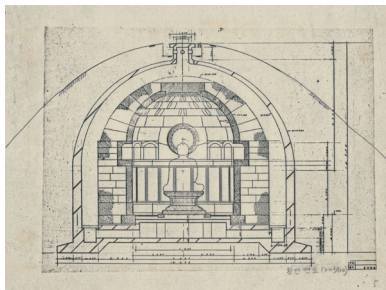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제2석굴암 조성계획

석굴암에 공기정화 설비를 운영하여도 결로현상이 제거되지 않아 세간의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관람객의 호흡이 결로현상을 악화한다고 판단되어 석굴암 전면을 유리로 차단하고 관람용 전실에서 관람하게 하였으나 풍화와 결로는 계속되었다. 석굴암 실내의 결로현상과 풍화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선책으로 석굴암 근방에 제2석굴암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삼성건축에서 용역을 맡게 되었다.

제2석굴암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석굴암의 실측조사가 필요하였다. 이미 석굴암 보수공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여기에서 도면이 작성되었지만, 보수공사를 위해 부분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신뢰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연구소에서 발주한 용역을 통해서 석굴암을 살살이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석굴암의 구조를 지탱하는 석조물 자체는 전통건축물의 기단이나 성곽 실측조사 때의 경험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중앙의 본존불을 실측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난감하였다. 지금에는 3D스캐너가 있어 입체조형물의 기록이 무척 수월해졌지만, 당시에는 순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석굴암 본존불 실측은 당시 경주 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도움이 컸다. 각목으로 액자 모양의 대형 사각틀을 제작하고 여기에 가로 세로 방향의 등간격으로 명주실을 묶어 균질한 그리드를 만들었다. 이 사각틀을 두 세트 만들어 이를 적당한 간격으로 이격하여 본존불 앞에 흔들리지 않게 세워두고, 두 사각틀 속 명주실 그리드의 동일한 위치를 겹쳐서 한쪽 눈으로 관찰하여 실측장 위의 모눈 위로 옮기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려와 달리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 결과물은 지금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도 탐낼 만한 자료라고



석굴암 실측 단면도와 앙시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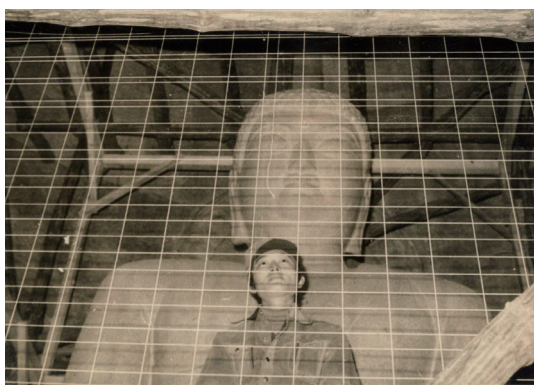
자부한다. 이와 함께 본존불의 석질의 육안 조사도 의뢰하였다.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가까운 지역에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석재 산출지를 찾으려는 의도였다.

설계를 마친 뒤 제2석굴암 조성을 실행으로 옮기려는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석굴암 전실부분의 구성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의 보수공사 때문에 지금까지도 석굴암 전실 구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가장 합리적인 전실 계획안을 세운 셈이었는데, 설계사의 선부른 과욕으로 오해한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석굴암 본존불 실측도

『석굴암 불상』(1977.12)



석굴암 본존불 실측광경

출처 : 양경선(전 수아건설 주식회사 이사) 소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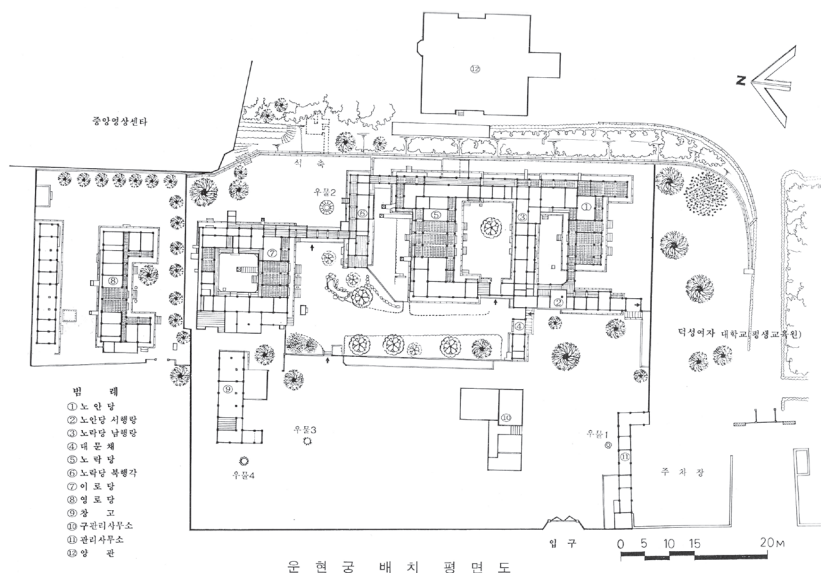
궁궐건축의 기법 확인

운현궁 복원공사

1993년 서울시에서 발주한 운현궁 정비사업을 수행하여 운현궁을 복원 보수하고 실측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궁궐은 국유로 되어있으나 운현궁은 고종 후손의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공사의 이력이 거의 없는 건물군이였다.

또한 조사 당시에는 운현궁에 여러 세대가 세 들어 살고 있었던 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세입자들을 이주시키고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세입자들이 간간이 도배를 새로이 하는 등의 최소한의 수리를 하면서 살아온 집이었기 때문에 운현궁은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한 건물로 남아있었다. 물론 부속건물 중에는 퇴락하여 철거된 건물도 있었으나 남겨진 건물은 건립 당시의 원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궁궐에서 침전 건물은 일제시대의 변화를 거치면서 실내의 창호는 대부분 철거되어 있어서 침전건축의 진면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운현궁에서는 실내에 구성된 창호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침전건축의 모습



운현궁 배치평면도

출처 : 서울특별시(1993), 「운현궁 실측조사보고서」, p.155

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물로 판단하였다. 물론 운현궁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침전 건축은 아니지만 고종이 즉위한 이듬해에 나라에서 안채인 노락당을 건립한 사실이 고종실록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궁궐 수준의 전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보수공사 때에 발견된 노락당 상량문 속 고종1년¹⁸⁶⁴에 건립되었다는 내용은 이런 정황과 일치한다.

현존하는 궁궐 침전건축에서는 외부의 창호만 남겨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운현궁에서는 실내의 장지문과 영창 등의 창호가 구색을 갖추어 남아 있었다. 이것은 궁궐의궤에서 언급된 창호구성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실증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다.

운현궁의 창호구성에서는 쌍창, 흑창, 영창, 갑창이 세트로 구성된 창호기법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분합창문 내측의 영창도 온전히 남아 있었다. 당시의 침전건축에서 흔적만 남아 있었던 안고지기 창호도 온전히 실물로 남아있었으며, 창호에 부수되는 철물과 손잡이 등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사랑채인 노안당은 후대에 개조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해체조사 시에 원형을 고증하여 복원한 것이므로 주요 구조부의 구성을 제외하고는 조사당시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운현궁 복원공사에서는 도배지를 직접 수집할 수 있었다. 운현궁 노락당 반자의 도배지 샘플을 수거하여 집에 가져와 욕조에 물을 채우고 도배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2개월간 시도하였다. 도배지를 분리하여 정리한 내용은 운현궁 실측조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처음 수집한 도배지 샘플은 건조 상태에서 두께가 2.45mm였고 두들기면 합판소리가 나기도 하였다. 장기간 물에 불려서 혼자 분리한 도배지는 총 32겹이 중첩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락당이 건립된 이후 계속해서 도배지가 덧발라진 결과이다. 또한 문양이 인쇄된 것이 18종류를 확인하였고, 궁궐의궤에서 명칭만 보이던 완자문양을 비롯한 여러 종류를 볼 수 있었다. 운현궁의 도배지를 조사한 이후로 궁궐 도배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집하고자 하였다. 궁궐 도배지 실물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궁궐건축 보수복원공사에서 도배지도 복원할 것을 건의하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은 못내 아쉬웠다.

한편 이로당 복원에 있는 영로당도 운현궁에 딸린 건물이었으나 일찌감치 민간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복원사업에는 제외된 것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일이다. 다만 소유주가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운현궁이 그 동안 감추어져 있던 침전건축의 건축구성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던 중요한 교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조립식으로 구성된 목재 차양의 구성, 실내외의 위치에 따라 외측에는 듬직한 철물을 사용한 반면 내측에는 소형 창호철물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등의 실제 사례에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다.

경복궁 근정전 보수공사와 실측조사보고서

근정전의 처마에 변형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2001년에 부분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경복궁을 대표하는 건물이기에 세부적인 점검을 하면서 공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본격적인 보수공사를 위해서는 실측조사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실측조사팀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2003년 12월에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전부터 조선조 말기의 대표적 건물인 근정전을 정밀실측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음에도 오랫동안 여의치 않았는데, 드디어 기회를 얻게 되었다. 보수공사 과정 중에 해체가 진행된 부분을 조사하고 실측일지를 작성하는 동시에 정밀실측조사도 병행해야 하는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사무실 인력을 전원 투입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부재의 치목기법을 조사하면서 흠이기에 의한 연장흔적을 발견하여 탁본을 뜨고 촬영과 도면작성을 하는 등으로 세부적인 치목기법의 조사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상층부 높은 곳에 세부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로 전문 건축사진사를 고용하여 촬영을 의뢰하였다. 필름을 아끼지 말라는 뜻으로 필름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또한 부재의 여러 곳에 남겨져 있는 묵서와 묵수들의 낙서도 전수 조사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묵서명에는 포부재의 위치를 한문과 한글로 기입한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상량문을 봉인한 것을 뚜껑을 열고 조사하니 수_水자가 6개 새겨진 육각형의 은전이 발견되어 화재를 방지하려는 당시의 기원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경운궁 중건 당시의 의궤에 은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근정전 상량문 함에서 그 실체를 확인하니 놀라움에 가벼운 전율을 느꼈다.

또한 종도리에 그려진 용 문양을 모사하고 축소시켜 보고서에 수록하였는데, 먹으로 그린 그림의 필치가 정교하여 전문적인 화사가 그린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작성자에 대한 이름이 남겨지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전문 직업 장인들을 휴대하는 시대적인 편견이 안타까울 뿐이다.



근정전 상량도리 쌍용 문양

출처 : 문화재청(2003),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상)」, p.191

무엇보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건물을 증건하면서 근정전 증건의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아쉬움이다. 의례가 작성되었더라면 건축 조영의 의지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터인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근정전의 정확한 증건시일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착공에서 상량까지는 8개월가량인 것과 1867년 11월 16일에 근정전에서 하례를 행하였다는 기록에 의하여 이즈음에 증건되었음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근정전 실측조사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측 조사 이전에는 기둥에 귀솟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해체 조사하면서 귀솟음은 없고 목재가 건조 수축하면서 발생한 변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포계 건물의 포벽 부위에서 탈락과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목재로 장화반을 제작, 설치하여 포벽의 하자발생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편, 기와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와못을 파베기처럼 비틀어 시공했는데, 보토와의 접착력을 크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유형의 기와못은 근정전이 유일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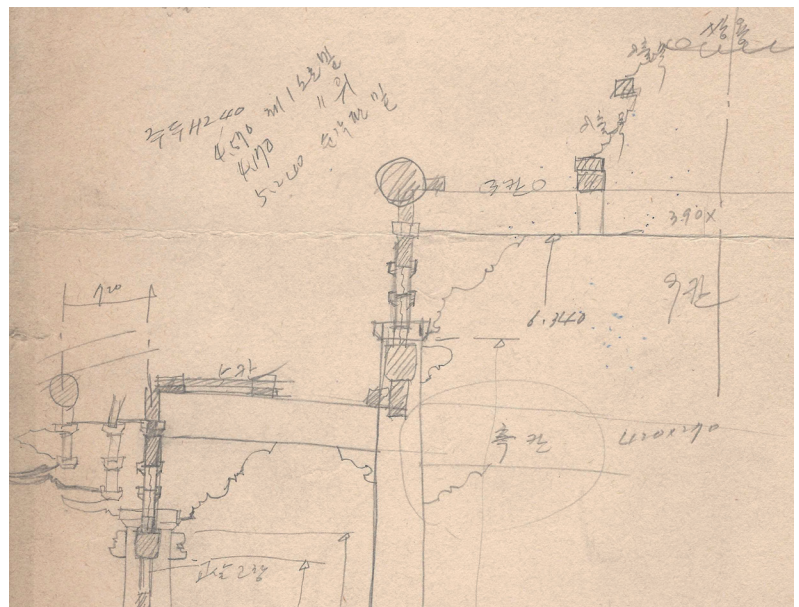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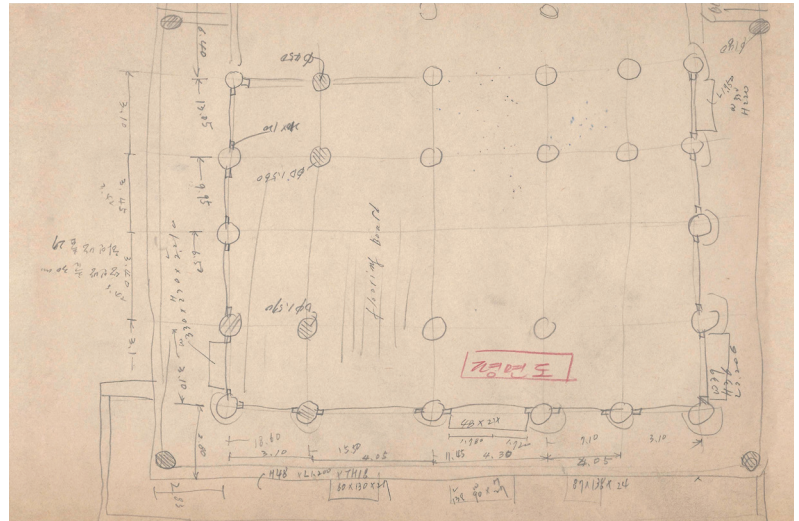
목부재의 연륜연대 측정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이 목재를 벌채 한 후 1~2년 안에 치목하여 조립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재를 충분히 건조할 여유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당시 사용된 목재가 장기간의 건조수축 때문에 변형이 발생하여 오늘날에 해체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된 셈이다.

경희궁 승정전 복원설계

경희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경희궁 정전인 승정전의 복원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에 앞서 진행된 발굴조사는 김홍식 교수가 이끄는 건축계의 전문발굴조사기관에서 수행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원래의 경희궁 승정전은 현재 동국대 법당인 정각원으로 사용 중에 있다. 승정전은 1926년 조계사 본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 위치로 이전 되었고, 이

후 이 자리에 동국대가 설립되면서 동국대학교 소유가 되었다. 당시 동국대학교 내 승정전을 경희궁으로 이전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학교의 반대로 경희궁에 승정전을 다시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동국대학교 승정전 실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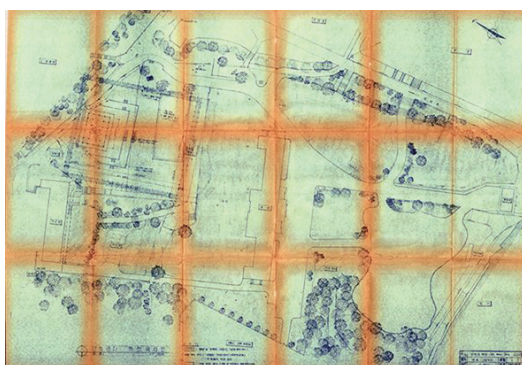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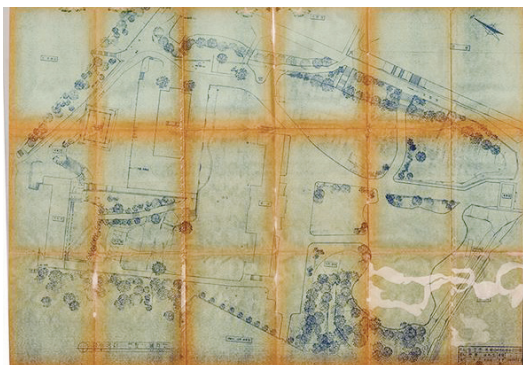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승정전과는 별개로 1988년 신라호텔 정문으로 사용되던 경희궁 정문이 경희궁으로 이건되었다. 경희궁 정문은 1932년 박문사 博文寺 정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충동으로 이건되었고, 이 자리에 들어선 신라호텔에서 정문으로 사용하였다. 당초 신라호텔에서도 정문 이건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나, 화물차량과 정문의 접촉사고 이후 정문 이건을 전격적으로 결정하였고 신라호텔에는 어칸과 기둥높이를 보다 확대한 정문을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점은 국내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승정전은 1926년 이건된 이후로 수차례의 보수 또는 개조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형 연구를 선행하였다. 현재 승정전 건물의 현황, 조선고적도보 속 사진자료, 그리고 1980년까지 경희궁을 교사로 사용한 서울고등학교의 발간자료에 수록된 승정전 현황자료가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고등학교 재학 중의 기억 또한 승정전과 그 주변을 구상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재학 시절 학교 강당 측면에 이동 동선과 별개로 놓여있던 돌계단이 원래는 승정전으로 이르는 석계였음을 알고 무릎을 치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승정전은 의궤가 제작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 직전에 수행한 창경궁 복원설계 덕분에 궁궐 전각에 대한 사무실 직원들의 이해와 연습이 승정전 복원설계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현재까지 경희궁 승정전, 자정전, 태령전이 복원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방궁호가 남아있는 침전 구역은 복원되지 못하였다. 당시 복원공사를 연속하여 진행할 것을 관계 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못하였다. 이 부분도 머지않아 복원될 것을 기대한다.



경희궁 현황배치도(좌), 경희궁 복원배치도(우)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전통 주거공간의 기록

안동수물지구 가옥 이전공사

안동댐의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문화재급 가옥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97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 가옥이전 설계 작업에 해당한다. 요즈음에는 이전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상 문제와 이전 반대 시위로 홍역을 치를 상황이었으나 당시에는 나라에서 결정하면 보상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줄지에 가옥과 농토를 잃게 된 주민들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고, 수몰로 인한 보상이라고 하여도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정해진 것을 수용할 것이냐 포기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였다. 보상금은 원래 소유한 농토의 1/3~1/5 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주민들은 보상안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타처에 농토를 주선해주는 방법도 시행되었지만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거나 토지를 임대해서 영농하던 주민들은 건질 것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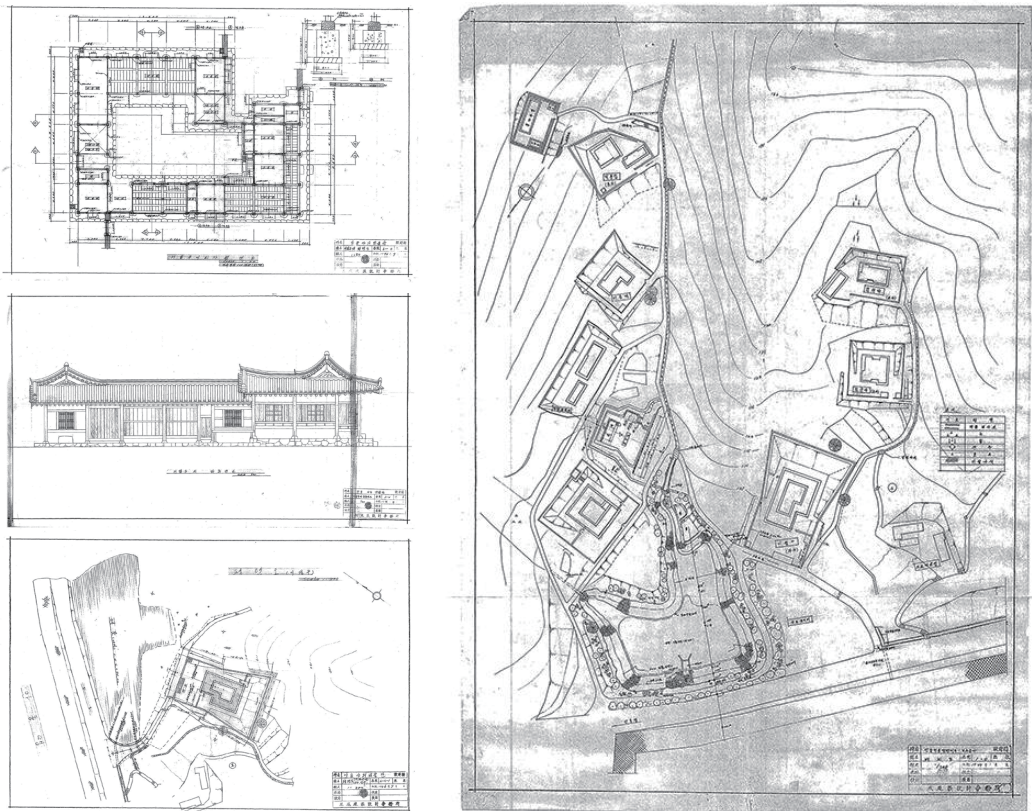
건물을 실측조사 할 때에 겪은 일 중에는 망연자실한 농민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시비를 걸어오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실측 조사 내내 언행을 매우 조심해야 했던 기억이 있다. 소유주가 선택한 땅으로 주택을 이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보상을 받고 비워진 대부분의 집은 정부 소유가 되었고, 이 중 일부는 이른바 민속자료전시구역으로 설정된 인근의 특정 장소에 건물을 이건하였다.

당시는 설계할 수 있는 기간도 매우 촉박하여 꼼꼼하게 조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조사장소도 교통이 매우 불편한 오지에 해당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으며, 택시가 들어가지 못하는 비포장 소로도 많아 동네 이장과 관계 감독관이 현지에 걸어 들어갔다가 이내 날이 저물어 조사장소만 확인하고는 그길로 되돌아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기간 동안 실측팀이 근처에 숙박할 수 있는 숙소도 구하기 어려웠다. 택시를 예약하여 일몰 전에 타고 나가서 읍 소재지에서 여관을 구하여 투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도 저도 여의치 못하면 근처의 민가를 수소문하여 하루의 숙식을 간청하여 숙소를 삼는 경우도 간간히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좀 더 수고하여 꼼꼼히 조사하고 상세한 실측기록을 남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지만, 당시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기

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침과 적은 설계비에서 길에 뿌리는 돈이 적지 않아 경제적 문제도 매우 고심해야 하였다. 또한 촬영에 사용되는 흑백필름 구입비용과 촬영 필름의 인화비용도 적지 않은 지출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진한 컷 촬영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실측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 대상 건물을 조사하는 도중에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실측장이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더 이상 실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철수할 때에는 마지막까지 물 위로 드러난 건물의 모습을 부지런히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황배치도는 실측장에 목측을 통해 상황을 스케치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안동민속박물관 야외박물관 이필구택 이전공사 도면(좌), 안동민속경관지구 보수공사 배치도(우)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이전 대상 건물 중에는 수십 칸이 되는 건물도 적지 않았지만, 일몰 전에 실측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꼼꼼히 들여다 볼 틈도 없이 정신없이 실측 조사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무실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실측 정보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선전게서 야단치시며 빨리 현장에 다녀오라는 불호령을 듣고 다시 현장을 다녀오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였다.

건물의 이전공사 과정에는 설계사무소가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감독관과 시공회사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많았기에 원형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였는가는 사무소에서는 알 길이 없었다. 당시 문화재 공사에는 감리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설계도와 실측도면 사진이 전부 디지털화 된다면 현존하는 건물과 비교하는 연구 작업도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실측조사 할 때 전통건축의 기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부분의 기법을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지금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당시에는 백지상태에서 실측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

시간이 흘러 이전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전한지 얼마 안 되어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퇴락이 심하여 멸실 처리된 건물도 있었다고 기억된다. 훨씬 후의 일이지만 이전된 건물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또 다시 이전을 계획하는 건물도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요즘에는 드론 장비를 사용해서 공중에서 촬영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 있지만, 당시 항공사진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입수할 수 있는 사진이었다. 그나마 입수된 사진도 군사시설과 같은 보안이 필요한 시설은 사진에서 먹으로 칠해 볼 수 없게 만들었고 해상도도 매우 떨어져서 마을의 배치 사진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또한 민간건물에 대해서 공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돌이켜 생각하면 주민들의 손실이 막대하였고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에 몇몇 안 되는 건물이나 남겨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성된 도면임을 감안하고 도면자료를 접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하회마을·양동마을 조사보고서

1979년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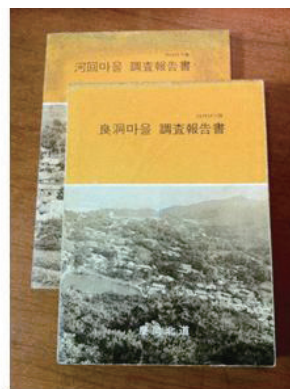
합학술조사가 진행되었다. 건축 문화재 분야에서는 최초로 건축물 실측 뿐 만 아니라 마을의 인문학적 조사가 병행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을의 건축조사는 사무실에서 담당하였고 인문학 조사는 이화여대 강신표 교수가 담당하였다. 마을 주민의 가계도, 마을 공동행사 뿐만 아니라 가호별 살림살이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심지어 세대 순가락 숫자까지도 조사되었으니, 지금으로써도 세밀한 조사가 아닐 수 없다. 한여름에 진행된 실측조사 때문에 직원들이 옷통을 벗기도 하였는데, 점잖지 못하다는 마을어른의 호통은 마을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듯하였다.

(表 20)

良洞의吉凶事時の協同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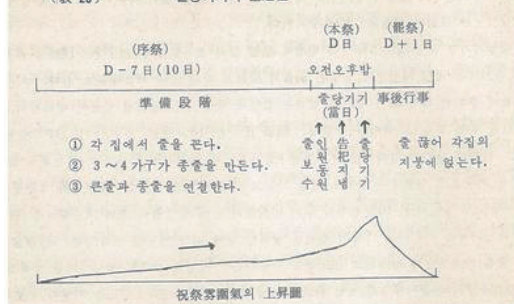
行事	扶助의 종류	兄弟姉妹 (子女)	近親(4~8寸)	遠戚(8寸以上)	契 員	이웃(他姓)
婚禮	現金 物品	2~5 萬원 (패물)	5,000~2 萬원 (옷감, 옛 한상 자, 유과, 감주)	2,000~3,000원 (엿, 유과)	2,000~3,000원 (술, 엿, 유과)	2,000 원 -
喪禮	現金 物品	3~5 萬원 (현, 수의)	5,000~1 萬원 (쌀 2~3 말)	3,000~5,000원 (술扶助)	2,000~3,000원 술扶助	2,000~3,000원 술扶助
祭禮	現金 物品	(長男支出) 술, 과일, 고기	(1,000~2,000원) 술, 어육, 과일	- 과일, 술	- 과일, 술	- 과일, 술
回甲	現金 物品	(長男은음식장만) 옷, 반지	(2,000 원) 과일, 술, 옷, 유 과	(2,000 원) 과일, 술, 옷, 유과	- 술, 담배	- -

* () 안의扶助内容은 從屬的인 것임.



(表 23)

절당기기의 全過程



양동마을·하회마을 조사보고서와 내용 일부 발췌

출처: 저자 소장 자료

도면 작성에서는 마을 전체의 측량자료를 한 장의 배치도로 수록하는 일도 큰 수고가 필요했다. 디지털 편집은 고사하고 복사기의 축소복사 성능도 우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배치도를 구역별로 분할하여 각각 수록하기로 하고, 이를 다시 축소복사 한 뒤에 어긋난 부분을 새로 그려가면서 배치도를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었다.

2010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당시의 조사는 1979년 11월에 보고서로 발간되었는데, 이미 30년 전의 일이 되었다. 이후에 이만큼 세밀한 조사 자료가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담아두는 작업은 두고두고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자기만족의 교훈으로 돌아온다.

고성왕곡마을 정비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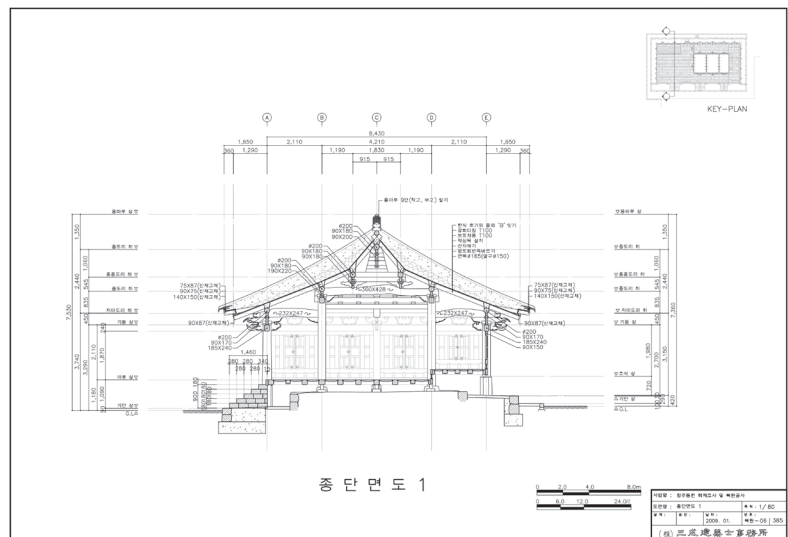
강원도 고성에는 왕곡마을이라는 민속마을이 남아있다. 서울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였지만, 사무실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설계를 전담하다 시피 할 수 있었다. 담당 공무원의 실무적 판단으로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한 연유였지만, 그 대가로 수의계약 수준의 용역비와 장거리 출장을 감수해야 했다.

고성왕곡마을을 수년간 왕래하면서 고성 지역 마을 건축의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이 많은 지역에서 폭설로 고립되더라도 집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부엌과 외양간이 연결된 주택 평면구성이나, 얇은 담장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 상부에 서까래를 놓고 이영을 엮은 것이 그 예이다.

간헐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민속마을의 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정비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강원대 박경립 교수가 연구를 주도하였고 설계는 삼성건축에서 맡을 수 있었다. 마을 한복판으로 접근하는 기존 진입로 대신 마을의 초입과 연결되는 구 진입로를 되살린 점이나, 민속마을로써는 처음으로 마을의 각종 전기설비를 지중화 하여 전봇대를 설치하지 않게 된 것은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리공사 마다 교체 부재에 스탬프를 찍게 하여 건물 자체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다. 경복궁 근정전 건물에 남겨진 당시 공인들의 묵서, 수원화성 방화수류정에 남겨진 일제강점기의 수리일자 묵서 등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였다. 기획 초기에는 현장에서도 술선수범하여 스탬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현재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던 중에 시공회사에서 사무실을 내방하여 복원설계도 작성과 공사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에 시공회사와 설계용역을 계약하였고 2008년 12월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준공되었다. 당초의 실측조사가 있는 지 10년이 경과한 시기에 해당한다.

그동안의 자문회의에서 문제시 하던 복원안 고증을 위해서 모형을 준비하였다. 실측한 도면을 바탕으로, 기둥의 장부구멍 전체를 캐드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뒤 오리고 접어서 기둥 부위만 종이로 모형을 만들었다. 기둥의 장부구멍을 대조하여 중방과 인방이 들어갈 위치에 종이로 만들어 붙였고, 각 공간의 기능에 따르는 창호와 다락 등을 함께 만들었다. 다행히도 자문회의에는 모형을 근거로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부분을 대부분 정리할 수 있었다. 물론 자문의견에 따라 몇 가지는 수정이 되었지만 복원안이 확정되자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었다. 실측조사에서 기둥 사면에 남겨진 흔적을 전부 조사하여 도면으로 만든 것이 위력을 발휘한 셈이다.



청주동헌 복원 단면도

출처 : 정원근(2009), 「청주동헌 해체 실측·수리공사보고서」 p.404



세장한 부재로 구성된 서측 합각부(좌), 동측 합각부(우)

출처: 저자 소장

법주사 대웅보전 해체복원설계

2002년에 수행한 법주사 복원설계는 초기에 부분적인 보수로 예정되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전면 해체공사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공사 전의 실측 조사와 함께 해체 기간 동안의 추가조사가 진행되었다.

전면 해체공사라는 기회를 맞아 각종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중량을 체크하기도 하였다. 대웅보전이 건립된 이래의 시간을 고려해 보면 사용된 부재들은 현실 속에서 완전 건조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들보 등 주요부재의 중량을 같은 크기의 최근 제작한 부재와 비교해 보면 함수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다만, 당시 공사 진행 상 참여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워 결국 보고서에 수록할 만한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었다.

대웅보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당시 물자 조달이 어려운 당시 상황 속에서도 건물을 품격 있게 완성하려는 목수들의 수고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적인 건물보다 부재를 세장하게 사용하거나 다양한 수종의 목재를 사용한 사례, 부재를 재사용하고 짧은 부재를 이어서 사용하는 등의 사례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도편수의 임기응변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된 건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수원화성 복원설계

1960,70년대 국방유적이라는 명칭으로 주요 성곽의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십여 년 동안 수원화성 복원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원화성은 한국전쟁 때문에 많은 시설이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복원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수원성곽정화사업 제1차 공사 평면도

수원시(1975), 『수원성곽정화사업 제1차 공사 설계도』 수록 도면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다행히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에 사진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화성 축성공사의 전말이 기록된 『화성성역의궤』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수원화성 복원설계는 본격적인 문헌연구를 통한 복원설계의 기회이면서, 영건의궤 기록정보의 성능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의궤는 독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두식 사전을 구입하였고, 한자에 조희가 깊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자료로 『영조법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타케시마 타쿠이치 竹島卓一가 저술한 『營造法式の研究(영조법식 연구)』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영조법식 자체는 중국 사료이지만, 관련된 중국 서적을 대만을 경유해서 구입할 경우 검열 절차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복원설계는 현장 실측자료와 의궤에 기록된 자료를 교차 검토하면서 진행되었다. 당시 원형에 가까운 평면 위에 벽돌을 쌓아올려 만들었던 동북공심돈은 전례 없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파된 상태였다. 내부에 방치되었던 흙과 벽돌을 걷어내어 평면을 확인하고, 의궤에서 전체적인 형태와 사용 재료를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까지도 온전하게 남아있던 사각형의 서북공심돈을 조사하여 벽돌과 내부 목재계단의 연결 방식 등 숨은 기법들을 확인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었다.

『화성성역의궤』는 설계사무실에게 천운과도 같은 1차 사료가 되었지만, 관계기관에게는 설계를 검수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완공 후 서울대학교에서 『화성성역의궤』와 복원된 건축물을 비교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설계 오류를 확인하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노대의 경우 지표 위의 높이가 자료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공사는 여장 옥개석 정도만 수리하였기 때문에 설계 실수가 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문화재 심의에서는 하나의 지붕에 우진각지붕과 맞배지붕이 함께 사용된 동북포루와 서북포루의 설계안을 설계사의 실수로 지적하였으나, 의궤 속 재용편에 수록된 내역에는 한 건물에 우진각 지붕에 사용되는 추녀와 맞배지붕에 사용되는 박공 판이 각각 2개씩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그대로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화성의 복원설계는 의궤가 중요한 자료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의궤의 내용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한 셈이다.

당시에는 발굴조사가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사가 필요에 따라 곡괭이와 삽을 들고 직접 확인하거나, 공사 중에 추가로 확인하는 등 전체 용역 기간 동안 최선의 고증작업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복원설계의 모든 결과는 1980년 간행된 『수원성복원정화지』에 수록되었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은 복원설계에 임한 각 고의 노력을 보상받는 듯하였다. 다만, 복원사업 당시 의궤에 기록된 연지蓮池를 확인하고자 의궤의 발걸음수를 따라 지표를 파보기도 하였으나 결국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여기에 관심 갖는 기관도 없어 그대로 잊혀 졌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제대로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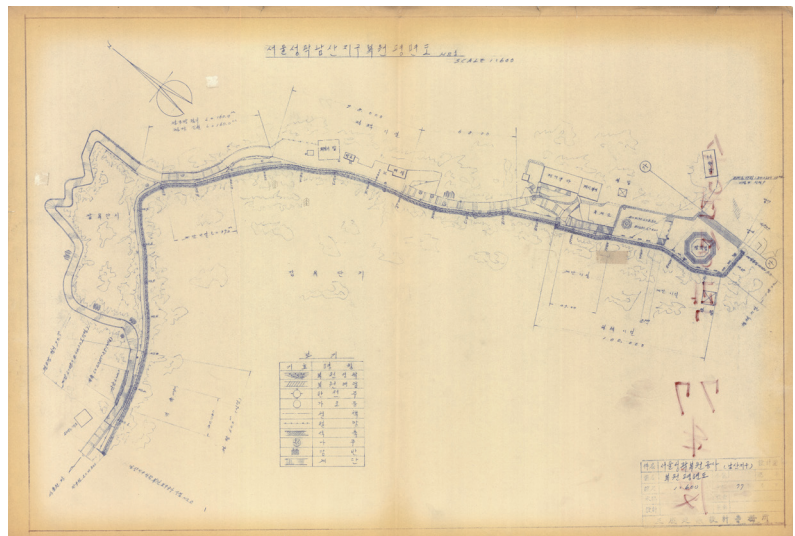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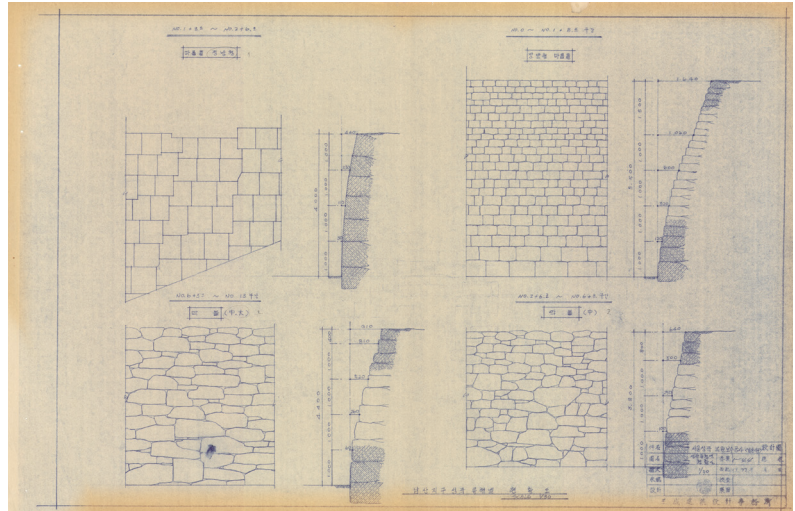


수원화성의 성벽 현황사진(1978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서울성곽 복원정비설계

서울성곽의 복원설계는 수도 서울의 대규모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로 전해지는 자료 없이 현장조사와 전문위원의 자문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수원화성과는 다른 부분이었다.



서울성곽 남산지구 성곽유형별 현황도(상), 서울성곽남산지구 복원 평면도(하)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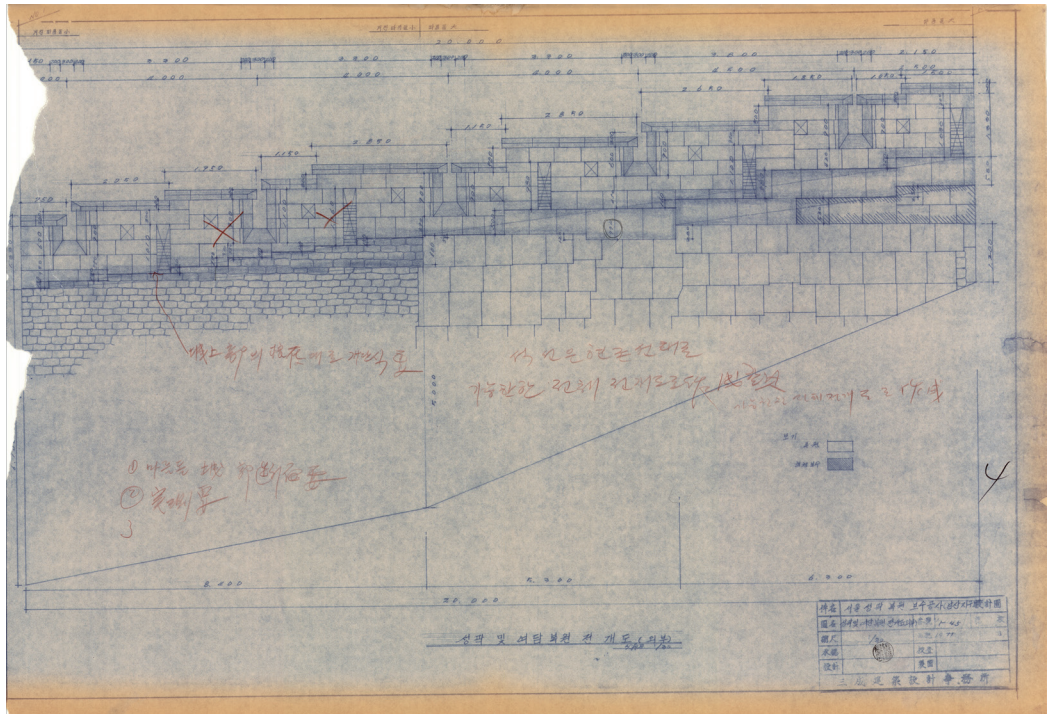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서울성곽을 축조할 때에 구역을 나누고 그 경계에 각자석을 남겼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고, 시대별로 다른 축조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숙종대 축조된 각진 성돌 구역은 현장조사와 도면작성이 모두 용이하고 오차도 적었던 반면, 그 이전의 자연석 성돌 구간은 훨씬 번거로운 작업이 되었다. 자연석 성돌 구역의 도면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전문위원 지적에 오기가 생겨 도면을 보완했던 기억이 있다. 복사기 성능도 좋지 않을 시기였기 때문에, 성곽을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을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기울인 환등기에 설치한 후 최대한 합리적인 축척이 되는 거리에서 비추고 벽에 종이를 붙여 도면을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연차별로 구역을 나누어 용역으로 발주된 복원사업에서 삼성건축사사무소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사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나 사무실의 도면 내용이 다른 설계사 도면 작성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는 뒷얘기는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는 보람이 되었다.

설계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견 중에서는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 서울성곽의 길이 측정의 기준을 성곽 하부 길이로 할 것인지 성곽 상부 길이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곡장과 치臺의 외부 둘레는 성곽 길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마 조사를 담당한 설계사에게 치수를 물어보는 의도였을 텐데, 설계사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둘째는 서로 다른 시기의 성돌이 만나는 부분에서 석재의 경계부에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시 시기가 다른 성돌이 만나는 부분에서 성곽 파손이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시공에서 도면대로 진행되는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었다. 복원설계도면에서 성돌 접합부를 합리적으로 완성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였지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북쪽 성곽의 군경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실측조사에서도 총을 멘 군인들의 감시를 받은 에피소드는 실측조사가 경험한 시대적 상황이었다. 사진을 찍어야 사무실에서 도면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데, 운영 중인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참 힘들게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 양식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교본과 같은 사업이었다.



서울성곽 남산지구 성곽 및 여담 복원 전개도(1977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실측조사의 도전

현장에서 실측조사를 진행할 때면 직원들에게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변형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파악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장에서 해석되지 않은 문제를 사무실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직원들 개개인이 건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사무실의 역할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특히 실측 시에 주칸 간격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였다. 건물 조성 당시의 영조척을 파악할 수 있으면, 시대에 따라 영조척이 변하는 추이와 비교하여 대략의 건립시기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목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쇠시리나 철물 등의 디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도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설계자가 정확한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응용과 도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직원들에게도 디테일에 대한 토론을 자주하였던 기억이 있다. 이와 함께 디테일의 사례를 정리하고 다음 설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테일 자료로 만들어 둘 것을 강조하였다. 디테일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하였으나 자료집으로는 발간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일이다.

또한 문화재 건물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변경과 자연적 요인에 의한 변위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그런 까닭에 직원들이 먼지구덩이인 대형 밀을 기어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고 실측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놓치기 쉬운 부분을 파악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는 결과는 성실한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보수할 대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함으로써 공사를 맡은 시공회사에서도 사무소의 설계도서를 신뢰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뿌듯함을 맛보기도 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미리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책임지고 실측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두었다. 때문에 문화재 보수기술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시공회사로 이직하여서도 유능한 직원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때로 이직한 직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후배 직원들에게 회식 자리를 만들고 사무실에 대한 자긍심으로 후배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 되었다.

실측설계는 온전히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진행되는 일이다. 삼성건축사사무소를 거쳐 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수한 기술자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은 소장이 누릴 수 있는 인재양성의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승례문 실측조사와 화재수습

국보 1호로 지정된 승례문은 2008년의 어이없는 방화를 당하였다. 화재 초기 많은 소방차가 당도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결국 무너져 내리는 참사로 귀결되었다. 전 국민이 안타깝게 기억하는 참사였으며,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의 문화재를 점검하고 문화재 보호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큰 변화를 유도하였다.

화재 후 개최된 국회 청문회에서 승례문의 실측도면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화재청이 실측도면이 있다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큰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승례문의 안전관리는 중구청이 담당하고 있었다. 2년 전인 2006년에 납품된 정밀실측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구청과 문화재청이 그나마 최소한의 준비는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때에 주목받은 실측도면은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인데, 승례문의 실측조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2005년에 승례문 보수를 위한 예산이 중구청에 배정되었으나 현장을 점검해 보니 보수할 여건이 안 되어 예산을 반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에 필자는 서울시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구청의 자문요청을 받고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당시의 승례문은 보수할 사항이 경미하므로 보수공사는 불가하지만 모처럼 배정받은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차제에 배정된 예산으로 정밀실측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중구청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정밀실측조사가 진행되었다. 국보로 지정된 건축문화재의 실측조사용역이라면 문화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예산이 중구청에 이미 배정되었기 때문에 실측조사용역을 중구청에서 발주하였다. 당시의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로 공개되어 요건을 갖춘 설계사무소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었는데, 운 좋게도 사무실에 낙찰되었다. 이렇게 개시된 용역은 2006년 2월 실측도면과 함께 실측보고서를 중구청에 납품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보수공사의 예산이 배정된 것도 일종의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그 예산으로 실측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구청과 문화재청이 큰 책임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었다.

화재 후에는 실측조사를 담당했던 삼성건축이 긴급조사팀으로 요청을 받아 현장을 조사하여 피해부재와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현장에서 기증기로 무거운 부재를 들어올리기 전에 부재를 촬영하고 형태를 스케치하였고 탄화된 부분을 핀으로 찢어서 탄화된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록하고 부재에 번호를 부여하는 등 숨 가쁘게 조사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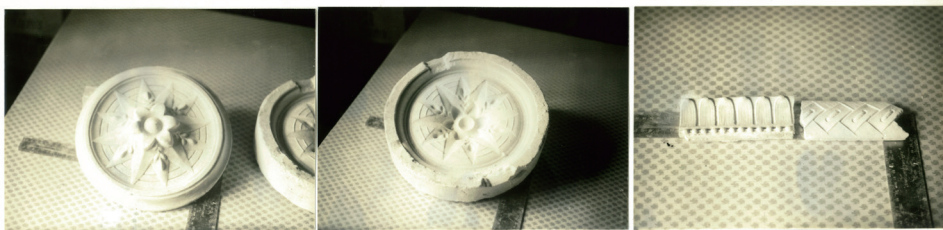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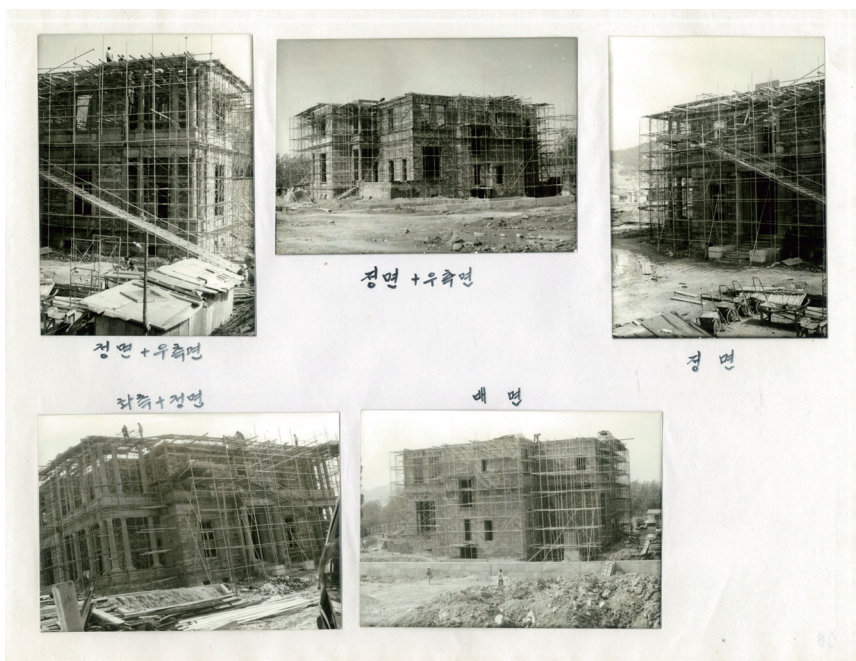
부재를 정리 보관할 임시창고가 긴급히 마련되고 창고에서는 다시 전체 부재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과 기록을 진행하였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부분 보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재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통상의 실측조사에서 유례없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복원안이 마련되었으나 복원을 위한 설계용역은 다른 사무소에서 낙찰되어 매우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화재 후 수습과정에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승례문 화재수습부재 조사보고서」로써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주하고 삼성건축과 한국건축역사학회의 공동 연구로 2009년 7월에 납품되었다. 문화재의 화재수습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라현 문화재보존과의 주선으로 사례 현장을 탐방하였고 일본 문화청文化庁 회의실에서 질의응답을 한 내용도 보고서에 함께 수록할 수 있었다.

구 벨기에 영사관 복원설계

구 벨기에 영사관은 1905년 중구 회현동에 건립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어 상업은행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상업은행은 구 벨기에 영사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여 지금의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목조건축이 아닌 조적조 건축의 이전 복원설계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국내 문화재설계 분야에서도 상징적인 작업이었다. 1979년 원래 자리에서 옆으로 이전한 독립문 이전설계도 담당한바 있지만, 건축물로써는 처음인 일이었다. 덕분에 벽돌쌓기 방식을 비롯한 조적조 근대건축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실내의 천장고가 높아서 천장 물당을 실측조사 할 때에는 다른 건물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특징이었다. 이때의 근대건축물 설계 경험이 바탕이 되어 1995년 혜화동 구 공업전습소 본관 건물의 보수설계, 1997년 뚝도정수장 보수정비설계를 맡을 수 있었다.



구 벨기에 영사관 이전공사 및 장식부재 사진(1981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한국의집 신축설계

한국의집은 1973년에 설계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궁궐건축과 관아건축을 모범 삼아 본격적인 한옥 연회장으로 설계하였다. 당시 한국적인 접객 장소는 소위 요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고유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종합적 영빈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해월관은 대형 대들보를 사용하여 목조 대경간을 구성한 선도적인 사례이다. 로비 기능을 위해서 불가피한 공간의 크기였으나, 구조계산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구조계산은 허용응력에 기초하고 있으나, 목조건축은 전단력이 취약하여 일반적인 허용응력 계산으로는 보의 높이가 과다하게 나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들보는 수입목재를 사용하였고, 보목 부분의 단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두를 비롯한 접합부의 치목을 다소 다르게 하였다.

한국의집은 신축설계였기 때문에, 완공 이후에도 운영자 측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건물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부친의 회혼례를 한국의집에서 열었던 일이나, 운영자 측에서 과거 도면을 여전히 소장하고 있는 사무실에 감탄했던 일은 이 건물에 대한 남다른 기억으로 남아있다.

맺음말

도면자료도 50년 정도 지나면 도면 자체가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계도서를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보관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한양대학교로 이관되어 자료보관에 대한 염려는 없어지게 된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바라기는 이 자료들이 모두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지속되어 후학들의 연구자료 또는 실무용 참고자료로 손쉽게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연구하거나 정리한 결과물도 공개되어 지속적으로 자료가 축적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자료 중에는 도면만 남아있고 건물은 사라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전에 작성된 자료를 재인용하면서 도면의 작성시기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를 위해서 도면자료의 성격에 따른 해제작업도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근래에 사회적으로 도면자료의 아카이브 작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화재청과 같은 기관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면 좋겠다.

지나간 도면을 회고하면서 잊었던 옛 추억을 많이 회상할 수 있었다. 이만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관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건축 분야의 연구에서 삼성건축의 도면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주요 성과와 관련 보고서 목록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한 각종 실측조사 보고서가 연구자들의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사무실의 보고서 발간 실적 목록을 첨부한다. 1976년도 “도성내 민속경관지역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부터 2016년 “창덕궁 낙선재 일곽 정밀실측 보고서”까지 총 74종의 보고서가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수록된 도면, 사진과 원고 일체는 사무실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실측조사 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목록은 연대 순서에 따라 명칭, 납품연월, 발주처, 비고의 순서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비고란의 ‘도면납품’이라는 설명은 원도를 발주처에 제출한 경우로써 삼성건축 아카이브에는 복사본 또는 청사진 본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타 기관과 협업을 하였거나, 특수한 양식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병기하였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주요 성과와 관련 보고서 목록

순번	보고서(내용) 명칭	납품연월	발주처	비고
1	도성내 민속경관지역 조사연구 보고서	1976. 12.	서울시	
2	하회마을 실측조사 보고서	1979. 11.	경상북도	
3	양동마을 실측조사 보고서	1979. 11.	경상북도	
4	수원성 복원 정화지	1980. 12.	경기도	
5	석탑 복원 보고서 성주 보월동 3층 석탑 / 청도 장연사지 3층 석탑 경산 선분암 3층 석탑 / 안동 임하동 동3층 석탑	1981. 01.	경상북도	복원설계
7	창경궁 발굴조사 보고서	1985. 11.	문화재관리국	발굴도면 및 보고서 작성
8	월정교지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보고서	1986. 12.	경주시	전과정 수행
9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실측조사 강릉 경포대 실측조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실측조사	1987. 09.	강원도	도면납품
10	봉정사 대웅전 실측조사	1987. 12.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11	김남명 철거가옥 실측조사 보고서	1987. 09.	명주군	도면납품
12	강원도지정 목조 문화재 실측조사 1. 보현사 대웅전 / 2. 월정사 적멸 보궁 / 3. 보진당	1987. 12.	강원도	도면납품
13	부동산 문화재 실측조사 (봉정사) 1. 고금당 / 2. 화엄강당 / 3. 만세루 / 4. 요사채	1988. 01.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14	동래향교 실측조사 보고서	1989. 03.	부산직할시	도면납품
15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남한산성 수어장대·청량당 / 수원행궁 낙남헌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천보루 /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1989. 12.	경기도	도면납품
16	석남사 영산전 실측조사	1988. 12.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17	불갑사 대웅전 실측조사	1989. 12.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18	관룡사 대웅전 실측조사	1990. 11.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19	봉은사 설선당 실측조사	1990. 12.	서울특별시	도면납품
20	인천시 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1. 인천향교 2. 부평향교	1991. 1.	인천직할시	도면납품

순번	보고서(내용) 명칭	납품연월	발주처	비고
21	대비사 대웅전 및 삼층석탑 실측조사	1991. 12.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22	경주 분황사 석탑 실측조사 보고서	1992. 03.	문화재관리국	도면납품
23	청룡사 대웅전 실측조사	1992. 12.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24	운현궁 실측조사 보고서	1993. 12.	서울특별시	도면납품
25	범어사 대웅전 및 일주문 실측조사	1993. 12.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26	해화동 한옥 실측설계	1994. 01.	삼우설계	도면납품
27	범어사 대웅전 단청, 벽화 문양모사 및 건물 실측조사 보고서	1995. 01.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면납품
28	해미읍성 복원 및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1995. 11.	충남서산시	도면납품
29	정혜사 대웅전 실측조사	1995. 12.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30	문학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7. 08.	인천광역시	도면납품
31	하동 고소성 정비사업 지표조사 보고서	1997. 11.	하동군	도면납품
32	대청진 복원계획 조사보고서	1997. 12.	웅진군	도면납품
33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 화성 팔달문(보물 제 402호), 화서문(보물 제 403호)	1998. 09.	경기도	도면납품
34	청주동헌 실측조사 및 복원계획 보고서	1998. 10.	청원군	도면납품
35	부여 무량사 극락전 및 일각 실측조사	1998. 12.	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36	청주동헌 실측조사 및 복원설계보고서	1998.	청원군, 청원향토문화연구회	도면납품
37	98년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1999.	경기도	도면납품
38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 남한산성 - 송열전,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동문, 남문, 지수당	1999. 7.	경기도	실측조사
39	99년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2000.	경기도	도면납품
40	(울진) 불영사 대웅전 실측조사 보고서	2000.	문화재청	도면납품
41	안성객사 해체·중건공사 보고서	2000.	경기도 안성시	도면납품
42	강원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원주 용소막성당, 영월 보덕사 극락전)	2000. 11.	강원도	도면납품

순번	보고서(내용) 명칭	납품연월	발주처	비고
43	Historic Structures Report, American Legation Building in Seoul, Korea	2000. 12.	미대사관	실측조사, 복원설계
44	영원 정자각 및 비각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01.	문화재청	도면납품
45	영천향교 대성전 실측조사 보고서	2001.	문화재청	도면납품
46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계획 보고서	2002.	문화재청	도면납품
47	아산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2002.	충남 아산시	도면납품
48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 보고서(上,下)	2003.	문화재청	도면납품
49	선운사 대웅전 실측조사 보고서	2005.	문화재청	도면납품
50	법주사 대웅전 실측, 수리보고서(上,下)	2005.	문화재청	도면납품
51	별관(구, 공업전습소 본관) 수리보고서	200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면납품
52	광통교 복원설계 보고서	2005.	서울특별시	도면납품
53	Old American Legation Building(구,미국대사관지)	2005.	미국대사관	도면납품
54	송례문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2006.	서울시 중구	도면납품
55	살곶이다리원형보전및주변환경개선을이한기본계획	2006.	서울시 성동구	도면납품
56	고송 육송정 홍교 정비사업 수리보고서	2006.	강원도 고성군	도면납품
57	진도 상만리 5층석탑 정밀실측 및 안전진단 보고서	2007	전남 진도군	정밀실측
58	청연사 실측조사 보고서	2007.	(주)에덴건설	실측조사, 보고서 작성
59	경복궁 변천사 학술조사 보고서(上,下)	2007.	문화재청	도면납품
60	경운궁 양이재 수리보고서	2008.	서울시 중구	도면납품
61	반계 윤웅렬 별장 수리보고서	2008.	서울시 종로구	도면납품
62	도정궁 경원당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2009.	서울시 광진구	도면납품
63	청주동헌 해체 실측수리공사 보고서	2009.	충북 청원군	도면납품
64	2009년도 제1호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정무공 오정방고택)	2009.	경기도 안성시	도면납품

순번	보고서(내용) 명칭	납품연월	발주처	비고
65	2009년도 제2호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죽산향교 및 서흥김씨상강정문)	2009.	경기도 안성시	도면납품
66	송례문 화재 수습부재 조사 보고서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도면납품
67	구세군 중앙회관 정밀시측조사 보고서	2010.	서울시 중구	도면납품
68	서울특별시 청사 정밀실측 보존 복원계획 보고서	2010.	서울특별시	도면납품
69	반계 윤웅렬 별장 사랑채 보수 및 주변공사 수리보고서	2010.	서울시 종로구	도면납품
70	양천향교터 목조건물 정밀실측	2011.	서울시 강서구	도면납품
71	경복궁 석조조형물 기초조사연구 보고서	2011.	문화재청	한국문화재 보존연구원 공동
72	화계사 대웅전 정밀실측보고서	2012.	서울시 강북구	도면납품
73	2013년도 문화재실측조사 보고서 (평창향교)	2013.	강원도	도면납품
74	창덕궁 낙선재 일곽 정밀실측 보고서	2016.	문화재청	도면납품

출처 : 저자 작성

5

1970년대 건축문화재 수리·복원과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설계업무 -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학술적 가치





김 동 욱

머리말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의 전개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수리·복원 설계 활동

1970년대 수리·복원 사업과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가치

맺음말

5

1970년대 건축문화재 수리·복원과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설계업무 -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학술적 가치

머리말

삼성건축사사무소는 1965년 설립 이래 일관되게 우리 건축문화재의 수리와 복원, 정비 작업을 50년 넘게 해 왔다. 삼성건축사사무소가 50년 넘게 수행한 모든 작업 내용은 그 동안 사무실에서 힘들여 보관해 오다가 지난 2016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자료실로 이관되었다. 한동수 교수 연구실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의 노력으로 수십 만 점의 자료 목록이 만들어지고 1만 2천여 건의 도면과 자료가 디지털화 되었다고 전한다. 우리 건축계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흔한 일이 아니며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일이다.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광복 후 한 동안은 정치적인 어려움과 6.25전쟁의 혼란을 겪으면서 문화재를 돌볼 겨를이 없다가 겨우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 1960년대에 와서야 문화재를 보호할 법령이 제정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다만, 60년대에는 긴급을 요하는 몇 군데 건물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문화재수리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문화재를 수리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 시기에는 그 사이 방치되어 있던 많은 중요 문화재는 물론이고 국토를 방위하던 역사적 유적이 나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선현들의 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불국사 같은 불교유적에 대한 복원과 정비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의 역사에서 1970년대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업이 벌어지고 중요한 유적들에 대한 수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바로 이 시기에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건축문화재 수리의 설계 업무를 담당 한 곳이 삼성건축사사무소였다.

1980년대 이후가 되면 건축문화재 수리는 70년대와 같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사업은 사라지는 대신 매년 일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유지되어 나갔다. 특히 지방 각 자치단체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2000년대로 가면서 문화재 지정은 다양하게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문화재 수리 역시 기술적으로나 방법상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설계 활동은 활발하게 지속되었으며 그 활동은 지난 2016년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번에 한양대학교에서 정리한 삼성건축 아카이브는 1970년대의 설계활동은 물론 사무소 설립부터 2016년 업무를 마친 시점까지 사무소가 생산한 거의 모든 자료가 망라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수리의 주요한 역사를 담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문화재 수리와 복원 관련 자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글은 삼성건축 아카이브가 갖는 학술적인 의의를 다루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다만, 방대한 모든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뿐더러 사무소 설립부터 종료까지 무려 50여 년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일도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1970년대에 한정해서 이 시기 건축문화재의 수리·복원이 갖는 의미와 이 기간 동안에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업무의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아카이브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의 전개

1960년대 이전

1945년 광복에서부터 1960년대 말 사이 25년은 우리나라 건축문화재의 수리사업에서 체제를 정비하고 그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문화재 보존을 담당할 정부 행정기구가 정비되고 법규가 제정되었다. 이런 행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서히 건축문화재의 수리사업이 시작된 것이 1960년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일을 수행할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또 나라 경제 여건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두드러지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재 수리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발령하여 전국의 주요 건물들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수리사업을 벌였다¹. 사업은 전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소수 한국인 기술자가 공사에 참여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미군정 치하에서 나라 행정이 유지되었으며 문화재 업무는 소관이 뚜렷하지 않은 채 국립박물관이 그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문교부 교도과가 관련 업무를 관장하다가 1955년에는 문교부 내에 문화보존과가 일을 관장하였다.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이 치열한 양상을 전개하는 동안에 국내 문화재는 거의 방치되어 있었다. 나날이 훼손이 진행되었지만 보존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못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문화재 수리의 책무는 갓 태어난 신생 정부에게 맡겨졌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몇몇 시급한 건물의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수원 팔달문을 비롯해서 몇몇 목조건물들이 거의 응급조치 수준으로 수리되었다.

1950년에 벌어진 6.25전쟁은 건축문화재에 치명적인 손상을 안겨주었다. 중요한 목조문화재가 폭격으로 파괴되고 석조문화재 상당수도 파손을 입었다. 3년간의 전쟁이 휴전으로 막을 내렸지만 전란의 후유증은 오래 갔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주변 문화재에까지 눈길이 미치는 여유를 찾은 것은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였다. 1958년에 시행된 강진 무위사 극락전 수리는 6.25 이후 우리 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 번째 건축문화재 수리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61년에는 서울 남대문 수리가 시작되었다. 서울 남대문은 6.25전쟁으로 심하게 파손되었다. 남대문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재였으며 그 복구는 시급을 요하는 과제였다. 1961년에 가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서울시가

¹ 이 보다 앞서서 1916년에 조선총독부령으로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이 제정되었지만 이 규칙은 유적지의 무단 점유나 훼손을 막는 정도의 내용이었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1934년 보존령으로 볼 수 있다.

공사에 착수했으며 서울시 산하 교육위원회가 일을 주관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광복 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해체수리였다. 공사는 1963년에 완공되었으며 이 공사는 흐트러졌던 기술 인력들이 한 현장에 모여서 기량을 다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61년에 문교부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설립되었다. 기구 설립의 주목적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던 구황실재산관리를 통합하는데 있었지만 기구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업무의 체계도 정비될 수 있었다. 이듬해 1962년 정월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그 이전까지 문화재보존은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보존령을 준용하는 수준에 있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보존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1963년에는 건축사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런 법령은 모두 건축문화재 수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이었다. 이 법규 제정에 따라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작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또 수리 공사를 담당하는 작업 역시 건설업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런 행정적,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기까지는 문화재 수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나라 재정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1950년대까지 미국의 원조에 의해 겨우 운영되던 나라 살림은 60년대에 들어가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1962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1966년 2차 5개년 경제개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경제 우선 정책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 재선한 박정희는 경제성장과 함께 정신적인 각성과 함께 민족문화를 높이 세우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1968년에 정부기구에 문화공보부를 두고 문교부에 속해 있던 문화재관리국을 문화공보부 산하로 옮긴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 정책을 예고하는 일이었다.

이미 1966년 3월에 대통령은 아산의 이순신 유적지를 방문하여 현충사를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969년 4월에는 도산서원의 정비를 지시했다. 현충사는 이 충무공의 외가 후손들이 살던 곳으로 1932년에 중건한 사당이 남아있었다. 이곳을 들른 대통령은 문화재관리국장에게 현충사의 경역을 넓히고 사당을 새로 짓고 주변을 정비하여 현충사를 성역화 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1969년에는 도산서원의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은 건물 세부의 수리와 유물전시관 건

립 등을 직접 구상하고 지시하였다. 그 이듬해인 1970년은 퇴계 이황이 타계한지 4백주년이 되는 해였다. 도산서원과 충무공 유적은 문과 무를 상징하는 곳이었던 셈인데, 이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국방유적 정비와 유교선현 유적 정비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기도 했다. 뒤를 이어 1969년 5월에는 대통령이 불국사를 방문하여 그 정비를 지시했다. 국방, 선현에 이어 불교유적 정비까지 아우른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중요한 건물들에 대한 수리의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었다. 장기간 방치되는 사이에 건물의 이완이나 부식이 진행되어 더 이상 그대로 두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건물들이 적지 않았다. 1966년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는 법주사 팔상전의 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문화재관리국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1968년에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봉정사 극락전의 수리를 요청했다. 두 건물은 하나는 유일한 목조 5층탑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가장 오랜 목조건물이므로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대상이었다. 법주사 팔상전은 몇 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공사 범위와 방법 등을 토의하여 1968년 5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1969년 12월에는 준공을 보았다. 서울 남대문에 이어 1960년대에 있었던 중요한 건축문화재의 수리였다. 다만, 봉정사 극락전은 일단 수리를 위한 설계도서는 작성했지만 공사 방법 등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 바로 착수하지 않고 3년을 기다려 1972년에 해체공사를 시작하여 74년에 준공을 보았다.

1970년대의 본격적인 문화재 수리와 복원

1960년대 말에 시작된 문화재의 수리와 정비사업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국방유적과 선현 관련 유적 외에 크고 작은 건축문화재에 대한 소규모 수리들이 연이어 벌어졌으며 문화재관리국은 이를 위해 연차적인 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70년 초에 와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지방문화재 지정 항목이 추가되면서 서울특별시와 도 단위로 지방문화재의 지정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외되어 있던 건축문화재들이 대거 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그 지정 건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1971년 박정희는 집권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여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60년대에 추진한 경제 개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이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은 1971년 6월 경주를 방문하여 경주를 민족문화가 살아있으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경주관광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경주 일원의 유적을 13개 지구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복원, 정비하고 경주

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경주를 관광도시로 개발하도록 하고 관광객의 방문에 대비하여 위락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유적 정비와 함께 발굴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천마총, 황남대총 같은 신라시대 무덤과 안압지, 황룡사 등 신라의 대표적 유적에 대한 발굴이 착수되었다. 경주에 이어 제주도의 관광개발도 계획되었다.

1975년에는 전국의 주요 성곽을 대상으로 국방유적에 대한 복원, 정비가 추진되었다. 이미 1970년에 행주산성에 대한 복원이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졌고 1974년에는 수원성곽에 대해 복원정비가 지시되어 이듬해부터 복원에 착수하였다. 수원성곽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시설 대부분이 무너지거나 멸실된 상태였는데, 1975년부터 5개년에 걸친 복원으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서울 성곽의 복원정비도 이루어졌다. 1976년에는 연두순시 때 강화도의 전적지에 대한 정비 지시가 내려졌다. 갑곶돈대, 초지진 등 전적지와 고려궁지 정비, 강화성 문루 복원이 추진되어 1997년 준공을 보았다. 아울러 임진왜란과 관련한 유적으로 칠백의총, 만인의총 정비가 이루어지고 김덕령 장군, 광재우 장군, 정기룡 장군 유적지에 대한 정화사업이 진행되었다. 뛰어난 학자들의 유적지도 복원 정비대상이 되었다. 율곡 이이의 탄생지로 알려진 오죽헌의 성역화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직접 유적 정비 방안을 비롯해서 식목계획까지 지시하였다.

1977년에 와서는 문화재관리국의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3개년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유적을 정비하는 방안도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재연구소에서는 보수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작업을 하고 보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을 A, B, C로 등급을 나누어 우선순위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졌다. 이 사업계획을 통해서 서울성곽, 관문성, 해미읍성, 고창읍성, 상당산성 등 15군데 성곽이 보수되었고 충효선현 유적으로 황희, 송시열, 김장생, 조식, 정약용, 김정희, 유형원, 정몽주 유적 등 30여 곳이 정비되었다. 또 유적을 중요 문화권으로 나누어 경주권 신라문화유적, 제주권 탐라문화유적, 가야문화권, 백제문화권으로 나누어 보수계획이 세워지고 그 밖에 세종대왕릉역, 수원 화령전, 정족산 사고지, 강화 선원사지, 오대산 사고지, 강진 도요지 등이 정비의 대상이 되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방문화재 지정은 수많은 지방 건축문화재의 수리사업을 유발하였다. 지방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의 종류로 구분하여 그 동안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던 유적들의 문화재지정과 보호가 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의 문화재 지정은 곧바로 당해 문화재의 수리로

이어졌다. 지방의 문화재들은 그 동안 거의 정부의 보호 손길 밖에 있으면서 문중이나 개인의 관리 아래 있었고 본격적인 수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지정된 지방문화재는 각 지역에 따라 유형의 차이를 보이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오래된 가옥 외에 문중의 서당이나 재사 같은 유교 시설이 많고 경상남도는 국가 지정에 이르지 못했던 불교사원 유적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경기도 같은 곳은 다른 지역에 없는 무덤의 지정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통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향교와 서원이었는데, 특히 향교는 조선 시대 각 군현마다 지어졌고 지역 유림에서 시설을 유지관리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건축문화재 수리는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도 굵직한 정부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70년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크게 줄어든 대신에 매년 일정한 범위의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의 수리공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문화재 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방문화재 지정은 괄목할 증가세를 보였다. 그에 따른 건물 수리도 해마다 늘어났다. 이런 여건 속에서 문화재 수리에 종사하는 인력도 늘어났다. 90년대에 들어오면 궁궐의 수리와 복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궁궐의 복원은 언론이나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으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90년대에 시작된 주목할 일이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2000년대에 들어가서 한층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1980년이 되면서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익산 미륵사지의 발굴이 있다. 그 사이 주요한 발굴은 주로 경주 주변의 신라 유적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백제 유적에 대한 대규모 발굴사업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80년에 시작된 발굴은 무려 17년이나 지속되어 1996년에 마무리 지었다. 단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가장 긴 것이 아니었나 싶다. 발굴이 진행되는 와중에 동탑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동탑 복원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1991년 착수하여 93년에 준공을 보았다.

미륵사지 외에는 1980년대의 주목할 만한 대규모 사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소규모 수리가 거의 전국에 걸쳐 해마다 진행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이

주관하여 수리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이듬해에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갔으며 지방 지정 문화재는 각 시도에서 역시 미리 대상과 공사 범위를 정해서 이듬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설계사무소가 수리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고 예산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회사가 낙찰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공사 변경이 따르고 또 예산 집행을 당해 연도 별로 집행해야 하는 회계규정 등에 얽매어서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문화재 수리공사는 안정적으로 공사 규모와 절차를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와서 문화재 지정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1970년대까지 문화재 지정은 산발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 지정은 일제강점기에 잘 알려진 유명 유적 중심으로 한 차례 지정이 이루어지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일제 때 지정된 유적들을 거의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틀이 잡힌 이후 1970년대까지는 큰 증가가 없었다. 1980년대에 와서 문화재관리국은 이전처럼 산발적인 지정방식을 탈피하여 사전에 전국적인 기초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지정 대상을 압축하여 문화재를 지정하는 작업을 펼쳤다. 1984년 85년 사이에는 그 동안 문화재 지정에서 도외되어 있던 궁궐의 지정이 이루어져서 국보와 보물 13동이 지정되었다. 전국의 불교 사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시행되어 석탑 30여기와 목조건물 16동이 보물로 추가되었다. 1977년부터 시작된 근대건축에 대한 문화재지정도 눈여겨 볼 사업이었다. 서울역을 비롯해서 구 한국은행 본관 건물 등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은 그 동안은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70년대 말에서 80년대로 가면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 유형에서는 이들 근대건축은 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 전통적으로 보물은 목조건물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조나 벽돌조 건물을 보물로 지정하는 데에 인식의 저애가 있었던 듯하였다. 지방 문화재 지정은 한층 활발한 양상을 띠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지방 문화재 지정은 80년대에 와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살림집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것도 1980년대의 큰 성과로 기록할 만하다. 살림집은 지었다가 사라지기 일쑤이고 생활의 편이에 따라 증축과 개축이 거듭되기 때문에 원형을 오래 간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살림집을 문화재로 인식하는 자세는 1970년대까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오면서 오랜 살림집의 급격한 소멸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서둘러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이미 1979년에 와서 중요민속자료로

살림집 40동이 한꺼번에 지정되었으며 1983년에는 전국 2,332건의 조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이 가운데 1,129건을 문화재관리국이 조사를 맡고 나머지는 해당 시도에서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84년에는 문화재관리국이 중요민속자료 85동을 일시에 지정하고 나머지를 각 시도에 지방 문화재로 지정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을 자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1984년에 안동 하회마을에 이어 제주 성읍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뒤를 이어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등 지방 시도에서도 마을에 대한 문화재지정이 이루어졌다.

문화재지정이 늘어나는 것은 문화재의 수리 사업의 확대를 수반하였다. 일단 지정된 문화재는 한 차례 이상 수리를 하게 마련이었다. 낡고 썩어서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재는 교체하고 또 후대에 첨가되어 원형이 훼손된 부분은 철거하는 등의 일이 진행되었다. 특히 살림집의 경우에는 원형을 벗어난 증개축이 많아서 지정 이후에 한 두 차례의 수리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공사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건축문화재의 수리에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80년대까지 궁궐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라는 인식이 컸고 궁궐을 문화재라는 관점으로 보는 시각은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창경궁은 벚꽃 구경을 하는 곳이거나 동물원으로 인식하였고 덕수궁은 도심의 작은 공원 정도로 취급되었다. 경복궁 역시 박물관이 들어선 넓은 빈터로 취급되어 각종 단체 모임 장소로 즐겨 이용되었다. 창덕궁만이 한차례 내부 정비를 한 후 제한된 공개를 하면서 관리되고 있었다. 1984년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창경궁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이사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5년부터 3년에 걸쳐 창경궁의 원형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궁궐의 원형 회복 사업이 시작되었다. 1989년부터는 창덕궁의 일부 영역이 복구되었다. 다음 순서로 경복궁이 원형 복구의 대상이 되었다. 마침 1995년 광복 50주년에 맞물려 궁내 중앙에 있던 조선총독부 청사가 철거되면서 경복궁의 원형 복구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국회는 특별회계를 승인하여 이후 20년 동안 경복궁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1차적인 복원 사업의 마무리는 2010년에 있었던 광화문의 원위치 복원으로 장식되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종묘를 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문화유산 제도는 1975년에 제정된 것으로 나날이 증대되는 산업화와 도시 개발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범세계적인 협의를 구축하는 일환의 하나였다. 이미 유럽이

나 미주 대륙 및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여 자국 문화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여 국제적인 규준에 맞춘 유산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고 그 중 유적이거나 건축물은 주로 문화유산으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야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유산 등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다가 1995년에 가서야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을 등재하는 결실을 보았다. 뒤를 이어 1997년 창덕궁, 종묘, 수원화성이 지정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는 국제적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관광객 유치의 경제적 효과도 컸다. 이에 자극 받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하여 유산 등재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 성과는 경주역사문화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지구2015, 한국의 산사2018 등의 등재로 이어졌다.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미리 유적 주변을 정비하는 등 수리와 원형복원을 위한 작업이 수반되지만 등재 이후에도 주변 정비를 비롯해서 유적에 대한 다양한 손길이 가해진다. 더욱이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 유적지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관광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놓칠 수 없는 호재가 된다. 덕분에 각 지방 자치 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세계유산에 등재할만한 유적이 없는지 살피고 이를 명분으로 해서 적극적인 유적지 보수와 정비에 예산배정을 아끼지 않는다.

근래에 와서는 세계유산 등재가 유산의 보호에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등재된 유적지 주변에 있던 비슷한 수준의 유적지가 등재에서 탈락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훼손되거나 가치가 무시되는 사태들도 나타나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대다수가 염원하는 일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등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전히 많은 유적지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명분으로 수리나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수리·복원 설계 활동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설립과 장기인

삼성건축사사무소는 1965년에 장기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정부의 문화재 수리 사업도 활발하지 않았고 아직 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였다. 따라서 설립 초기의 전망은 반드시 낙관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다만, 장기인은 이미 건축계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았고 대학의 교육 경력도 가졌을 뿐 아니라 「건축용어집」을 비롯한 여러 학술서적을 내어 기술이나 학술 양면에서 건축문화재 수리와 보존의 중추 역할을 할 준비를 착실하게 다진 상태였다.

2017년 삼아성건축사사무소 삼성건축사사무소는 2010년 사명을 삼아성건축사사무소로 고쳐다에서 제작한 자료집에 의하면, 장기인은 1916년 생으로 1938년 경성고등공업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을 졸업하고 잠시 경성부청 서울특별시청의 전신에 근무하다가 조선공영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943년에는 건축대서사 면허건축사면허를 취득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한동안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1950년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자영했다. 그 해 6.25 동란이 터지고 한 동안 혼란기를 거쳐 다시 교육계로 돌아와 1959년에는 한양대학교 교수직에 있었다. 이듬해 학교를 그만두고 부국건설주식회사에 몸 담았으며 1965년에는 삼성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했다. 초기에는 현대건축의 설계 업무도 했지만 점차 문화재 관련 업무에 전념하면서 60년대 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광복 후 우리나라 문화재 업무는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이 시기 문화재 수리는 주로 국립박물관이 주관해서 수행했다. 임천은 이 시기 국립박물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문화재 수리 업무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다. 광복 직후 국내에 건축문화재 수리 경험을 지닌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임천은 1930년대에 일본에 가서 미술을 공부하고 국내에 돌아와 문화재 건물의 단청을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건축문화재 수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는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이한철이 있었다. 이한철은 지금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 건물의 도면도 그리고 수리 현장에서 기술담당을 하면서 착실하게 전문 지식을 쌓은 인물이었지만 6.25 동란 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 외에도 한 두 사람이 거론되지만 광복 후 국내에서 문화재 업무에 종사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광복 직후의 혼란기 속에서 문화재의 수리를 전담한 것은 임천 한 사람으로 귀결되는 셈이다.

2 강봉진의 경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강난형, 「국보건설단 강봉진과 국립박물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3, 2017.7)을 참고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 수리 설계는 물론 시공도 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한정해서 일을 맡아 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이런 움직임에 일찍 발맞춘 사람은 강봉진이었다. 강봉진은 장기인보다 1년 늦은 1917년 생으로 1941년 소화공과학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 건축과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에 건축대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광복 후 한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고 1959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교수직에 있다가 그만두고 이듬해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차렸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자 문화재실측면허를 취득하여 문화재 수리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².

1960년대 후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전문 자격을 갖춘 사무소에서만 건축문화재의 수리 도면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자 강봉진이 설립한 국보건설단 설계사무소는 크고 작은 설계업무를 맡아했다. 1966년 아 산 현충사를 정비하는 공사에는 본전 설계를 했고 1966년에는 경복궁 안에 국립박물관을 짓는 현상 설계에도 당선되었다. 또 1967년에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세종로 북쪽에 건립하는 복원 설계도 맡았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국보건설단이 맡은 건물은 모두 건물 형태는 기와를 올린 한식건물이면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짓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목조가 화재에 약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비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화재에 강하고 반영구적인 구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식 건축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짓는 방안이 통용되고 있었다. 세 건물 중에도 국립박물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계는 물론 일반 문화계에서도 철근콘크리트조 한식 형태의 설계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여론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건물은 국보건설단의 설계안에 따라 공사가 강행되어 1975년에는 완공을 보았다.

국보건설단이 활발하게 문화재 관련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1960년대에 삼성건축은 상대적으로 문화재 수리 업무에서는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 삼성건축은 현대건축의 설계도 병행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대표자 장기인이 설계 업무 외에 학술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었다. 장기인은 이미 1958년에 「건축용어집」 대한건축학회 발간을 간행하였다. 1950년대 건축용어는 아직도 일본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용어의 정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였다. 장기인은 건축 전반에 걸쳐 용어 정비를 힘썼으며 특히 전통적인 목조건축의 용어 정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용어집을 간행하였다. 이후에도 1963년 「건축구조학」, 1966년 「건축시공학」을 발간하고 1967년에는 「건축적산학」을 간행했는데, 이 책자들은

당시 우리말로 된 전문서적이 전무하던 시절에 건축의 구조나 시공 및 적산의 핵심사항들을 체계화시킨 중요한 학술 업적이었다.

1970년대의 수리·복원 설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건축문화재의 수리와 복원 업무는 가히 황금기를 맞았다고 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굵직한 문화재 수리와 복원 설계의 대부분을 삼성건축이 도맡아 수행했다. 삼성건축사사무소는 1970년대에 와서 시행한 국방유적 정비나 경주 역사지구 정비와 같은 국가적인 정책 사업은 물론 당시 새롭게 문화재지정을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설계 업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방위로 설계 활동을 확대해 나갔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 방대한 도면들은 지난 2016년 한양대학교에 이관되었고 그와 함께 도면 목록이 정리되었다. 그 목록에서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에 제작된 주요한 문화재 보수공사 목록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에 수행한 방대한 공사량에 놀라고 공사 대상 건물의 종류나 공사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란다. 많지 않은 인원으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소화해 내었는지 경탄을 금할 수 없다. 당시 사무소에서 일한 사람들이 모두 다 초인적인 노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얼마나 많은 문화재수리 일을 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앞에 소개한 도면 목록에서 임의로 1974년과 1975년 두 해의 자료를 나열해 보았다. 이 두 해가 다른 해에 비해 특별히 공사가 많은 것은 아니다. 단지 70년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시기라는 점과 비교적 정부의 문화재수리가 본 궤도에 오른 때라는 점에서 두 해만 예로 들었을 뿐이다.

1974년과 1975년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한 문화재 관련 설계 업무 공사 목록

1974년			1975년	
해외 불국사 부속건물 신축	선암사 대웅전 보수	옥천향교 보수	수원성 복원정화	봉정사 극락전 보수
원주감영 문루 보수	화심서원 보수	법주사 원통보전 보수	강릉 오죽헌 정화	시흥향교 대성전 보수
거제 기성관 해체보수	경주 서출지 복원	백양사 보수	삼국통일 위인유적 조성	송정전 해체이전
용인 심곡서원 보수	안동 소호헌 해체보수	목포 가락전 신축	여주민비생가 보수	철장사 혜소국사비 보수
남한산성 복원	관룡헌 보수	경복궁 영추문 복원	신리 너와집 보수	소수서원 보수
해미읍성 복원	경복궁 경회루·자경전 보수	소수서원 보수	문묘 보수	
서울성곽 광희문 복원	괴산 영성군사당 보수	청간정 보수	정암사 적멸보궁 보수	

출처 : 저자 작성

공사 내용을 보면 1974년에는 서울성곽과 해미읍성, 남한산성 같은 국방 유적과 경복궁 영추문복원, 경회루와 자경전 수리 등 궁궐을 다룬 공사 외에 불국사, 선암사, 법주사, 백양사 등 불교사원 시설의 보수와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심곡서원, 화심서원 등 서원의 수리도 제법 보이고 원주 감영이나 기성관, 관풍헌, 가락전 등 유교 관련 시설도 들어있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건물 수리를 수행했다. 1975년에 가면 수원 화성 복원설계가 새롭게 등장하고 오죽헌 정화라는 중요한 공사가 눈에 띄며 서울 문묘 보수나 경희궁 승정전 해체이전 설계도 보인다. 봉정사 극락전 보수도 보여서 흥미로운데 공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그 밖에 정암사 적멸보궁 보수, 삼국통일 위인유적 조성, 시흥향교 대성전 보수, 서울문묘 보수 등 불교와 유교시설의 수리가 들어있고 신리 너와집, 민비 생가 보수 등 살림집의 수리도 다루었다.

197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한 해에 치르는 수리공사의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오면 공사 규모는 작으면서 공사 수량은 크게 늘어나서 수량으로 치면 70년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지만, 공사 자체의 비중으로 보면 70년대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 표에 적은 1974년과 75년의 공사는 하나 같이 목직한 공사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원성곽이나 오죽헌 같은 곳은 당시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비중이 남달랐다.

일일이 공사 내용을 열거하기는 번거로워서 생략하지만, 이 시기 벌어진 많은 국방유적 정화사업, 선현유적 정화사업은 거의 다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수행했으며 규모가 크지 않은 불교사원의 건물 수리는 물론 지방 각지 선현들의 사당이나 정자 등도 거의 대부분 도맡았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문화재로 서원이나 향교들이 지정되면서 그 일차적인 수리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공사도 대부분은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차지가 되었다고 짐작된다.

그야말로 1970년대의 삼성건축사사무소는 위로는 서울성곽이나 수원화성 같은 초대형 복원공사에서부터 오죽헌 정화나 불국사 정비 같은 굵직한 공사는 물론 크고 작은 불교사원의 전각들의 수리, 서원·향교의 보수 및 살림집의 수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공사 설계를 도맡았다. 한양대학교에서 작성한 목록에 의하면 이 시기 삼성건축사사무소가 손을 댄 수리 설계 중에는 불국사나 수원 화성, 남한산성은 물론 공주 무령왕릉, 경주의 오릉을 비롯한 크고 작은 시설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유적들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설계 활동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의 양상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건축문화재의 수리 사업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갔으며, 삼성건축의 활발한 설계 업무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다만, 1980년대 이후에는 70년대와 같은 정부에 의한 대규모 유적 복원이나 정비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대신 매해 일정한 예산 범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수리공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설계사무소의 환경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실측설계 면허를 취득하여 문화재 수리 설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80년대에 오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각 지방에 지역에 연고를 가진 사무소들이 생겨나서 지방 지정 문화재의 소규모 수리 업무를 소화하기 시작하였다.

삼성건축사사무소는 1985년에 와서 장기인과 함께 장남 장순용이 공동 대표를 맡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장순용은 한양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원에서 신라 경주의 도시계획을 분석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삼성건축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실무 경력을 쌓았다. 대표를 맡은 이후 학구적인 취향이 강하고 치밀한 성향으로 부친이 기틀을 닦은 사무소를 내실 있게 이끌어 갔다.

1980년대에 와서도 삼성건축은 문화재 수리 사업의 주요한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갔으며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으로는 창경궁 복원 설계와 경주 월정교 복원 설계를 들 수 있다. 1983년 서울 대공원으로 동물들이 이사하면서 크게 훼손된 창경궁 경내를 정비하고 멸실된 건물 일부를 복원하는 공사였는데,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는 발굴작업에 따른 유적의 실측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문정전을 비롯해서 정전 주변 행각 등 멸실된 전각의 복원 설계를 수행했다. 삼성건축의 창경궁 복원 설계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는 궁궐 복원의 출발을 알리는 공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월정교는 신라의 삼국통일 후 경주 문천에 세운 길이 40미터의 돌다리인데, 장기간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서 홍수 때는 하천의 석재 유구들이 떠내려가는 등 유적 훼손이 심한 곳이었다. 우선 하천 주변 석재들을 하나하나 실측하고 이를 토대로 사라지고 없는 신라시대 다리를 설계하는 작업이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접근해 보지 않은 고대 토목 유구에 대한 복원 설계라는 점에서는 신선한 작업이었으며 그만큼 어려움도 많은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일들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매년 중첩해 있었던 점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고 하겠으며 이런 성향은 이후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70년대 수리·복원 사업과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가치

1970년대 건축문화재 수리·복원 사업의 시대적 의의와 한계

1960년대 중반까지 건축문화재는 비록 문화재로 지정은 되었지만 거의 수리의 손길이 닿지 못한 상태로 방치 수준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본격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체계적인 수리가 이루어진 것이 1970년대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지방 문화재가 새롭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 대상이 된 점은 중요한 성과였으며 지정에 따라 지방 문화재들도 비로소 정부의 행정지원 아래 수리와 보존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문화재 수리는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점과 함께 수리와 복원이 일정한 법적 절차와 제도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방법은 1980년대 이후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복원의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1970년대의 문화재 수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물 수리는 관련 공사의 경험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술자들에게 맡겨졌다. 이들은 여러 경로로 문화재 수리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었으며 일정한 식견과 기술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라에서 정한 자격증을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또 건설업법 등이 마련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문화재수리는 우선 실측자격증을 지닌 곳에서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역시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과연 이런 제도가 문화재수리에 도움이 되는지 또 이런 제도 아래서도 전통적인 건축기술이 온전하게 유지·계승될 수 있는지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다만, 이 문제는 별도의 기회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위와 같은 제도 정비에 따라 수리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변화가 1960년대 중반부터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1970년대에 들어가 문화재 수리 업무가 급증하면서 비로소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 인력도 늘어났고 관련 전문회사들도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오면 건물 수리를 위해서는 우선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작성된 도면은 한 차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문화재관리국이 발주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상임 전문위원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사가 발주되고 시공을 맡을 회사가 선정되면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지방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에 한해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로 넘어갔다고 짐작되는데, 지방에 도면을 검토할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의 수리나 신축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유적의 정비사업이나 선현들을 추모하는 사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의 문화재수리는 거의 1970년대에 자리 잡은 방식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졌다. 전문위원회에 의한 도면 검토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방식 등에 사소한 변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자격을 얻은 인력에 의해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가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 인력을 보유한 시공회사가 수리공사를 담당하는 방식 자체는 큰 변화 없이 운영, 유지되었다. 목수나 석공 등 전문 기능인들은 그때그때 시공회사에 고용되어 작업에 임했다. 그런 점에서 1970년대의 문화재수리는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공사의 토대를 이룬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공사가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이 확보될 수 있었다. 60년대 이전까지 극소수에 지나지 않던 전문 기술자들이 70년대를 거치면서 기량을 익히고 경험을 쌓아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문화재수리가 갖는 시대적 의미는 자못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이 시기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건물을 보존하고 수리하고 복원을 하지 않았다면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문화재는 거의 설 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수리를 위한 행정절차나 법률 제도가 정착된 점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공사가 크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모처럼의 제도도 구체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공사가 늘어나면서 관련한 전문 인력이 크게 늘어난 점은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전문 인력 중에는 설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깎고 조립하고 마무리하는 기능 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들이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문화재 업무만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따라야 하는데, 1970년대는 이런 여건이 비로소 충족된 시기였던 셈이다.

1970년대의 문화재 수리는 수리의 법적 절차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전문 기술 인력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1970년대 문화재 수리사업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한계와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수리나 복원이 정부에 의해 지나치게 목표 달성 위주로 드라이브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정인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판

단에 의해 공사가 결정되거나 추진된 문제점도 있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경제개발과 함께 정신문화의 함양을 국정의 주요한 지표로 삼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그에 따라 수시로 지방을 순시하면서 퇴락한 문화재의 수리를 지시하고 또 특정한 유적에 대한 복원과 정비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관리들은 일을 추진하기 위한 면밀한 준비나 검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정해진 기간 내에 지시를 이행하는데 급급하였다고 추측된다. 때로는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 중요한 유적 정비가 결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대통령 연두교시를 앞두고 지나치게 서둘러 사업 대상이나 방법을 결정하는 일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충분한 사전 검토나 준비 없이 시한에 쫓겨 마무리한 일의 결과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 사업의 대상이 문화재인 경우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시행된 문화재 수리와 복원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두고두고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리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도 적지 않았다. 1960년대 이전까지 문화재수리공사는 긴 공백기를 가졌다.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광복 이후에도 문화재수리는 극히 한정된 곳에서만 명맥을 이었다. 당연히 전문 인력도 극소수만이 살아남았다. 전통적인 기술도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다. 단청의 안료를 비롯해서 수리를 위한 재료의 수급도 거의 계승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70년대에 들어와 갑작스럽게 공사 물량이 늘어났다. 일을 맡은 관청은 시한을 정해 놓고 서둘러 일을 추진하고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었다. 급한 대로 대체가능한 방식으로 인력을 충당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재료를 장만하는 양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문화재 수리와 복원은 시의적절한 정부의 법적 제도정비와 국가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유적 정비의 긍정적인 성과와 함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유적의 파손과 돌이킬 수 없는 원형의 상실, 기술 인력의 점진적인 육성 없이 갑작스럽게 확대된 수리 공사가 빚어내는 인력 양산의 폐해도 남겼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조사 및 설계 방법- 수원화성 복원정화사업

삼성건축사사무소는 1974년부터 4개년 정도 수원화성의 복원정화 사업을 위한 설계 작업을 수행했다. 지금 남아있는 화성의 시설 대부분은 이 시기 삼성건축사사무소의 복원설계를 토대로 해서 없어진 건물은 새로 짓고 무너진 부

분은 다시 쌓아 올려 제 모습을 회복한 것이며 그 덕분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도 등재될 수 있었다. 4개년이라면 마치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현장을 살피면서 설계도서를 만들어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현실은 그와 정 반대였다.

수원화성은 20세기 들어와 크게 손상되고 있었으며 6.25 전쟁 중에 장안문 문루를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폭격으로 멸실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화성의 복구는 지역의 당면과제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 70년대에 들어와 정부에서 국방유적에 대한 수리에 힘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수원시에서도 화성 복구에 대한 기운이 만들어졌고 1974년 초 대통령 연두시찰을 계기로 사업이 가시화되어 복원정화 사업은 그 해 8월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통상 문화재 수리에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화성 복원은 1, 2년에 달성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 예산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9월에는 문화재관리국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의 합동 회의가 열려 앞으로 일의 진행 방식에 대한 방침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듬해 1975년 6월 2일에는 복원공사의 기공식이 열렸다. 삼성건축사사무소가 화성 복원 설계를 맡은 경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당시 삼성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하고 이런 큰 공사 설계를 수행할 다른 대안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설계 기간인데, 9월까지도 공사 방식을 협의하는 단계였고 이듬해 6월 초에는 시공회사가 선정되어 기공식을 했다면 남은 기간은 약 9개월, 그 사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 등을 빼면 실제로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수원화성의 복원사업은 당초 4개년으로 잡고 4단계로 구간을 나누어 1단계는 장안문 주변, 2단계는 화홍문에서 창룡문 구간 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해의 공사대상은 장안문에서 서장대 사이를 복원하는 설계였다. 이 구간에 멸실된 건물도 있고 성벽은 하부만 남아있고 상부는 흔적도 남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수준이라면 우선 멸실된 곳의 발굴조사만 1년은 족히 걸린 일이었지만 당시로는 모든 작업을 설계사무소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설계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다. 지난 2013년, 수원화성 복원이 이루어지고 4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당시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설계자와 감독관, 시공을 담당한 기술자와 목수, 석공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고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내용이 문자화되어 기록으로 남았다³. 수원화성박물관이 주관해서 마련한 이 자리에서 당시 삼성건축에서 화성 복원 설계를 주도한 장

3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수원화성박물관, 2013) 부록 수원성복원정화사업 40주년 기념 좌담회. 좌담회는 삼성건축의 장순용 대표, 당시 공사감독을 맡았던 수원시의 담당 공무원 이낙천, 대리산업 공사과장이던 이용철과 대목장 신응수, 부석장 허경무가 참석하였다.

순용이 힘들었던 설계과정을 전해 주었다.

화성은 전체 성벽 길이가 약 5.4km에 달했고 성문과 장대, 수문과 누각, 정자 및 포루와 공심돈 등 각종 시설이 40여 곳에 있었다. 성문 중에는 북문과 동문의 문루가 사라지고 없었으며 성벽은 하부만 간신히 잔존해 있었을 뿐이었고 나머지 시설들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었다.

다행히 수원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에 촬영한 사진들이 남아있었다. 또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일부 건물의 실측도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축성 직후에 나라에서 편찬한 「화성성역의궤」라는 상세한 공사기록물이 남아있었다. 수원화성은 다른 건물에 비하면 복원을 위한 고증자료가 비교적 구비된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건물의 개략적인 그림과 함께 각 건물을 조성할 때 들어간 자재의 종류와 규격 및 수량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들 자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원래의 형태와 구조를 추정해 낼 수 있었다.

의궤의 기록을 토대로 하고 또 현장에 남아있는 건물의 세부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적용할 척도를 고증하고 형태를 추정하여 건물 하나하나를 도면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설계 과정에서는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의 경험과 식견도 큰 역할을 하였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도면화는 사무소의 몫이었다. 건물 흔적이 없는 곳은 직원들이 곡괭이를 들고 주변을 대충 파서 주춧돌을 찾아내기도 하고 옛 사진들을 이리저리 짜 맞추며 형태를 추정하기도 했지만 모든 세부가 다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또 아직 「화성성역의궤」는 번역본도 나오지 않은 때여서 생소한 한문에 이두식 표현까지 학습해가면서 뜻을 풀이하는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수원화성의 복원 설계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문화재 수리에 서 옛 문헌을 세밀하게 읽고 현장의 잔존 유구를 파악하고 또 사진이나 잔존 도면까지 참고하면서 원형을 추정해 낸 과업으로는 거의 첫 번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물이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복원안 중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으며 본래의 모습과 차이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의 시점에서 설계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거의 최선의 결과를 해 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것은 1979년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거의 40년이 되어 가는 지금에 와서도 당시의 설계에서 원형에서 크게 벗어난 큰 결함은 보이지 않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근년에 와서 「화성성역의궤」의 그림만을 보고 복원된 건물이 그림과 약간 다르다는 점을 들어 혹시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의혹은 설계 과정의 답변을 통해 쉽게 해소되곤 하였다⁴. 화성의 복원 설계에서는 단지 그림만을 참고한 것이 아니고 각 건물별로 상세하게 명시한 집 짓는데 들어간 자재의 종류와 규격, 수량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자재의 명세는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비해 원형을 추정하는데 훨씬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화성 복원을 위해 제작된 도면은 2013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전시도 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었고 또 복원된 화성의 각 시설들은 지금 보아도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짧은 설계 기간에 쫓기면서 생소한 한문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면서 풀어낸 결과치고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중요한 문화재 수리와 복원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삼성건축사사무소가 도맡아 수행했다. 당시 삼성건축은 대표 장기인을 필두로 해서 유능한 전문인력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 시기 삼성건축에서 수행한 설계업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로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당시의 시대적 한계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시기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작업은 그 이전은 물론 이후의 설계업무에서도 모범으로 삼을 만한 충실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아카이브 작성이 갖는 의미

목조건축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손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가 새는 데가 있으면 막고, 썩은 곳은 새 재목으로 갈고 갈라진 벽은 틈을 메운다.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는 목조건물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문화재는 정기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문화재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원형이 함부로 달라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에 손을 볼 때 어떤 부분을 교체하고 또 어디를 어떻게 건드렸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수리 때 작성한 도면이나 서류, 사진 같은 자료들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다.

문화재 수리에 앞서서 해야 하는 작업이 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함께 기존에 어떤 부분의 수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 동안의 수리 내역

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당면한 수리의 범위와 방법,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건축문화재 수리의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기존의 수리를 위한 도면이나 관련 자료들이 일차적인 근거가 된다.

문화재를 다루는 설계사무소가 생산해 낸 수많은 도면이나 관련 자료들은 각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이미 몇 군데 사무소는 폐업과 함께 도면 자료들이 산질되어 버린 선례가 있다. 모처럼 작성한 귀중한 자료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채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상황에 견준다면, 삼성건축 아카이브는 지난 50년 동안의 중요한 문화재 수리의 상세한 내용이 한 자리에 고스란히 살아남은 특별한 사례이다. 이 아카이브가 지닌 가치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존재 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믿는다.

삼성건축 아카이브가 지닌 가치는 더 큰 차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수리의 원칙과 이론을 정립하는 기초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건축문화재 수리는 정답을 만들어 이를 풀어내는 일이 아니다. 모든 문화재는 그 성격과 존재 방식에 따라 그 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손상된 상태에 따라 수리 내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원형을 회복한다는 것도 한마디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개념이다. 무엇이 원형인지 어디까지를 원형으로 보아야 할지 문화재 마다 답이 다르다. 문화재 복원은 시대에 따라 또 관련된 사람들에 따라 의견에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처럼 방법이 다르고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문화재 수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수리는 아직 학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문화재를 수리한 역사가 70년에 가까워오지만 아직 이 분야에서 신뢰할만한 학술서적이 간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수리의 원칙이나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많지 않다. 아직 이 분야가 학문적으로 개념이나 방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문화재 수리의 학문적 성취는 이론만 가지고 성립할 수 없으며 외국의 사례를 동원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 결국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수리의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그 시대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또 방법상의 적정 여부를 판별해 나가면서 하나씩 이론을 정립하고 개념을 체계화해 나가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는듯하다.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삼성건축의 지난 50년 동안의 자료들이 지니는 가치는 충분히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70년대의 문화재 수리와 삼성건축의 활동을 특별하게 강조해서 글을 전개했지만 삼성건축사사무소 50년 동안의 활동이 다 소중하고, 그 내용들을 망라한 아카이브의 가치 역시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와 복원의 중요한 것들이 상당수 추진되었고 그 사업 대부분의 설계를 삼성건축이 수행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1970년대 우리나라는 건축문화재 수리와 복원에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땔 정도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다. 그런데 별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과감하게 오백년, 천년 넘는 역사를 지닌 유적에 대한 정비나 복원이 추진되었다. 역사나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 아래 충분한 사전 검토나 정상적인 행정절차 없이 특정 개인의 취향이나 판단,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수리 대상이 결정되고 공사 범위가 정해지고 심지어는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여건에서 삼성건축은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문헌을 살피고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에 필요한 온갖 지혜를 총동원해서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했다고 믿는다. 또 공사를 담당했던 기술자들 역시 어려운 공사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다 짜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들이 온 힘을 기울여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장벽이 있게 마련이며, 한계가 있다.

건축문화재의 수리나 복원은 아직까지 학문적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된다. 그동안은 일 자체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고 학술적인 접근의 통로도 열려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문화재는 언론의 큰 호제로 등장하였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학술적인 축적이 부족하다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견해가 오락가락하고 산만한 주장들이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사이버 전문가들이 등장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일도 심심치 않다.

지금부터라도 문화재수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와 복원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가 중요하다. 이 출발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성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갔는지를 파악해야 다음 시대로의 전개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삼성건축사사무소의 아카이브 작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1970년대만이 아니고 그 이후 2016년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의 모든 자료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소중하고 앞으로 이들을 토대로 한 학술적 검토와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건축문화재의 수리와 복원이 갖는 바른 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청사진도 그려 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업무를 종료한 삼성건축사사무소는 이제 훌라분한 기분일 듯하다. 50년 동안 간직했던 자료들을 떠나보내는 섭섭한 마음은 없지 않겠지만 다행히도 신뢰할만한 큰 대학이 이를 인수했으니 마음 든든할 것이다. 문제는 방대한 자료를 떠안은 대학 측이 아닌가 싶다. 당장의 자료 정리와 보관 작업도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이를 유지하고 자료를 운영하는 일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일을 맡은 1세대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그나마 애정을 갖고 유지 관리에 힘을 기울이겠지만, 세대가 넘어가서도 초심이 유지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카이브의 성공은 결국 자료들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고 적극 활용되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어야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터인데, 전망이 그다지 밝다고 말하기 어렵다. 삼성건축 아카이브에는 도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많은 고심들이 담겨있다. 모든 것이 영세하고 미진한 단계에서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 목조건물의 수리 상황을 담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치수의 표현이나 용척 설정의 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고민과 해결방안들이 아카이브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문화재 수리를 위한 모든 고민들을 이들 아카이브가 간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 학술적인 분석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회적인 관심과 흥미로까지 이어져야만 아카이브는 생명력을 갖고 후대에도 소중하게 관리되고 유지될 것이다. 기왕에 아카이브가 완성되었으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을 쏟고 또 학술적인 분석과 고찰을 펼쳐나가는 일이 남았다.

참고문헌

- 삼성건축설계사무소(1980), 『수원성복원정화지』, 경기도
- 수원화성박물관(2013), 『1970년대 수원화성 복원과 기록』, 수원화성박물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2015), 『와본 김동현 구술집-한국건축 보존연구에 바친 한 평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강난형(2017), “국보건설단 강봉진과 국립박물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v.33,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6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와 1970년대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





김 지 흥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에서의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중요성

문화재청 기록물과의 관계

1970년대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과 삼성건축사사무소

맺음말

삼성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와 1970년대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에서의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중요성

삼성건축사사무소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기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던 1960년대에 문화재 실측과 복원설계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많은 사무실들이 한 세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건축사 사무소의 전신인 삼성건축설계사무소가 개업한 1965년 무렵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정비의 기본 틀이 갖추어져 나가던 시기였다.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 이후, 문화재 보수공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관리 기술자와 기능자, 보수업자를 등록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¹ 사무소의 설립자인 장기인은 실측설계 분야 문화재관계기술자로², 당시 ‘삼성건축설계사무소’는 ‘문화재 관계업자’로 지정받아 문화재 실측 및 보수설계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³ 이후, 제도가 다소 변경되면서 1993년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체’로 재등록제³하였고, 2010년 삼아성건축사사무소로의 명칭변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화재 수리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나, 2016년 폐업하였다.⁴

따라서 삼성건축 아카이브에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재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특히 이중 6, 70년대의 자료는 국내 문화재 수리보수의 초기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정 문화재 수리업체 수가 많지 않았던 탓에 삼성건축 아카이브에는 당시 국내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파악 및 정리가 진행될수록 당시 공사의 면모를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문화재 공사의 특징상 대부분 현황실측도와 보수공사 설계도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삼성건축 아카이브 자료의 정리와 분석은 각 문화재의 변화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 ‘문화재 관계업자 기술자 기능자에 관한 규정’, 문교부 고시 제 164호, 1962.9.1. 제정 및 시행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 p. 56)

2 정재훈, 『문화재 관리 행정의 기본방향』, 『문화재』, 제4호, 1969

3 1972년 12월 31일 기준, 지정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실측 설계 사무소의 명단은 아래의 5개소이다.

대아건축설계연구소(김인호, 대구 시 전동 5-1); 국보건설단(강봉진, 종로구 종로1가 24); 삼성건축설계사무소(장기인, 중구 수표동 56-9); 태창건축설계사무소(박태수, 종로구 관철동 12-2); 수도건축설계연구소(허진, 동대문구 신설동 102-6)

(『지정문화재수리업자등록현황통보』, 문공1081-51,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공보실, 1973,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90795)

4 삼아성 사무소의 개업과 폐업까지의 연혁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 - (주)삼아성건축사사무소기초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p. 16.

문화재청 기록물과의 관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실제 보수정비 과정은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화재청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여 책정,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계획안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혹은 인근 건축행위 등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통해 수리 도면을 생산하며, 이 도면을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다. 또한, 설계승인 이후에, 착공 및 준공 보고를 위해 서류와 도면을 다시 한 번 제출한다. 따라서 삼성건축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 중 대부분은 지자체와 삼성건축의 계약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문화재청 공문서와 중복되는 자료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 많다. 다만 궁궐이나 현충사와 같이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삼성건축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도서의 납품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된 문서와 제출된 최종 도면을 다른 공문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오래된 도면 자료의 경우 문화재청 내부에 위치한 기록관 보존서고에 대부분 보관하고 있다. 각 문서나 도면은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5년, 10년 등의 폐기연한이 정해지거나 30년 이상 혹은 준영구, 영구 기록물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이 2000년부터이고, 그 이후 각 정부부처에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의 한계로 인해 공문서의 본격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공문서 및 도면자료에 대한 속성 분류작업이나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은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직제변동도 자료를 일관성 있게 분류하고 보존·관리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⁵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기록관을 중심으로 자체기록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의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고, 축약된 행정서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대한 수집과 대행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있으며, 장기적

5 문화재청은 1999년 문화관광부 외청으로 승격하면서 독립기관으로의 입지를 확립하였으나, 1961년부터 그 이전까지 30여년간은 문화부의 외국인 문화재관리국으로 운영되었으며, 세부 직제도 여러 번 변화하였다.

6 자세한 내용은「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규정」(문화재청, 2018.7월 제정) 참고

으로는 종합적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공개할 계획이다.⁶ 문화재청에서 기존에 공식 발간된 보고서들은 대부분의 전자파일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개별 문화재 정보나 연구자료에 대해서는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nrich.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1970년대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과 삼성건축사사무소

다양한 문화재 사업을 아우르는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자료들 중에 특기할만한 부분은 1960,70년대에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보수정화 사업의 자료이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문화재 특별회계 등 재정이 확보되면서 국보, 보물 등 개별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사적에 대한 조명과 종합적인 보수정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민족중흥’이라는 구호는 문화재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문화재를 고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 ‘보수정화(補修淨化)’ 사업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정부는 특히 역사상 중요한 전쟁이나 공을 세운 인물과 관련된 장소, 혹은 우수한 민족정신으로 삼을 만한 위인들과 관련된 장소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하였다. ‘호국선현의 유적’으로 통칭되었던 이들 유적의 보수사업은 역사적 황금기를 재조명하여, 남북대립, 근대화 상황에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구호로 활용한 매우 정치적인 작업이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에 대한 계승과 창조가 매우 강조되었다. 문화재는 ‘새로운 민족사를 창조해 나가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국민교육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비되어야 했다. 오늘날 문화재의 의미가 전통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때의 문화재 해설에는 전통문화에 덧붙여 ‘국난극복’을 가능하게 한 위인들의 애국심과 ‘선현의 민족사상’의 계승이 특히 강조되었다.⁷

호국정신의 대표적인 장소로 아산 현충사를 비롯한 이순신 관련 유적지나 일본 등 외세의 침입과 관련된 행주산성 등의 성곽 유적, 강화도의 방어유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민족의 뛰어난 정신문화를 보여주는 곳으로는 세종대왕 관련 유적, 도산서원, 오죽헌 등이 주로 재정비 되었는데, 삼성건축 아카이브의 관련 자료를 통해 이들 사업의 주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호국선현 유적의 보수정화 사업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나 역사에 대한 상징성이 어떻게 초기에 특정 문화재 사업에 대한 집중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이들 사업들에서 시작되었던 유적 내 문화재와 시설물의 전통적 외관 강조, 문화재 주변부의 경관미화를 위한 공원식 조경계획의 관성이 오늘날에도 일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재 보수정비 방식을 돌아보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7 정재훈, 「호국·선현유적과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 계승에 대하여」, 『문화재』, 1977; 「국난극복의 부지와 그 현장-문화재 보수정화개설」, 『호국 선현의 유적』, 문화공보부, 1978

과거 보수정비 과정이 기록된 각 자료는 그 문화재가 시간에 따라 어떤 물리적 변화를 거쳤는지를 살펴보는 학술적인 고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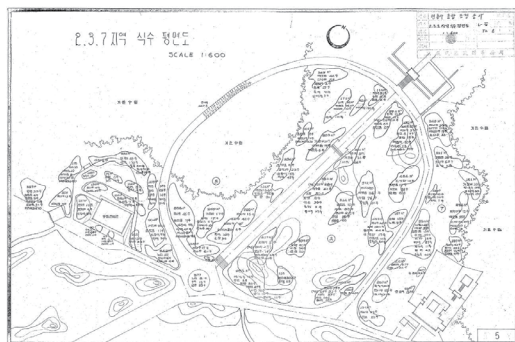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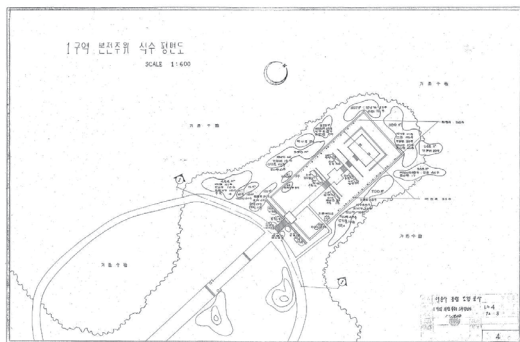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삼성건축 아카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70년대 보수정화 사업 중 아산 현충사 성역화 사업과, 도산서원 중수사업의 도면자료를 통해 각 사업의 면모를 파악하고, 삼성건축 아카이브가 갖고 있는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산 현충사 성역화 사업

이순신은 왜군을 물리친 영웅, 애국적인 위인으로 오래 전부터 조명되었지만, 1960년대에 들어 관련 유적이 문화재로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는 아산 현충사이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은 ‘현충사 성역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년간 진행하였다. 현충사 일원 351,704㎡은 1967년 3월에 사적 제155호로 지정되었다.⁸

현충사는 이순신의 고향 마을에 건립된 사당으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구한말, 일제시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전쟁영웅으로 국민들에게 추앙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파괴되었다가,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에 일본의 신사건립에 대한 반발로 민족영웅에 대한 사당 복원이 추진되면서 항일이나 독립과 관련된 상징성도 매우 강한 곳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현충사를 ‘성역화’하고, 국경일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행사와 의례를 추진하여 국가의 역사적인 성지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현충사의 정비작업은 ‘성역화’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을 갖고 진행되었다.



현충사 본전 주위 식수 평면도(좌), 현충사 식수 평면도(우), 1972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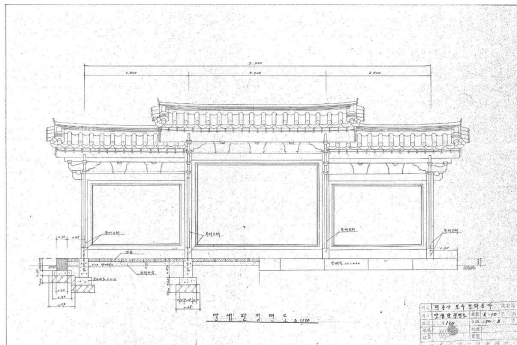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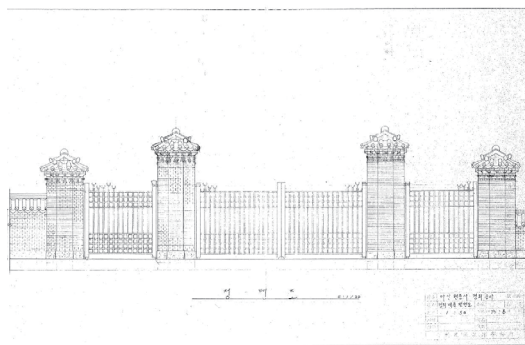
9 1972년 7월 24일 현충사를 방문한 박대통령은 고택의 원형을 찾아 복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973년 10월 착공한 경의 조경공사의 기본 계획에 경내 유물관에 청기와 지붕을 씌워 한국적 외관으로 바꿀 것이 명기되어 있었다. (『현충사 연혁지』, 문화공보부, 1975, p.123 ; 『충무공 고택보수에 따른 협조』, 문재일 1080-7325, 1972.10.10.,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1과,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20616)

10 현충사의 경우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공사의 발주 역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고택보수정화사업의 공사는 공사금액 8,847천원으로 1972년 9월~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지도위원은 건축기와 장경호, 감독관보는 박중석이었다. (『현충사충무공고택보수』,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1과, 197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20616)

전체사업은 크게 현충사 성역화 기본사업 1966.3.5.~1969.4.28.과 종합 조경공사 1972.9.15.~1973.4.28., 경의 종합 조경공사 1973.10.20.~1973.4.28.로 나뉜다. 현충사 성역화 사업은 단순히 사당과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사당이 위치한 마을 전체를 주민을 이주시키고 하나의 사적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기본사업에서 현충사 본전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의 설계는 국보건설단에서 맡았다. 삼성건축사무소는 종합 조경공사와 경의 종합조경공사에서 전체 조경 설계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유물전시관, 대문, 안내소 등 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충무공 종가의 보수설계 등의 설계 작업을 맡았다. 이 때 유물전시관의 개축, 편의시설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시공은 현대건설에서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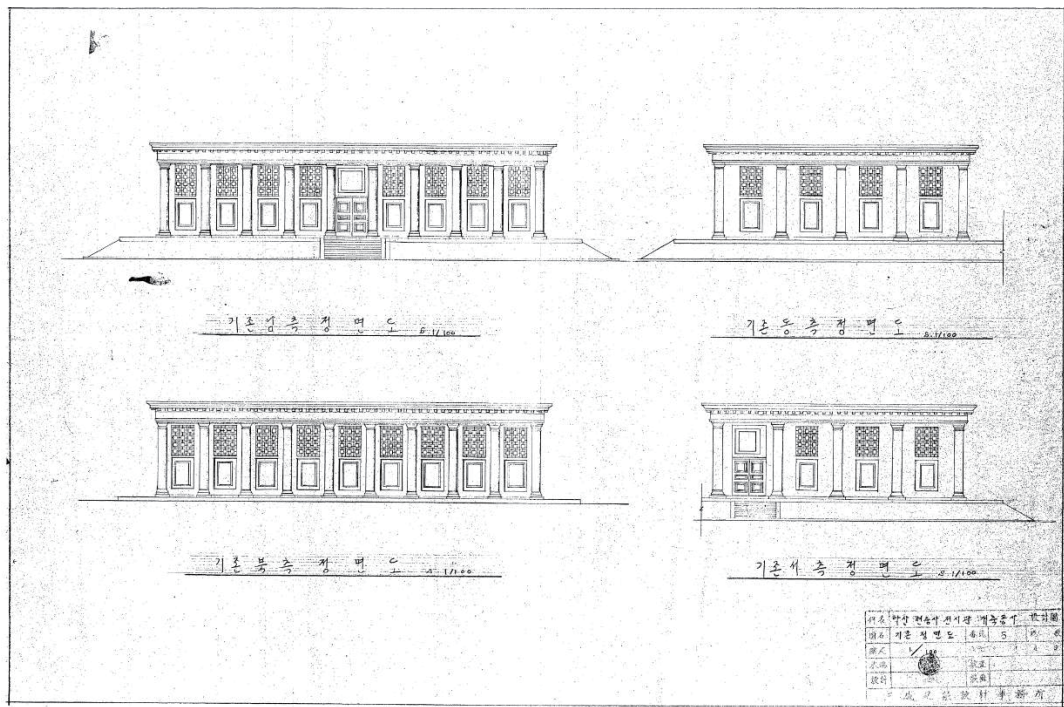
당시 조경공사 계획안에서는 현충사의 경역과 주요 건축물이 확보된 뒤의 주변에 대한 자세한 조경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삼성건축 아카이브에는 문화재 주변에 주로 설치되는 다양한 편의시설 - 대문, 안내판, 화장실, 음수대 - 등 이후의 문화재 보수정화 사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풍 편의시설의 전형적인 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건축사무소에서 수행한 주된 두 건의 건축물 설계는 충무공 고택의 보수와 유물전시관의 개축이었는데, 두 건 모두 기존 건물을 수리하여 전통적인 외형으로 변경하는 작업이었다.⁹ 고택 보수정화의 경우 지붕의 해체수리 등 구조적 보강을 위한 공사를 포함하였으며, 근대기에 도입된 유리문, 벽돌벽, 몰탈마감 등이 창호문, 회벽 등의 전통풍으로 변경되었다.¹⁰ 유물전시관의 경우 성역화 사업 과정에서 현대건설에서 서양의 고전양식을 본떠 설계, 시공한 콘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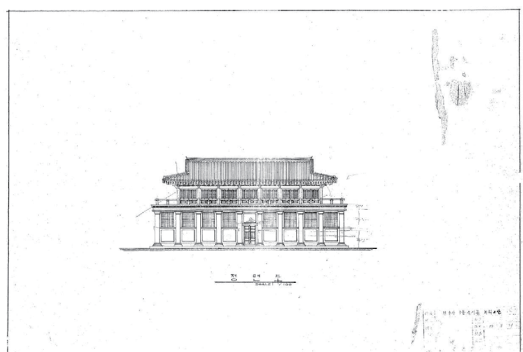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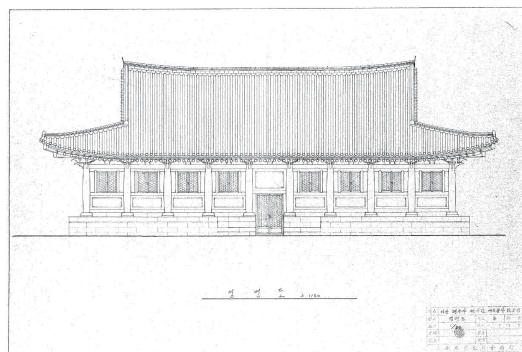
전통건축기법을 응용한 대문(좌, 1972), 전통건축기법을 응용한 안내판(우, 1973)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기존의 현중사 유물전시관 현황도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최종적으로 실현된 현중사 유물전시관 개수 계획안(좌), 폐기된 제2안(우)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11 「국난극복의 부지와 그 현장-문화재 보수 정화 개설」, 「호국 선현의 유적」, 문화공보부, 1978

12 「도산서원 중수지」, 문화공보부, 1970, pp. 9-10.

13 원래 사주토병을 포함한 상덕사 일원은 보물 제211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주토병의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중수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사고석담장으로 개축하였다. 사주토병의 양식은 도산서당 근처의 담에 일부 재현되었다. (『도산서원 중수지』, 문화공보부, 1970, p. 47)

14 「도산서원 중수지」, 문화공보부, 1970, p. 30

리트 건축물로 1968년에 지어진 새 건물이었다. 경외 조경공사에서 이 건물의 외관을 전통풍으로 변경하는 것이 결정되어, 원래의 각기둥을 배흘림 원기둥으로 바꾸고 청기와 지붕을 갖춘 전통풍 건축물로 개수되었다. 아카이브에는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기존의 건물 위에 한옥을 얹는 제2계획안도 포함되어 있다.

도산서원 중수 사업

당시 정부는 국난 극복과 관련된 유적뿐 아니라 한국 사상을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선현들의 유적을 보수정화 하여 우리의 민족 문화를 재발견하고 자수성을 선양하고자 하였는데,¹¹ 이러한 유적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 이었다. 퇴계 이황에 대해서는 이이와 함께 이기론을 정립하였으며, 학문적 업적이 일본의 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이후의 실학자들이 퇴계 선생을 존경하였다는 점에서 퇴계의 사상을 오늘날 근대화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근원으로 보거나, 서원에서의 가르침을 오늘날 교육이념이나 국민정신과 연속하여 해석하려고 하였다.¹²

도산서원 중수는 현충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보수정화 사업 자체는 현충사에 비해서 짧고 단순하게 이루어졌다. 도산서원 중수 혹은 정화 사업으로 불린 1969~70년의 보수정비는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맡고, 신양사에서 시공을 맡았다. 정비를 거치면서 서원 내 각 개별건물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서원을 구획하고 있던 황토 담장이 모두 사고석 담장으로 바뀌고¹³, 도산서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단과 축대가 장대석으로 바뀌면서 원래 도산서원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게 되었다. 또한 지형을 메우고,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작은 계곡으로 분리되어 있던 역락서재와 서원영역의 지형이 연결되었다.

도산서원은 사당인 상덕사와 전교당만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도산서원 보수정화가 결정되고 나서, 1969년 5월 도산서원 전체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4월부터 제1차 중수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듬해인 1970년 3월 제2차 중수공사가 진행되어 12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1차 공사에서는 한 달 정도 목조건물의 일부 보수, 축대 쌓기, 진입로 박석 깔기 등이 진행되었으며, 2차 공사에서는 유물전시관 옥전각이 새롭게 건립되고, 담장의 개축, 단청, 경내외 조경 등을 포함하였다.¹⁴ 도산서원 중수사업에서 일정별로 진행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학리연구소는 도산서원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건립이 지시되었는데, 국내와 일본, 중국 등지에서 주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실과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로 계획되었다. (『박대통령 지시, “퇴계학리연구소 설립토록”』경향신문, 1970.12.9. 참고)

16 1979~80년의 도산서원 보수정화 추가공사는 삼성건축 설계, 제일종합건설 시공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관련 공문서는 다음 서류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1과, 「도산서원 보수」, 1979,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21949)

[1차공사]

착공일 79.10.27

준공일 79.12.5

도급액(천원) 5,630

주요 공사 내용

동서광명실, 장판각 보안시설

[2차공사]

착공일 79.11.07

준공일 79.12.20

도급액(천원) 3,500

주요 공사 내용

하교직사 보수

[3차공사]

착공일 79.12.19

준공일 80.3.31

도급액(천원) 8,800

주요 공사 내용

전시관 단청, 상고직사 보수

도산서원 중수사업 일정과 주요내용

날짜	주요내용
1969.4	문화공보부 신법식 장관 취임 후 대통령지시에 따른 도산서원 중수사업 세부계획 수립 지시
1969.4.17.~4.24	문화재 전문위원 및 직원 현지조사(기초조사)
1969.6.4	문화공보부 정책회의에서 보수사업계획 결정
1969.6.17	중요문화재 보수에 따른 관계부처회의(대통령 정부비서실)
1969.6.19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가결
1969.8.5	설계 완료
1969.10.6	기공식
1969.10.14	대통령 현장시찰(사고석담장, 기와, 단청, 산림녹화, 전적 보존, 유물전시관 건립 지시)
1969.12.30	제1차 공사 완공(건물 보수, 축대석 공사)
1970.4	제2차 공사 일부 발주(단청, 담장, 조경, 전적정리, 유물정리 등)
1970.4	경외 조림 및 사방사업 착공(산림청)
1970.6	제2차 공사 중 유물전시관 착공
1970.12.8	준공



도산서원 보수정화 사업 전 전경(좌, 1969), 사업 후 전경(우,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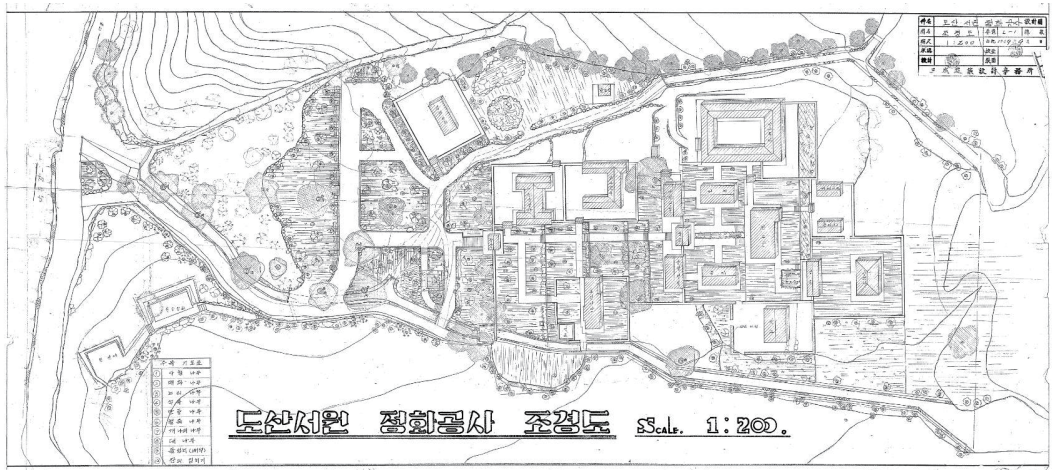
출처 :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61932&dsid=000000000015&gubun=search\(좌\)](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61932&dsid=000000000015&gubun=search(좌)),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62000&dsid=000000000002&gubun=search\(우\)](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62000&dsid=000000000002&gubun=search(우))

1979~70년의 중수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에서 펴낸 「도산서원 중수지」¹⁹⁷⁰가 있어서 공사 주요내용과 관련도면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삼성건축 아카이브에 남아있는 조경도에서는 유물전시관 건립이 결정되지 않았던 1차

사업 당시의 도산서원 배치를 표현하고 있어 도산서원의 원래 배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아래의 도면에 보면, 현재의 유물전시관 자리에 방앗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역락서재와 서원구역 간의 지형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판각이 별도의 담장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도 현재의 도산서원과 차이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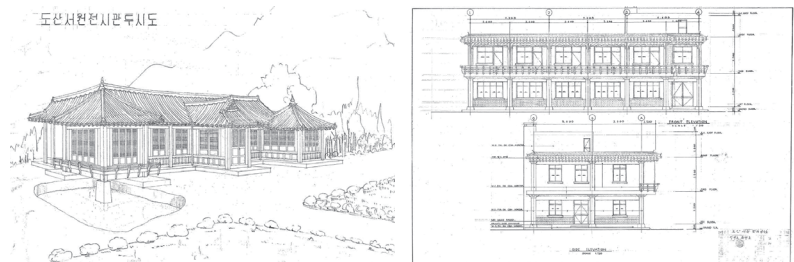
또한 현재 지어진 것과 다른 유물전시관의 초기 디자인안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부지 위치는 확인이 어렵지만, 1970년 11월에 ‘도산서원 요사채’ 계획안이 학리연구소¹⁵ 계획안 1971년 3월으로 변경 발전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삼성건축 아카이브에는 1970년대 후반 도산서원 보수정화 추가공사 1~3차, 1979~80¹⁶,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도산서원 기타공사 1982~1983 자료도 남아있어서 도산서원의 세부적인 보수이력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산서원 정화공사 조경도(1969)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도산서원 유물전시관 투시도(좌, 1969), 학리연구소 입면도(우, 1971)

출처 : 삼성건축 아카이브

맺음말

삼성건축 아카이브에는 1965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개업기간 동안의 다양한 문화재 관련 문서, 도면자료, 기록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현충사와 도산서원 보수정화 사업과 관련된 1970년대 도면이 해당사업의 상세내용과 문화재 보수사업의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듯 다른 자료도 당시의 진행상황을 기록한 원천 자료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 특히 최종 납품도서가 정리되기까지 다양한 계획안과 중간 과정에서의 기록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은 삼성건축 아카이브가 기존 문화재청의 공식보고서, 문화재청이나 지자체가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를 보완하는 자료의 보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건축 아카이브 전체 자료에 대한 분류와 정리가 완료되고, 많은 일반인들과 실무자,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다양한 문화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가 밝혀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지홍(2014),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7), 「한국 전통건축자료의 아카이빙 구축 방법론 및 유지관리 방안 개발 - (구)삼아성건축사사무소 기증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문화공보부(1970), 「도산서원 중수지」, 문화공보부
- 문화공보부(1975), 「현충사 연혁지」, 문화공보부
- 문화공보부(1978), 「호국 선현의 유적」, 문화공보부
- 문화재청(2011),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 문화재청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 01

삼성건축사사무소

인쇄일	2018년 12월 23일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펴낸이	박소현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619호
홈페이지	www.auri.re.kr / www.hanokdb.kr
이메일	information@auri.re.kr
책임편집	이규철
편집	김해리, 이재석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www.credada.com)
출판등록번호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ISBN	979-11-5659-224-2 979-11-5659-223-5(세트)

©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 있으며, 비매품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94540



9 791156 592242

ISBN 979-11-5659-224-2

ISBN 979-11-5659-223-5 (세트)